

September 2013

Monthly

Gardenin

가든인 9월호

SALE COUPON

양귀비꽃

테르메덴 50% 할인권

**Gardening
DIY**

어린왕자의 장미,
보존화

**Garden
Plan**

독일붓꽃의
포기나누기

Garden Tour

정원에서
꿈꾸는 사람들
전통을 이은 정원

*Monthly
Gardening*

- ✓ 씨앗 채종 & 보관
- ✓ 파종해야 하는 식물
- ✓ 봄 개화 식물 번식기
- ✓ 추식구근 준비

CHECK LIST

김장배추 무 양념채소 9월 관리법
웃거름 주기, 물 관리, 병충해방제



772288-171000
ISSN 2288-1719

10,000원

대한민국 대표 우리꽃!

야생화 육종·생산 전문... 화훼 본고장인 유럽으로 수출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츠

국내최초 로얄티 품목으로 화색이 다양하고 장기간화합니다.



코레우리 버티칼라타시리츠

키가 작고 화수가 많으며 노란색으로 한정된 기존의 화색군을 맑은 노랑색, 주황색 등으로 넓혔습니다.



가우라 시리츠

키가 작은 왜성종부터 잎에 무늬가 있는 품종 등 조경용 최고의 인기품목



상록만디패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겨울엔 상록으로!



부처꽃 탐

화색이 진하고 꽃의 크기가 커진 업그레이드 부처꽃



금강애기기린초

잎이 조밀하고 컴팩트한 초형의 기린초



백두산애기기린초

포복성의 가을단풍이 좋은 상록성 기린초

예고



패랭이 스위트베리

패랭이 피카소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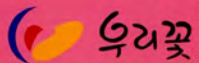
황금자리공

부처꽃 황금

분홍필레

조팝 골든바

제품문의



031.634.7990

www.uriseed.com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되세요

누구의 장난일까,

가든인 편집부

해바라기 사진 한 장이 익살스럽다,
누군가의 장난기가 발동한 작품(?)이겠지만
가을 들녘의 풍경과 꽃향기까지 전해져 싱그럽다,

사진 속에서는 또 도시농부의 삶과 여유가 묻어났다,
씨앗을 하나하나 메어내면서 즐거워했을 도시가드너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피식 웃음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회색 도시에서 가드너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작은 식물이라도 가꾸고, 즐기면서,
그리고 이웃과 공유하면서
건강한 웃음과 재미, 그리고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가드너가 추구하는 도시적 삶이고,
Gardenin이 독자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알알이 맺힌 해바라기 씨앗처럼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짓는 사진 속 하회탈 가드너처럼
행복함으로 가득 찬 2013년의 가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Gardenin이 독자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Contents

September 2013



Cover story

나비넥타이를 맨 '도시가드너'

나비넥타이를 맨 도시가드너가 웃고 있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지만, 선한 눈매와 입가에서는 행복감이 묻어난다.

3 커버스토리

6 이달의 야생화

세계 속에 피어나는 우리꽃

8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조팝과 그라스의 콤비네이션

13 나비가 되고픈 꽃 가우라

우리꽃이 개발한 가우라 베이비시리즈

16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식물들의 가을 번식

22 현장에서 들려주는 번식 이야기

독일붓꽃 VS 부채붓꽃의 포기나누기 외

25 식물 재배의 3대 요소 '물'

물주기 타이밍을 잡아라

26 9월 베란다 정원 관리

허브의 번식, 흙꽃이가 유리

29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식물

디육계 꽃의 여왕 이카보이데스

32 햇빛이 적은 베란대를 위한 핫 아이템

고사리로 완성한 녹색 정원

36 시즌 아이템 상사화

상사화 재배 및 관리법

38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꽃 '무궁화'

41 식물의 개화,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식물을 꽃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44 산에서 만나는 꽃 이야기

용의 쓸개처럼 맛이 쓴 용담

46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병

탄저병, 기온이 오르면 찾아오는 병해

48 토종약초

개똥쑥, 바로 알고 이용해야...

50 텃밭 진단

온라인 텃밭 상태 처방전 '흙토람'

52 국화 분재 II

자연 풍경을 담아내는 석부작

54 결혼식용 DIY

생화로 센터피스 만들기

56 낡은 가방의 화려한 변신

미니 가든 만들기

58 보는 재미와 창작의 즐거움

원예 식물로 만드는 압화 공예

60 시계절 즐기는 아름다움

생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 '보존화'

62 식물을 키우기 위한 가든 아이템

컨테이너

64 가을 정원의 풍취를 더하는 가든 아이템

썰라 램프

66 토종 이야기

한국의 토종 배추 소개

68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김장 채소, 관리만 잘해도 일년 농사 성공

72 추석 특집 I

400년 전통의 학봉 김성일 종가의 차례 풍경

74 추석 특집 II

마당에서 키운 과수로 차례상 준비하기

76 추석 특집 III IV

한자성어로 풀어본 차례 음식 이야기

78 Food

추석에 즐길 수 있는 터키식 가지 동그랑땡

80 정원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남순희씨

84 서울 속 시크릿 가든

황제의 정원

86 세계 식물원 탐방

세계 식물 표본의 산실 레이턴대학식물원

89 미국 에어플랜트 재배 농가 탐방

공중에서 생육되는 에어플랜트 '틸란드시아'

92 세계 정원 탐방

영국의 핀드혼 가든

96 아메 가드너의 가든 다이어리

무지로 죽어간 식물을 대하는 자세

98 Ask your experts Q&A

독자, 전문가에게 답을 묻다

101 Garden in NEWS

농진청 오디 뽕나무 품종 개발 외

106 북카페

도시농부 바람길의 자급자족 농사 일기

이달의 야생화



아스타 : 아스타 종류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는데 9월에 피는 아스타 종류는 대체로 키가 작고 늦가을로 갈수록 키가 큰 종류가 된다.

속근 해바라기 : 우리꽃에서 선별 육종한 속근해바라기는 꽃이 장기간 피고 내한성이 강해 늦지 월동이 가능하다. 개화 전과 후에 각각 2회씩 커팅하면 많은 꽃을 장기간 볼 수 있다. 겹꽃과 홑꽃이 있다.



분홍구절초 : 우리꽃이 선별한 진분홍의 구절초로 일반 구절초에 비해 꽃수가 더 많고 꽃대가 짧아 쓰러짐이 적다. 가을의 대표주자이다.



종꽃 : 내염성이 강하고 건조에도 강해 돌 틈 식재에 효과적이다. 벌과 나비가 많이 찾는 밀원식물.

맥문동 : 그늘이나 양지 모두에 잘 적응하는 대표적인 야생화. 약간의 습윤지에 심으면 더욱 아름다운 보라색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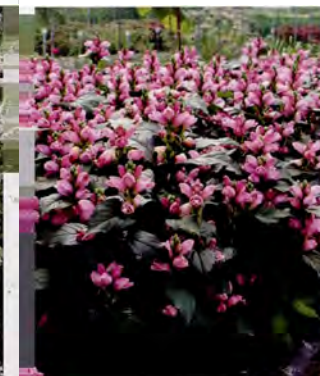
배초향 : 배초향은 대표적인 벌, 나비 식물인데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 선호되는 식물이다. 그러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하는 게 좋다. 꽃이 피기 전 키를 낮추기 위한 커팅이 필요하다.



붓들레야 분홍 : 관목상의 장기간 개화식물. 7월부터 피는 큰 꼬투리의 꽃은 보라색과 흰색, 붉은색 등이 있다. 꽃은 지는 대로 커팅을 하면 계속해서 새순의 끝에서 개화한다.



붓들레야 하양 : 관목상의 장기간 개화식물. 7월부터 피는 큰 꼬투리의 꽃은 보라색과 흰색, 붉은색 등이 있다. 꽃은 지는 대로 커팅을 하면 계속해서 새순의 끝에서 개화한다.



거북머리 : 거북머리와 같은 모양의 도입 식물로 생육이 강건하고 장기 개화형이다. 하양과 분홍 두 종류가 있는데 별개미취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버베나 보나리엔시스 : 국내 심는 대부분의 버베나는 파라솔 버베나로 땅에 딱 붙어 자라는데 이 보나리엔시스는 키가 크고, 6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가을까지 개화한다.



속근 아네모네 : 아네모네 종류는 보통 구근식물로 이른 봄 피는 것과 긴 뿌리를 갖는 야생화로 나뉘는데 속근 아네모네는 우리의 정서에 알맞은 식물이다.

우리 살속의 정원 가든인 9월호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글·사진 서준혁 우리꽃 사무
031-634-7990 www.uriseed.com



아리가든(Ari garden)에 적용된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이 둥글게 잘다듬어져, 조형미는 물론 볼륨감을 주었다. 이른 봄 맑고 아름다운 컬러가 단연 돋보이고 가을 단풍 또한 아름다운 수종이다.

지난 여름은 우리꽃 정원도 많은 잡초와 병충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들은 우리꽃엔 꽃이 많다고 부러워하며 비법을 물어 왔다. 그럴 때는 대답한다. "사람이나 정원 모두 오래되면 오래된 대로 구수한 전통의 매력이 있고, 또 어리면 어린 대로 신선함과 젊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꽃 정원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우리꽃 정원 관리자들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과제 앞에 성장통을 앓고 있다. 우리꽃 정원은 올해로 5살, 전통의 고유색은 살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며 제2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예정인 가든조아(gadenjoa.com)의 리뉴얼 오픈과 함께 정원 역시 새로움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가든조아는 기존 인터넷 쇼핑몰 '가든조아'를 확장 및 다각화시켜, 교육과 체험, 휴식과 즐거움을 담아내는 유럽형 가든센터로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우리꽃 정원의 주요 관목포인트는 조팝류

우리꽃 정원에서 방문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주요 관목은 조팝나무류이다. 여름 내내 꽃을 피우고 회복이 빠른 조팝나무류는 정원의 안정감과 색상의 변화 그리고 동선의 개폐까지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조팝나무는 전 세계에 약 80여종이 있는데 대부분 관목상으로 다양한 화색과 모양, 그리고 꽃피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 우리꽃 정원에 식재된 조팝류는 총 7가지. 둥근형의 포인트 식물로 이용되었는가 하면, 우리 토종을 개량한 '골든바'는 생울타리가 되어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우리꽃 정원 덕분에 골든바는 생울타리용 식물로 인기를 높였고, 나아가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되어 로열티까지 받게 한 효자상품이다.

우리의 토종 조팝은 연중 2회 정도 커팅이 가능한데 이른 봄 개화하므로 장마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이득해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만약 생울타리용으로 심거졌다면 장마기 후에 못자란 가지들을 전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초여름부터 연중 개화하는 *Spiraea japonica*계통은 6번 정도의 커팅에 의해 모양이 좋은 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삼색조팝, 황금조팝, 분홍조팝, 흰꽃조팝, 까실조팝 등이다.



분홍, 하양, 까실, 삼색, 황금조팝 등 5종류의 조팝으로 정원의 경계를 만들었다. 키 낮은 생울타리에 안정맞춤이다. 자주 커팅을 하여 새로운 가지를 많이 하게 하면 잎도 조밀해지고, 하양과 분홍의 꽃의 향연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다. 철쭉이 화려한 감쪽소를 보여준다면, 조팝류는 오랫동안 요란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 우리꽃에서 개발한 우리 토종의 조팝나무 황금원무늬종 '골든바'. 생육이 매우 뛰어나고 이른 봄 화려한 꽃을 피운다. 황금색 잎 역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줘, 포인트 식물로도 인기이다. 생울타리용으로도 매우 좋은 품종이다.



분홍조팝의 4차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명이 *Spiraea japonica*로 되어 있어 일본조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름을 품종에 알맞게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조팝(학명: *Spiraea chinensis*)이라 하는 종은 일종으로 정확한 이름이 될 수 있지만 품종이 많이 분화되고 개량된 *Spiraea japonica* 종류는 이제 정확한 품종을 붙여 부르거나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 불러야 할 것이다.

꽃복숭아 숲길로 들어서기 전 우측에 자리한 하양조팝과 분홍조팝의 군식지이다. 왼쪽으로 버베나의 수수함이 돋보인다.



가을은 그라스의 계절

그라스는 많은 종류가 있다. 봄에는 무늬염주그라스나 여우꼬리그라스가 피었고, 초여름에는 대형무늬 갈풀, 털수염풀, 무늬새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라스는 역시 가을에 제멋을 낸다. 만약 가을의 그라스가 봄과 여름에 좋은 평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좋은 무늬가 들었을 것이다.

사실 그라스는 하나의 종류가 아니다. 선형으로 자라는 화본과 식물, 사초과 식물 그리고 몇몇 백합과, 방동사니과, 고랭이과 식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화본과 식물의 대표종은 억새와 수크령이고 사초과의 대표종은 대채로 키가 작고 잎에 좋은 무늬나 색깔, 혹은 상록성을 유지한다. 대표종으로 '골드밴드' 지리무늬대사초 등이 있다.

우리꽃 정원에서도 지금부터 겨울까지 많은 종류의 억새류와 기장류, 수크령 등이 정원을 평정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도 수크령의 키와 꼬투리가 커 최고의 경관을 연출한다. 그러나 키 큰 그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쓰러짐이다. 때문에 그라스도 적당한 전정이 필요한 것이다. 포인트 식물로 적용되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8월이면 꽃을 피우는 조생종 억새인 파랑새억새, 키가 작고 잎이 블루색으로 깨끗하다. 황금색 이삭이 단정함을 더한다.



- 1 평면베드에 식재된 수크령이 올해는 더욱 키가 크다. 보통 수크령이 많이 자라면 1.2m 정도이나 올해는 약 2m까지 자랐다. 튼튼한 줄기와 큰 이삭이 돋보인다.
- 2 무리억새의 아름다운 선에 어우러진 보라색의 버베나와 사루비아가 시원함을 더한다.
- 3 그라스와 함께 적용된 큰평의비름 '만추'는 8월에 그린색으로 피어 점점 분홍으로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 붉은 색이 된다. 12월이 되면 하얀 눈으로 다시 핀다.





안개 같은 갯질경이와 무궁화의 깨끗함이 더 돋보인다.



일년생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일년생은 무리지어 심으면 느낌이 강렬하고, 혼합하면 화려하다. 그리고 조금씩 처리하면 수수함으로 다가선다.



이미 저서 말라버린 에키네시아와 대조를 이루는 파랑의 '만추'가 가을을 느끼게 한다.



늦봄부터 연중 개화하는 가우라는 꽃이 없는 9월의 정원을 대표한다. 빨강의 일년생 사루비아가 맛있게 즐겼다.

콤비네이션의 중요성

정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주요한 요소는 콤비네이션이다. 각 식물에 알맞은 조합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생태적인 조합과 컬러를 중시하는 조합, 그리고 정원 데코제 등과 신미적인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생태적인 조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인과의 궁합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툴리파나 상사화 금강화 등과 같은 일정한 생육기에 휴면을 하는 식물들의 기능적 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식물을 혼합하고 혼성하는 것은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이고 정원의 주인과의 조합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컬러를 중시하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계절성이다. 때문에 일년생 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야생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원에 일년생 식재를 매우 금기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심어야 한다는 불편함과 매년 다시 심어야 한다는 비용에 대한 계산 때문인데, 정원은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데 어찌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잡초 정리가 귀찮다면, 잔디 깎는 즐거움이 고역이라면, 그리고 때때로 일년생 식물을 심고 교체하는 것의 비용이 아깝다면 지금 당장 정원을 내팽개쳐 칠 일이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돌아와도 좋을 것이다.

정원의 관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원은 가슴으로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정원에 들어가면 손이 가만있지를 못한다. 눈과 가슴은 아름다운 꽃들과 대화하고 손은 섬 없이 레이어처럼 잡초의 역센 줄기를 뽑아낸다. 이 얼마나 좋은 건강관리 법인가. 정원 관리 후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벗고 즐기는 샤워는 일반적인 운동이나 기타 노동후의 즐거움과는 다른 시원함이 있다. 희열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맞다. 



나비가 되고픈 꽃 가우라

가우라를 국내 시장에 첫 도입,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게 한 대표 주자가 바로 우리꽃이다. 가우라는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식물과 아관목(관목과 초본의 중간에 있는 식물)중의 20여종의 작은 속으로 북미의 습기가 있는 지역과 대초원에서 자란다. 이들의 잎은 호생하고 단순하며 창형에서 타원형 혹은 난형이며 깃털 모양이다.

꽃은 수명이 짧다. 약간의 음지나 흐린 날을 제외하면 맑은 날은 오전 중에 활짝 피고 오후에는 말라 버린다. 꽃은 불규칙한 별 모양의 4개 꽃잎으로 이루어진 흰색이나 분홍색, 빨강의 나비 모양을 한다. 가우라는 대체로 키가 큰데 최근에는 많은 기술을 적용해 키 작은 왜성종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키가 커져, 많은 곳에서 왜성종이 연구되고 있다.



특성 조사중인 박공영 박사



벨강가우라



가우라 분홍



우리꽃에서 개발되어 유럽과 미국에 수출될 무늬종

현재 우리꽃에서 개발한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는 왜성이면서 꽃이 아주 많은 볼 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5월 말부터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피어나고, 최근에는 잎에 무늬가 들어간 종류와 꽃색이 복색인 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류 대부분은 2년생을 가지고 개발되어 내한성이 약하다. 전주 이남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고급 종을 제외하면 종자가 떨어져 가을에 발아된다. 겨울을 나고 다음해 꽃이 만발해 다년생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어떤 화단에서도 잘 자라 우리꽃의 여러 품종들은 분화용으로 매우 유리하다.

토양은 비옥하고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밝은 태양 아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으나 가뭄과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자란다.

종자를 직파하거나 포트 육묘하여 증식하고 좋은 품종은 꺾꽂이를 통해 번식한다. 주로 봄에 증식하고 키가 큰 품종들은 1~2회 컷팅하여 키를 낮춘다. 가지를 많이 늘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특별한 병해충은 없지만 응애 피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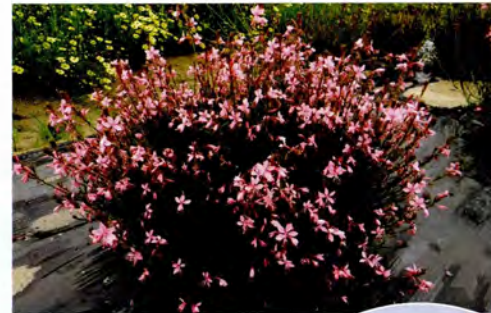


가우라 하양



베이비 핑크

우리가 만든꽃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



베이비 레드

'베이비' 가우라 왜성종의 유일한 이름



베이비 핑크



가우라 베이비 핑크와 레드는 선진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매우 안정된 특성의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가우라의 꽃대는 잎이 있는 줄기 부분에서 분지하여 외대로 꽃을 피운다. 간혹 꽃대에서 가지가 분화되는 품종도 있지만 키가 너무 큰 형태로 자라 쓰러지기 쉽고 그만큼 관상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가우라는 장기 개화 식물로 세계적인 품목이 되

었지만 도로가나 정원의 가장자리 등에 이용된다. 그러나 분화용으로는 좀 어려운데 너무 빠른 키의 자람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는 키가 일반종의 2분의 1 이하이다. 다 자랐을 때 60cm 이하가 된다. 물론 컷팅으로 초세를 관리하면 40~50cm로 가능하고 4치 포트에 생산하더라도 가지분화가 많은 상품이 생산 가능하다.

전체적인 초형은 마운드 형을 이룬다. 강건한 줄기와 많은 잎은 지속적인 아름다운 힘을 발휘한다. 약간의 음지에서도 좋은 생육을 보이지만 웃자랄 수 있다.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특히 지나친 건조보다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한다. 공중 습도가 있는 곳이라면 오후까지도 꽃의 형태가 유지된다. 초세가 좋고 가지가 많아 도로가의 경계용으로 좋다. [in](#)

연구중인 가우라





가든 플래너 박공영의 이달의 정원관리 식물의 가을 번식

가든 플래너 박공영은 야생화 육종, 생산 및 전문 우리꽃의 대표, 생태시스템공학과 박사 학위 소유자로 농림부로부터 신지식 농업인 장으로도 선정되었다.

가을이다. 가을은 많은 생명의 영위자들이 수확과 휴면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올해는 7월의 긴 장마와 8월의 무더위로 사람만큼이나 정원의 구성원들도 힘든 여름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낮의 햇빛은 따갑지만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산간에서는 추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밤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한 시기이다.

낮에 만들어진 많은 양분들은 밤의 시원한 기온으로 호흡량이 줄고 급속하게 양분을 축적하게 된다. 사실 정원의 일이 볼 다음으로 가장 바빠지는 시기가 가을이기도 하다. 올해의 수확은 곧 내년의 준비라고 하는 의미이다. 특히 내년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의 정식기이다.

정식하기에 좋은 품목들은 많다. 봄에 피는 대표적이 종류로 구근 식물이 있고, 꽃잔디, 금낭화, 매발톱, 할미꽃, 붓꽃 등등 기존의 영양체의 양분으로 봄꽃을 피워내는 식물들이 이 계절에 심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 된다.

또한 여름 장마와 고온으로 미루어 두었던 좋은 품종들의 삼목도 이 시기에 하면 좋다. 그래서 9월은 보는 아름다움보다 활동하는 즐거움에서 정원생활의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 채종

한국 야생화의 대부분은 종자로 번식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씨앗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있어 더욱 바쁜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부분의 식물에서 종자를 수확해야 한다. 야생화의 늦여름 채종 종자는 거의 휴면 없이 발아가 가능하다. 조건은 온도이다. 예를 들면 붓꽃이나 꽃창포 종류 등은 발아력이 완전하게 익은 것을 따는 것보다 누렇게 익어 가는 등숙기일 때 채종하는 것이 좋다. 딴 직후 바로 뿌리면 발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익히기 위해 너무 늦게 따거나 딴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 너무 말려도 발아세가 약해지게 된다. 발아가 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꽃씨의 종자는 꼬투리가 터지기 전 약간 푸른 상태에서 수확 직후 파종한다. 나머지는 말리지 말고 냉장보관하여 연중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에키네시아 같은 송이 형태의 식물은 장마철에 이미 송이 상태에서 발아가 진행되었거나 9월 이후에 다가오는 태풍 때 발아되기 쉽다. 따라서 꼬투리가 약간 검은 색으로 변하기 전 수확하여 곧바로 파종한다. 남은 종자는 잘 말려 냉장보관한다. 대부분의 종자가 너무 딱딱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조금 일찍 따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야생화는 수크령, 꽃창포, 붓꽃, 클레마티스, 붓들레야, 노루오줌, 원추리, 참나리, 주아, 부처꽃, 도라지, 꽃범의꼬리 등이 있다. 초여름에 피었던 세덤, 연속 개화를 하는 버베나, 풍접초, 황화코스모스, 코스모스, 봉선화 등의 일년초 식물도 그때그때 확보해 두어야 한다.

지금은 파종기, 파종해야 하는 식물도 있다.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걸쳐 파종하는 식물은 바로 양귀비, 보리 등의 2년생 식물들이다. 특히 이들은 발아 후 겨울에 물이 차게 되면 대부분 동사하게 되므로 배수로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조금씩 재배하는 경우에는 작은 하우스나 베란다 등지에서 겨울이나 이른 봄, 포트 등에 길러도 꽃을 볼 수 있다.

정원에 있어 9월은 장마와 고온에 망가진 정원의 죽은 식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뿌리는 대부분 살아 있다. 때문에 햇빛이 땅에까지 잘 스며드는 공간을 살려 안개초, 꽃양귀비, 수레국화, 꽃아마, 보리 등의 2년생 식물의 씨앗을 조금씩 뿌려 두면 금방 싹이 트고 생육이 좋아져 내년 봄 정원은 아름다운 수다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청계 광장을 수놓은 꽃양귀비. 2년생 식물은 햇빛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풍접초의 꼬투리. 너무 많이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꼬투리의 색이 바뀌기 시작하면 바로 수확한다.



- 1 꽃꽃류의 식물들은 너무 익히거나 말리게 되면 건실중자가 된다. 발아세가 나빠져 발아가 더디고 발아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사진과 같이 말려서는 안 된다.
- 2 에키네시아 종자, 늦여름 수확 종자는 무휴면 종자가 많아 습기와 온도는 치명적이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려 냉장 보관해야 한다. 사진과 같이 보관하게 되면 발아력을 쉽게 잃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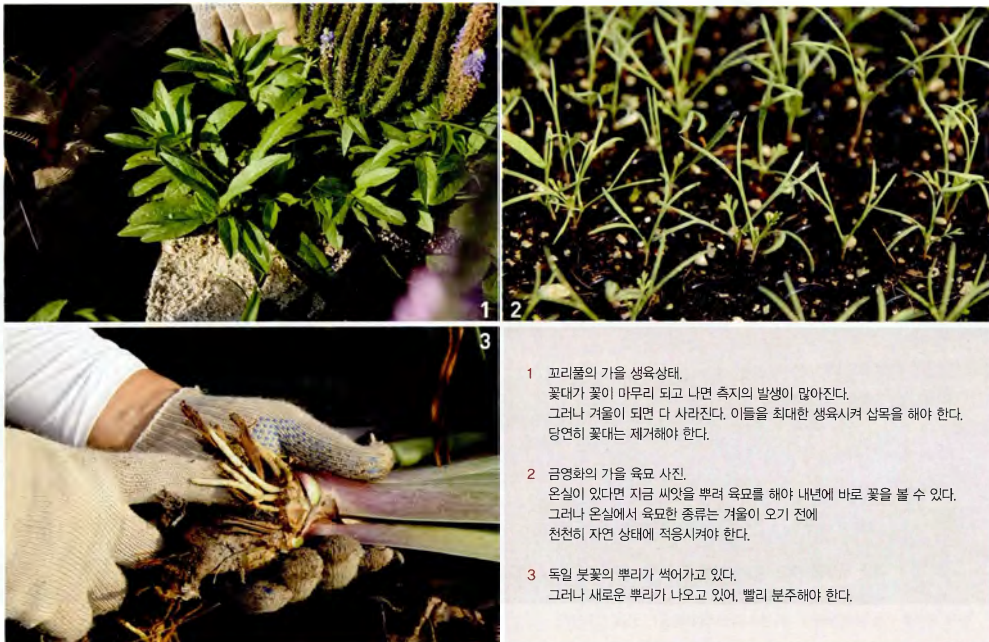
그러나 올봄에 이들이 피어난 자리라면 씨앗을 추가로 뿌리지 않고 정원 청소만 잘 해주어도 금세 발아된다. 올해 떨어졌던 씨앗들이 햇빛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많은 가드너들이 꽃양귀비의 꽃을 심은 첫해는 예쁘게 피었는데 반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아쉬워한다. 이들은 다른 식물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햇빛이라는 충분조건이 있어야 발아한다. 때문에 이듬해 봄, 꽃양귀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죽거나 마른 줄기와 잎을 정리하는 작업, 정원에서 땅을 흘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른 봄 개화하는 식물들의 영양 번식기

이 시기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인 영양체 번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주로 종자로 번식되지만 새롭고 좋은 품종들은 대부분 영양체로 번식한다. 영양체 번식은 겨울기간의 휴면기와 이른 봄 새순을 심목하는 방법과 함께 가을인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특히 삼목에 의한 번식은 지금이 최고 좋은 계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새롭고 좋은 삽수를 얻기 위해서는 식물들을 빠르게 영양생장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번식을 위한 영양체를 늘려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포기를 나누는 방법으로 번식하는 많은 식물 대부분은 휴면기 때가 적기이다. 그러나 이른 봄 개화하는 몇몇 종들은 휴면기에 번식하면 생육은 가능하겠지만 다음해 꽃을 보기 어렵거나 상태 불량일 수 있다.



- 1 꼬리풀의 가을 생육상태. 꽃대가 꽃이 마무리 되고 나면 측지의 발생이 많아진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진다. 이들을 최대한 생육시켜 삼목을 해야 한다. 당연히 꽃대는 제거해야 한다.
- 2 금영화의 가을 육묘 사진. 온실이 있다면 지금 씨앗을 뿌려 육묘를 해야 내년에 바로 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실에서 육묘한 종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천천히 자연 상태에 적응시켜야 한다.
- 3 독일 붓꽃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있어, 빨리 분주해야 한다.

특히 붓꽃 종류는 이른 봄에 식재하면 대부분 그해 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붓꽃류는 개화가 모두 끝나는 7월부터 9월까지가 포기나누기의 적기이다. 올해 중부지방은 잦은 강우로 꽃창포나 부채붓꽃 등은 포기가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물을 싫어하는 붓꽃 종류는 잎이 시들해지고 갈색으로 이미 말라버린 포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잎이 시들거나 말라버린 것들은 심종팔구 고자리파리 피해와 잠마기 배수 불량에 의한 뿌리썩음병 때문이다.

지금 붓꽃을 캐내어 3~5분열로 나누어 심으면 내년 봄에는 최소한 10~15개의 눈이 싹트고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잎의 일부를 잘라 수분 증발을 막아 주어 빠르게 새 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별브가 굵은 독일붓꽃이나 중국붓꽃 등은 구근모양의 굵은 덩이줄기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 등 껍질이 토양에 완전히 노출되게 해야 뿌리가 썩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할미꽃, 매발톱, 금낭화, 초롱꽃, 꽃잔디 등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심는 게 절이기도 하다.

텃밭, 김장 준비 지금이라도... 서둘러 모종 식재

텃밭의 가드너라면 김장배추를 모두 심었을까? 그러나 아직 심지 못했다면 서둘러 모종을 구입해 심어야 한다. 이때 수확이 조금 빠른 조생종 묘를 구입해야 한다. 물론 늦은 만큼 수량의 약 20%정도 더 계산하여 심어야 한다.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비료를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쪽파는 심을 때 파의 머리 줄기부분만 자르지 말고, 파 몸통 3분의 2만 남기고 잘라 심어야 더 많은 줄기를 얻을 수 있다. 쪽파는 한두 개가 굵은 것보다는 많은 줄기가 가지런하고 적당히 굵은 것이 좋다.

무는 직파를 하여 싹이 나면 분엽 2~3매가 되기 전에 하나만 남기고 모두 솎아 준다. 아직 생육 중에 있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등이 있다면 비료를 주고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나무에서 익히지 말고 바로 수확해 주어야만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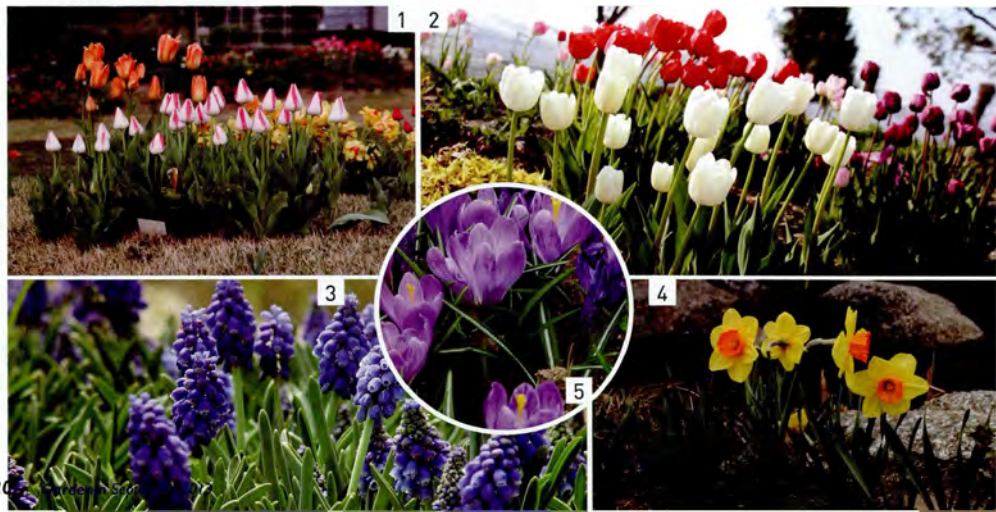


과실을 너무 익히지 말고 바로 수확해 주어야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A photograph of a garden featuring a large, gnarled tree in the center, surrounded by various flowering plants, including tulips in red, white, and yellow. A small stream or pond flows through the garden on the right side.

1. 틀림은 화색과 모양이 다양하여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 가능하다.
2. 구근을 심을 때는 전면적으로 심는 것이 화려하지만 비용과 정원의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따라서 구근은 많은 개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군데군데 심는 것이 중요하다.
3. 무스카리는 단독으로 식재해도 아름답지만 다른 식물과 섞어 심어도 좋다.
4. 수선화는 노랑과 하양이 대부분으로 매년 같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므로 적지 선정과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
5. 크로커스는 추식구근 중 가장 빨리 피는 종류로 봄을 일찍 피워낸다.



추식구근

추식구근은 다양한 품종이 한정된 수량이 수입되므로
미리 주문하는 것이 더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목	식재시기	화기(월)	화색	키(cm)	식재수/㎡	식재깊이(cm)	가격	가격	가격
							100구	50구	20구
튤립	9~11월	4~5월	다양함	30~50	30~50	10	7만원	5만원	3만원
수선	9~11월	4~5월	흰,노랑	20~40	25~50	10	12만원	7만원	3만원
무스카리	9~11월	4~5월	보라	15	100	5	4만원	3만5천원	2만원



구입 문의 **가든조아** 031.634.7990 www.gardenjoa.com

현장에서 들려주는 번식이야기

독일붓꽃의 포기나누기

독일 붓꽃은 구근이 매우 굵은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장마와 장마후의 고온 다습에는 매우 약한 식물이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우선 물 빠짐이 좋은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꽃이 지고난 후 여름이 되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포기나누기를 해주면 매년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물론 구근의 살균, 살충에는 공을 들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토종의 붓꽃 종류도 이른 봄이 아닌 가을에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이 다음해 꽃을 보는 것은 물론 생육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 **in**



1. 장마를 견디고 난 이후의 독일 붓꽃. 잎 끝이 마르고 있다.
2. 구근상태가 많이 썩었고 특히 전년도 뿌리는 이미 썩어 곰팡이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3. 구근의 썩은 뿌리와 상한 곳은 도려내고 막 자라기 시작한 새 뿌리는 남긴다.
4. 앞은 가운데 잎이 노출된 부위를 기점으로 사자 형으로 질라 잎에 의한 과도한 증발도 억제하고 새로 나올 잎을 보호 가능하도록 한다.
5. 독일 붓꽃의 줄기 정리 상태. 현재 부패가 진행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심었던 주변의 토양은 소독하고, 뿌리 줄기를 종합살균제 및 살충제로 처리 후 약 1~2일 정도 말린다.
7. 독일 붓꽃은 사진과 같이 구근이 땅속에 묻히면 안 된다. 구근이 썩게 되어 죽을 염려가 커진다.
8. 독일 붓꽃은 사진과 같이 구근의 등 껍질이 토양 밖으로 완전 노출되도록 식재한다. 뿌리와 새순의 성장은 잎이 붙은 방향으로 자란다.
9. 가지런하게 심겨진 독일 붓꽃 증식포. 정원에 직접 심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심는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반드시 구근의 등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부채붓꽃의 포기나누기

부채붓꽃은 우리의 일반 붓꽃에 비해 물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다. 붓꽃 종류 중 이른 봄에 피어난다. 특히 보랏빛 화색이 꽃이 필 때면 큰 무리 혹은 포기들 형성해 존재감이 부각된다. 따라서 군식과 단일 식재 모두 효과적이다.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 파종에 의한 대량 생산이 유리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가꿀 경우는 포기나누기로도 많은 식물체를 얻을 수 있고 주변과 나눌 수도 있다. 독일 붓꽃과 다르게 덩이 줄기부분이 땅에 묻혀도 잘 생육한다. **in**

1. 3~4년 묵은 붓꽃이 잎이 처져 있다. 건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삽을 이용해 뿌리를 잘라 굴취한다.
3. 굴취 된 붓꽃. 매우 많은 촉을 보유하고 있다.
4. 포기를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하면 뿌리와 잎이 잘릴 수 있으므로 줄기를 결대로 천천히 타래를 풀 듯 나눈다.
5. 줄기가 2~3분열로 나누어진 상태. 잎을 약 20cm 전후를 남기고 잘라낸다.
6. 정원에 볼 형의 품을 갖는 모습을 상상하며 적당한 자리를 물색 땅을 준비한다.
7. 붓꽃류는 왕성한 성장으로 잔디밭의 잔디 엷지 등을 처리하지 않아도 잘 생육한다. 잘 썩은 퇴비를 한 삼 정도 미리 토양과 혼합하여 심는다.
8. 심을 때는 2~3분열로 나누어진 상태를 한 포기로 하여 식재한다.
9.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붓꽃류는 상대적으로 구근이 작게 형성되는 반면 수염뿌리가 왕성하므로 심겨졌던 만큼 심는 것이 좋다.



펜스테몬

줄기를 가지고 꽃이 피는 식물들의 가을 삽목 번식



매년 추석이 오기 전 약 한 달 전 후손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중요한 행사를 진행한다. 바로 벌초를 한다. 가을이 되고 추석 성묘에 나서면 잔디는 파랗게 자랐고 기타 잎이 넓은 식물들은 새로운 잎을 가지고 잘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8월에 닦치고(?) 자른 식물들이 9월이 되면 새롭게 잎을 피우고 성장한다. 이는 가을은 연중 가장 식물들이 성장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물들의 특징을 이용해 줄기에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꺾꽂이순 확보에 유리한 방법이 있다. 후룩스, 미국쑥부쟁이, 꼬리풀, 숙근사루비아, 코레우리, 가우라 등 많은 식물들, 다시 말하면 줄기에 잎이 붙어 생장하는 식물들은 꽃대 바로 아래를 잘라주게 되면 꽃대가 새롭게 자라나와 꽃을 피는데 그 커팅하는 자리를 더 낮추게 되면 줄기에서 영양생장을 위한 싹이 자라게 된다.

즉 많은 줄기 식물들은 꽃이 피고난 후 강하게 잘라 주면 처음에는 영양생장의 형태를 보인다. 튼튼한 줄기와 잎사귀를 가지고 간혹 뿌리까지 발생시키는 식물들이 많다. 이를 이용해 좀더 우량의 삽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커팅에 의한 번식방법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펜스테몬의 번식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꺾꽂이법은 다른 유사한 특성의 식물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펜스테몬은 종류가 매우 많고, 보통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In



1. 8월 정마 후 줄기를 약 3분의 1만 남기고 강하게 커팅한 줄기 마디마다 새로운 발아가 형성되었다.
2. 같은 방법으로 강커팅에 의한 서양미역취의 삽수를 획득한 사례
3. 일반적인 측지와는 다르게 한꺼번에 많은 잎과 튼튼한 줄기, 그리고 약간의 뿌리까지도 발생되어 있다.
4. 전지가위를 이용해 마디마다 형성된 예비 포기를 잘라낸다.
5. 하나의 줄기에서 최대한 우량의 포기 삽수.
6. 하나의 포트에 심는다. 이때 무성한 잎은 3분의 1만 남기고 잘라낸다.
7. 포트에 심겨진 상태, 매우 효과적인 포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8. 물을 주고 손으로 만져 다시 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9. 빠른 활착과 뿌리 발생을 위해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덮어 약 7일간 처리한다. 공중 습도를 높이고 증발을 막아 주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면 모든 뿌리를 내린다.



식물을 살리기 위한 관수

물주기 타이밍을 잡아라

관수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보다 언제이다. 식물들이 시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수구멍이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거나 과도한 뿌리생장에 의해 침수될 수가 있다.

덥고 건조한 날이 '물주기' 최적

더운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관수한다. 가을과 겨울에는 관수를 최소화하되, 혼합배지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면서 물주는 시기를 판단한다. 날씨를 참고하도록 한다. 춥고 습기 많은 날씨보다, 덥고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 관수해준다.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해서 토양이 항상 충분히 젖은 것은 아니다. 젖어있고 습하면 침수될 우려가 있다. 표면으로 부터 적어도 2.5cm 정도까지 말라있다면 관수해준다.

안정된 물주기 위한다면 '점적관수' 고려

화분을 충분히 적셔서 배지가 포화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게 된다. 화분의 표면에만 약간 실포해주면, 뿌리들이 표면에만 머물고 깊이 자라지 못한다.

점적 시스템은 측정된 비율만큼 수분을 공급해준다. 단일 화분용 또는 수도꼭지나 빗물통에 관이 연결되어 여러 화분에 연결하도록 세트로 구입할 수가 있다. 물을 느리고 안정되게 공급할 경우 배지에 의해 원활한 흡수가 이루어지고, 잔여 수분이 배수되지 않아 낭비가 없다. 점적 관수 시스템은 대부분의 원예용품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쉽게 조립이 가능하다. 또 관수시기와 양을 조절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한다. 점적 관수의 단점은 관수 설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과, 화분을 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친환경 가든

환경 친화적인 뒤돌을 갖추기 위해 물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가 있다. 오래된 세면대, 물탱크, 양동이 통 등과 같이 물을 담을 수 있고 화학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사용 가능하다. 테라코타 컨테이너들은 내부의 깔판을 요트용 유약으로 여러 번 칠하고, 목재통은 유약에 완전히 적시고 배수 구멍들은 코르크나 밀폐제로 막아준다.

우선 가까운 연못의 미생물들과 양분이 있는 진흙을 넣어주도록 한다. 수중이끼나 수중벌레 같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수중식물들도 필요하다. In

자료: 화분 안에 담긴 정원(도서출판J&P)



Tip

관수할 때 주의점

- 수돗물을 아끼는 것보다 빗물을 모으는 것이 환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낙수홍통이나 세로홍통으로부터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통을 장만한다.
- 석회질을 싫어하는 난이나 아질레아와 같은 식물들이 빗물을 좋아하는데, 경수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수돗물의 염소가 걱정된다면, 양지 바른 곳에 며칠 동안 두었다 이용한다.

새로운 시작 9월

흙꽃이로 새 모종 만들기

글·사진 오하나(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퀘럼페 화단 <http://blog.naver.com/el512>)

덥디 더운 8월이 가고 9월이 왔다. 8월이 무엇을 시도하기 두려운 시기라면 9월은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좋은 시기. 씨앗을 심든, 분갈이를 하든, 꺾꽂이를 하든 다 좋은 시기이다. 올 가을에는 새로 구입한 모종 혹은 기존의 모종에서 줄기를 잘라 꺾꽂이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8월은 참 고된 시기였다. 무더운 베란다의 식물들이 지쳐서 늘어지고, 사람도 늘어질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순식간에 흙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데 베란다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괴롭던지...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참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을을 참 많이 기다렸다. '가을이 되면 씨앗을 심어야지. 그동안 미뤄오던 분갈이도 해야지. 그리고 꺾꽂이도 해야지' 하고 말이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은 '꺾꽂이' 타이밍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꺾꽂이를 별로 시도하지 않았다. 허브를 키우기 시작한 초기에는 줄기를 꽂으면 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여 많이 시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수많은 허브들을 키우게 된 후로는 번식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또 채소, 화초, 관엽식물의 영역까지 넓보게 되었으니 기존의 식물을 번식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식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자꾸만 꺾꽂이를 하고 싶어져서 장마철 내내 꺾꽂이를 시도했다. 여름엔 보통 날씨가 더워서 꺾꽂이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데 장마철에는 흐리고 습하기 때문에 꺾꽂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한여름인 8월부터는 꺾꽂이를 시도할 수 없었다. 베란다에 들어가지만 하면 더운 열기가 확 느껴지는데, 베란다에서 살고 있는 허브들은 얼마나 힘들까.

꺾꽂이를 할 줄기도 뿌리가 나 있지 않은 줄기이기때 더욱 쉽게 더위에 축 늘어지고 만다. 실제로 시댁 화단에 심어두었던 '초코 민트'의 줄기를 잘라, 물이 든 테이크 아웃컵에 꽂아주었다. 나를 선선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실내 선반에 놓았지만 이틀 만에 윗쪽 잎이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 더욱 9월이 기다려질 수밖에. 가을이 되어 날씨가 선선해지면 꺾꽂이를 실패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흙의 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흙꽃이' 가 유리

꺾꽂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줄기를 물에 담가 놓는 '물꽃이'를 많이 한다.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물에 달을 부근의 아래 잎을 정리하여 물에 넣어주면 되니, 흙을 준비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다. 하지만 나는 흙에 줄기를 꽂아서 꺾꽂이를 많이 하는 편이다. 물에 꺾꽂이를 하면 수분 공급이 유리하기 때문에 뿌리가 금방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간혹 줄기가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고, 흙에 옮겨 심은 후의 후유증으로 줄기가 시들어 버리기 쉽다. 그러나 흙에 꺾꽂이를 하면 처음부터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잘 잡는 듯하다.

흙에 꺾꽂이를 하는 '흙꽃이'에도 단점은 있다. 물에 꺾꽂이를 하는 것보다 수분 보충이 덜하기 때문에 가끔 수분 부족으로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잎이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경우 잎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고 투명 비닐을 씌워 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수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꺾꽂이를 할 줄기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너무 오래된 줄기는 생장이 둔화되어 좋지 않고 너무 어린 줄기도 좋지 않다. 그 중간 정도의 웃자람 없이 튼튼한 줄기를 사용한다면 더욱 높은 꺾꽂이 성공확률을 보여줄 것이다.

다양한 식물들이 꺾꽂이로 많이 번식되고 있다. 관엽식물, 화초, 나무, 허브 등. 그 중에서도 허브는 민트, 바질, 로즈마리, 스테비아 등 손쉽게 꺾꽂이로 번식시킬 수 있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꺾꽂이를 즐기기에 좋은 식물이다. 올 가을은 꺾꽂이를 하여 더욱 새로운 모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정남향 집, 가을이 되니 식물에게 더 유리

작년까지는 정남향 집에서 살다가 올해부터 동남향 집에서 살게 되니 동남향 베란다의 장단점이 확 느껴졌다. 우선 여름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정남향 집과 달리 동남향 집은 여름에도 햇빛이 12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 햇볕양은 정남향보다 좋은 편이다.

작년 정남향 창가에서 대부분의 허브들이 햇빛 부족으로 심하게 웃자랐던 것을 생각하면 여름의 동남향 베란다는 그런 점에서 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햇빛이 너무 뜨거워 더위에 약한 식물들이 자칫 늘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분갈이나 꺾꽂이도 한여름에는 되도록 피할 것. 대신 가을이 되면 정남향은 햇빛이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남향 햇빛이 식물에게 유리해진다. **in**

꺾꽂이한 피나타 라벤더

피나타 라벤더는 다른 라벤더보다 꺾꽂이 성공률이 높다. 블로그 이웃에게서 나눔을 받은 피나타 라벤더 모종이 더위를 먹은 것인지 자꾸만 잎이 시들해졌다. 서둘러 여러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를 했다. 다행히 며칠 만에 뿌리를 내렸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테이크아웃 컵의 종이 홀더를 빼니 뿌리가 잘 내린 것이 눈에 띈다.



Step By Step 재활용품을 이용한 로즈마리 번식



1 튼튼한 줄기를 5~10cm 정도 잘라 준비한다. 여기에서는 로즈마리 줄기를 준비했다.



2 줄기 아래 부분의 잎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준다. 잎이 많으면 수분이 손실되기 쉬워지고, 흠에 꽃을 때 잎이 흠에 닿을 수 있다.



3 물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에 준비한 줄기를 담근다. 흠을 준비하는 동안 물을 빨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4 요플레 용기의 바닥에 물구멍을 뚫어준다. 요플레 용기 대신 테이크아웃 컵이나 모종용 포트를 이용해도 좋다.



5 요플레 용기에 흠을 담아 준다. 흠은 물 빠짐이 좋고 영양분이 많지 않은 깨끗한 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흠에 줄기를 꽂은 후, 물을 충분히 넣어 준다. 흠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데 새잎이 돋아나오면 성공이다. 수분 보충이 걱정이 되면 투명 비닐을 씌워주도록 하자.

다육계 美의 여왕 아가보이데스

글·사진 정승환 기자 / 도움말 초의농원 조관준 대표

왁스를 바른 듯 윤기가 나고 잎을 따라가면 끝이 뾰족하다. 뾰뾰하고 뾰뾰한 잎 모양새가 '아가베' 종류와 비슷한데서 유래된 '아가보이데스'. 유통 업체는 상인들에 의해 매혹의 창, '매창' 그냥 '창'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5년을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키워 온 조관준 대표는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를 가장 예쁜 다육 식물로 꼽는다. 그는 다른 다육에 비해 아가보이데스는 연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연꽃처럼 잎이 안으로 굽으면서 펼친 모양이 가장 멋지고, 계절별로 색깔이 바뀌는게 특징이다. 장마와 고온의 계절이 끝나면 색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11월에 가장 예쁜 색깔을 띠게 된다." 1990년대 다육시장에서 에케베리아 중 아가보이데스가 가장 먼저 유통이 활발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빠른 다육 유행과 실생번식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니 가격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마니아층의 증가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대의 아가보이데스도 있지만 백만원대를 호가하는 비싼 아가보이데스도 있다.

로제트형의 잎을 갖고 있는 아가보이데스는 녹색의 잎이 삼각형 모양으로, 다른 에케베리아 속보다 잎 두께가 6mm 더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몇몇 밝은 빛을 가진 일부 변이종들은 잎 끝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보통 여름에는 50cm 정도 되는 긴 꽃대를 뻗어내며 붉은색의 꽃을 피어낸다. 때론 꽃은 핑크, 오렌지, 적색이고, 꽃잎은 어두운 노란색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색깔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많이 반영되어 붉은색이 많다. 또 생육속도도 붉은색이 분홍색보다 빠르다고 한다.

에케베리아 중, 삼목 쉬워 번식률이 높은 품종



물게인

가을, 물들이는 색깔이 가장 예쁜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속은 가정에서 한 개 정도는 키울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그 중에서도 뾰뾰한 잎끝과 잎주변을 붉은 라인으로 두르는 아가보이데스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두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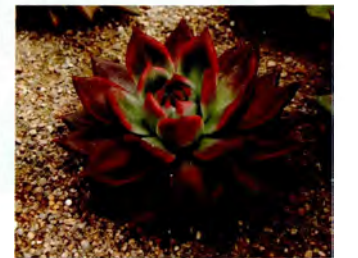
아가보이데스×라우이철화

아가보이데스는 엽상(잎꽃이), 삼목, 실생 등을 통해 쉽게 번식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른 다육에 비해 한 식물에서 다양한 품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구번식이나 잎꽂이를 통한 번식보다 실생번식이 시간이 많이 걸려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고 한다. 식물을 번식하면서 모양이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을 선별해 육종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분갈이는 에케베리아의 특성을 그대로 따른다. 보통 연 1회 봄과 가을에 시도하는 것이



조관준 대표는 "아가보이데스 삼목이 쉽고 다양한 품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좋다. 대표의 분갈이 할 때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흠을 털어내고 뿌리를 절반 정도 자른 후 2~3일 정도 말려 흠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심은 화분은 밝은 그늘에 두고 4~5일 후에 물을 조금 주는 것이 뿌리 생육에 좋다. 분갈이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나면 1~2주 지난 후 표층에서 1/3 정도 흠이 젖을 양만 물을 주면 된다. 이와 같이 2~3년 관주를 하면 뿌리가 아래로 뻗기 시작한다. 이때 바깥 마르게 놔두면 새로운 토양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프랭크

지피식물 종자와 묘종의 모든 것 땅끝야생화

저렴한 가격으로 억새, 갈대, 꽃창포, 벌개미취 등 약 300여종의 양질의 묘종을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61-535-0045

010-4284-2655

Fax. 061-535-0048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한국시장에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적색 계통이 많아...”

꽃을 보고 싶다면 겨울 휴면기 필요

평소의 관수는 일반적인 다육식물 물주기와 비슷하다. 특히 더운 시기에 물로 인해 잎이 녹을 수 있으므로 물을 식물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화분 옆으로 주는 것이 좋다. 물방울이 잎에 남아 있으면 렌즈 역할을 해 잎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봄과 여름에는 다소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만 겨울에는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다른 대부분의 에케베리아 속처럼 아가보이데스도 수분에 민감하고, 미네랄 토양과 빛을 좋아한다. 특히 봄 가을에 성장하는데, 개화를 위해 추운 겨울에는 휴면이 필요한 하형(여름)다육식물이다. 즉 생육상태를 좋게 하려면 추운 곳에서 겨울 휴면기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에케베리아 속보다 아가보이데스는 추위와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것도 장점이다.

9월부터 붉은 색깔로 물들기 시작하는 아가보이데스를 내 정원에 하나쯤 들여놓아 보는 것이 어떨까? [▶](#)

How to

개체수 늘리기 아가보이데스의 번식



1

홍상생술. 번식이 잘되는 품종이다.
자루 하나를 골라 칼로 자른다.



2

자른 잎은 반그늘에 보관하면 20~30일 후
에 자른 단면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3

잎과 잘린 자루에서 각각 뿌리가 나오고 1
개월이 지나면 신초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Echeveria agavoides)



● **동운**
Echeveria agavoides 'Cordeyori'
윤기가 나는 잎과 잎 끝의 뾰족한 부위가
빨간색으로 물든다.



● **론에반스**
에케베리아 아모에나(amoenae)와
세토사(setosa)의 교배종.



● **마리아**
Echeveria agavoides 'Maria'
아가보이데스 립스틱보다 잎이 더 크고,
잎 가장자리의 붉은색이 좀 더 옅은 것이
특징이다.



● **먼디**
'먼디'라는 농장주 이름을 따서
유통된 다육.



● **멜즈 하이브리드**
Echeveria agavoides 'Mel' s hybride
밝은 옥색빛을 띤다.
입장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 **몰게인 (철화)**
Echeveria agavoides 'Morgain'
잎이 통통하고, 잎의 뒷면만
붉게 물드는 것이 특징이다.



● **비스트자이언트**
Echeveria agavoides 'Beast Giant'
이름처럼 큰 것이 매력이다.
홍상 등과 비슷하고, 관리 능력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다.



● **빅터레이터**
Echeveria agavoides 'Victor Reiter'
프로리페라와 쿠스피다타의
교배종으로 납작한 잎이 특징이다.
진하게 물드는 것이 특징이다.



● **엘크혼**
마리아와 유사하고 잎이
물들 때는 얼룩처럼 물 든다.



● **에보니**
Echeveria agavoides 'Ebony'
원종 에보니로 유통되지만 교배종이다.
다양한 종류의 에보니 들이 있다.



● **탐먼디**
입장이 긴편이며 붉은 라인을 그리며,
잎의 안쪽부터 짙고 도통하게
물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 **폴라스카이**
입장이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임장결과 끝이 안으로 말리는
모습이 연꽃과 같다.



● **프랭크**
Echeveria agavoides 'Frank Reinelt'
아가보이데스 프로리페라와
콜로라타의 교배종이다.



● **피가르**
바디색이 옥색빛에 노랗게
물드는 것이 특징이다.



● **한스 에보니**
Echeveria agavoides 'Han' s ebony
네덜란드 '한스'라는 농장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라인이 검붉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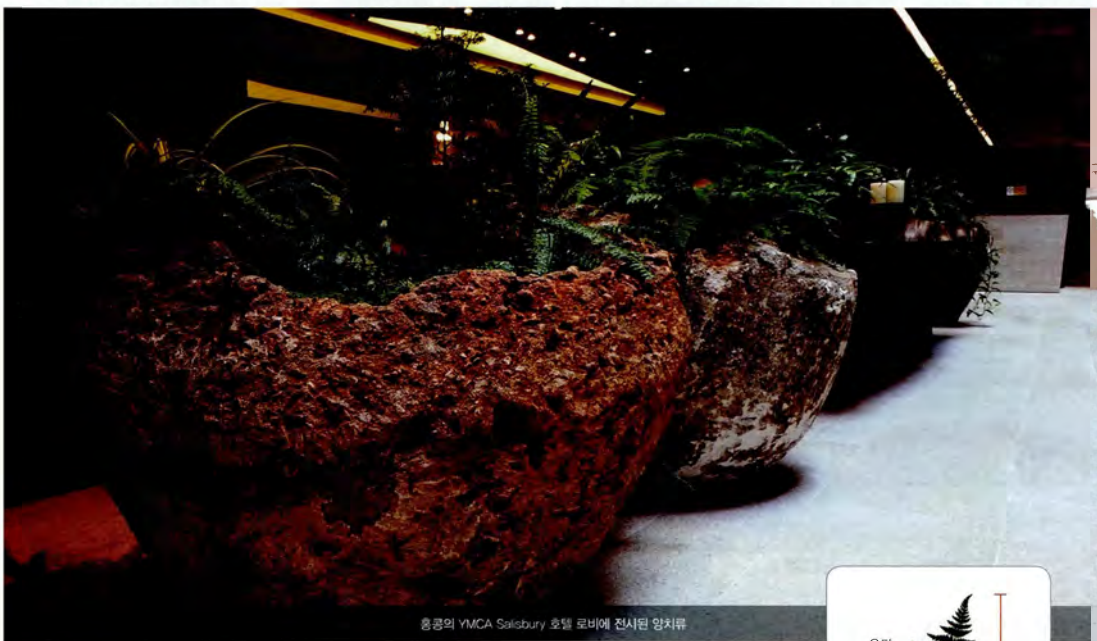
● **홍상생산**
Echeveria agavoides 'Aioigasa'
'홍상생술'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홍상생산으로 불리운다.

햇빛이 적은 베란다 아이템

양치식물 '고사리'

글 정승환 / 사진 권지은(http://kija76.blog.me)

아파트 베란다 위치가 동향인 블로거 권지은(37)씨는 일반적인 야생화나 초화류, 꽃을 보는 식물들에게 있어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조건에 맞는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양치식물인 고사리이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 공기(통풍), 흙은 조절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파트 위치가 동향이라면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득고 습도 높은 동향의 베란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추천하는 식물은 양치식물이다.



홍콩의 VMCA Salisbury 호텔 로비에 전시된 양치류

양치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군이다. 약 4억 년 전에 나타난 고사리는 세계적으로 1만 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 75%가 열대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350여종 정도가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통 양치식물은 솔잎란류, 석송류, 속새류, 양치류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양치식물은 종자로 번식하는 겉씨·속씨식물과 달리 씨가 없이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다. 또 몸체에서 수분 양분을 흡수하는 가장 하등한 이끼보다 진화된 식물군으로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과 양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문조직인 '관다발'을 갖고 있다.



〈양치식물의 분류〉

이끼와 종자식물의 중간...양치식물

고사리 잎은 잎자루(엽병)와 잎몸(엽신)으로 이뤄져 있다. 보통 잎자루 길이는 1m 내외이고, 잎몸은 50cm 내외로 자란다. 고사리 잎중 가장 큰 단위순서로 우편, 소우편, 열편으로 나열할 수 있다. 고사리 번식이 시작되면 유성생식을 하는 배우자세대와 무성생식인 포자낭에서 포자를 방출해 배우체를 형성하는 것이 반복된다.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꽃이 피는 식물과 이끼의 중간인 셈이다. 이 배우체는 발달해 정세포와 난세포를 형성해 수정으로 '접합자'를 형성. 이것은 성숙한 포자체로 자란다. 보통 식용으로 사용되는 어린 고사리가 접합자에서 발아한 포자체이다. 식용으로 먹는 고사리는 잔고사리와 고사리속에 속해 다른 고사리와 구분해 충충고사리, 참고사리로 부른다. 고사리는 제주도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약 200여종이 있어 한국의 고사리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숲속의 바그들인 바위 등에 많이 분포하지만 종류에 따라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나 습지, 물속에서 잠겨 자라는 등 다양한 생육습성을 지니고 있다. 식용시에는 땅에서 솟아 돌출게 말고 있을 때 채취해서 먹어야 연하고 맛있다. 시기를 놓치고 잎이 퍼진 상태로 채취하면 줄기가 단단해 먹기 힘들다.

고사리, 집에서 키워보자

● **물** 건조에 약한 고사리는 공중습도가 높은 반그늘의 환경을 좋아한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건조, 대기가 건조하면 잎이 금세 시들어버리므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분무한다. 관수 시기는 배양토의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물을 흠뻑 준다. 여름은 하루에 한번, 겨울은 3~4일에 한번 준다. 좋은 생육을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2개월에 한번은 액비를 준다.

● **토양**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 가장 좋다. 보통 모래질과 부엽토가 많이 섞이면 배수력이 좋아진다. 보통 화원에서는 질석 : 피트모스 : 펄라이트 비율이 3 : 5 : 2이다. 고사리는 강한 비료에 약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고체비료라면 흙에 올려놓고 물을 주면서 조금씩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빛** 관엽류와 마찬가지로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옅은 햇빛이 적당하다. 아무리 햇빛이 없는 베란다라도 지나치게 어두우면 잎이 쓰러져 버린다. 공기순환이 원활하고 시원하면서도 습한 장소라면 최적이다. 양치식물도 햇빛을 봐야 광합성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병충해** 깎지벌레, 응애류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병해로는 잎에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은 과습으로 인한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으니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게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넓게 잘라주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 **번식** 포자를 통해 번식하는 양치식물은 노지에서 포자 번식은 쉽지 않다. 포자로 키우고 싶다면 잎 뒷면에 포자를 채취해 발아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포자보다는 미숙한 포자로 선별하고, 보수력이 좋은 피트모스를 배양토로 사용한다. 심고 나서 충분히 물을 준 후 90%이상 공중습도 유지를 위해 비닐을 덮고, 차광을 한다. 포자로 번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문재배농가에서는 땅속 줄기를 잘라 번식을 이어간다. 땅속줄기로 번식을 하려면 고사리 뿌리의 경우 눈이 있다. 눈을 중심으로 양쪽 5~15cm 절단해 소독한 후 화분에 정식하면 된다. 보통 3월 중순에 심으면 7월에 순이 올라오고 뿌리가 급격히 퍼진다. **in**

Tip

고사리재배, 이것만 주의!

한 화분에 오래 키우면 화분흙의 무기염류가 축적되어 잎들이 모두 말라죽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 1~2년에 한번 정도는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새임을 다시 받기 위해 온전한 새알줄기를 모두 잘라내면 새싹이 더디 나오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블로거 권지은씨의 베란다는 동향이다. 그래서 빛의 영향이 적은 양치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다양한 고사리로 내 집 정원 색깔은 'Green'

○ 관중고사리(*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는 산지의 나무그늘에서 무리지어 잘 자라는 관중고사리는 뿌리줄기가 지름 8~10mm의 굵은 덩어리 모양이다. 산림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밝은 초록색을 띠는 잎은 여러 번 갈라져 깃털처럼 생겼다. 수많은 둥근 포자낭군이 잎 아래쪽의 잎맥을 따라 붙어 있으며 포막이 포자낭군을 덮어 보호하고 있다. 국내 양치식물 중 가장 많은 종으로 이루어진 관중 속에는 약 23종이 자라고 있다. 이중 관중(*D. crassirhizoma*)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데 여러 개체들이 원을 이루며 자라 소철처럼 보인다. 뿌리 줄기는 지름 8~10mm의 굵은 덩어리 모양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가 25cm 정도이고 잎이 돌려난다. 잎자루는 길이가 10~25cm이고 잎몸보다 훨씬 짧으며 비늘조각이 백백이 있다.



○ 넉줄고사리(*Davallia mariesii* T. Moore ex Baker)는 뿌리 모양이 넉줄(성황당 넉줄)을 닮은 것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뿌리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고양이 털 속에 드러난 발톱과 유사하다고 해서 유통명으로 '고양이발톱'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서늘한 바위절벽이나 큰 고목나무에 자생한다. 대다수 넉줄고사리 식물은 상록이지만 건기나 추운지방에서는 겨울에 휴면하는 낙엽성인 것도 있다. 보통 바위면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식물로 취급한다. 특별한 비료를 줄 필요는 없다. 성장기 동안 통풍이 잘되게 다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번식은 포기나누기로 한다. 근경이 공중에 길게 뻗는 종은 근경이 적당한 곳에서 수태를 감아 발근을 시키는 취목 형식으로 번식시킨다.



○ 네프롤레피스(*Nephrolepis exaltata*)는 담배연기를 없애준다고 해서 인기 있는 고사리이다. 네프롤레피스 중 *N. exaltata* cv. *Bostoniensis*는 양재동에서 많이 파는 보스톤 고사리(Boston fern)이다. 이 식물은 양치식물이지만 빛을 좋아해 밝은 음지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또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해 잎에 분무기로 자주 뿌려주면 좋다. 특히 겨울에 차가운 기온에도 생육이 약하지 않아 5~8℃가 월동하기 좋다. 부식질이 많은 토양이 좋고, 비료를 줄 때는 질소성분이 많은 것이 좋지만 과하면 식물자체가 연약해 질 수 있다. 잎 가장자리를 따라 하얀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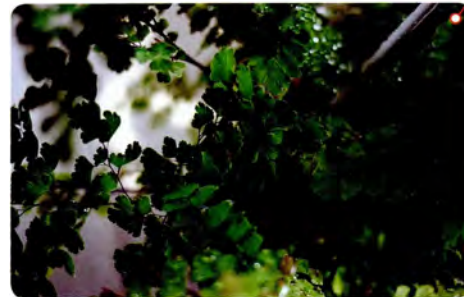


○ 더비(*Nephrolepis cordifolia*)는 해안 근처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양치식물로 줄고사리라고도 부른다. 건조한 조건에서 강해 겨울철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충분히 자란다. 뿌리는 갈색의 철사모양으로 구형의 손톱크기만한 덩어리가 들어있다. 흙은 부엽토와 모래가 적당히 섞인 것이 배수가 잘된다. 항상 수분과 산소가 필요한 식물로 생장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게 매일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수분이 부족하면 잎끝이 말리고 상하게 되어 회복시키기 힘들다. 생육하기 적절한 온도는 16~25℃이지만 공기 온도가 21℃ 이상이라면 매일 분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온에 강하므로 쉽게 겨울을 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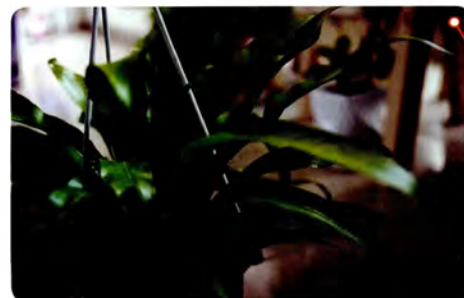


어느 곳에 두어도 시선 끄는 멋진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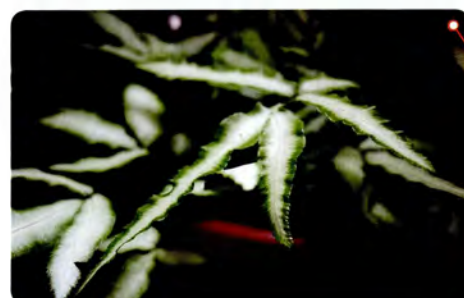
○ 실버레이디(*Blechnum gibbum* 'Silver Lady')는 새끼아재비과 *Blechnum*속의 고사리류 식물로 소형 나무고사리이다. 집에서 키우면 열대지방의 정취가 묻어나는 느낌이 드는 식물이다. 특히 골게 뻗는 뿌리 줄기 위에 잎이 돌려나며 뿌리덮개가 나와 밑동을 감싼다. 실버레이디는 일년 내내 따뜻하게 관리해야 하고 추워지면 잎을 검게 물들이기 때문에 키우는 데 조금은 까다로운 식물이다.



○ 아디안텀 라디안텀(*Adiantum raddianum*)도 반그늘에 키우기 좋은 양치식물이다. 아디안텀은 80종 내외가 열대지방에 분포하지만 한국에 섬공작고사리, 봉작고사리, 암공작고사리 등이 자란다. 특히 아디안텀속은 가장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다. 잎의 생김새가 꿩발 비슷한 삼각형으로 잎자루는 흑갈색의 광택이 난다. 빛에 꽤 민감한 아디안텀은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잎이 뜨는 것처럼 색깔이 하얘지고, 너무 어두우면 웃자라거나 새순이 따라오지 못해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드러운 봄 햇빛에 내놓아도 잎이 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화분의 겉흙이 마르는 대로 바로 물을 주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것이 좋지만 물기가 차면 뿌리가 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중 습도가 많이 요구되는 아디안텀은 특정 환경에서 엽면스프레이를 해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여름 고온에 약한 경향이 있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혹서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선선한 화분을 옮기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킨다. 아디안텀은 환기가 잘되고 선선한 온도에서 새잎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최저 영상 10℃ 정도로 월동시킨다.



○ 파초일엽(*Asplenium nidus* cv.)은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상록다년생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에서 월동한다.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삼도에서만 자란다. 보통 돌에다 부착시키는 석부작으로 많이 활용한다. 고사리와는 달리 겨울철 잎이 살아있는 상록성이다. 잎은 덩어리처럼 생긴 뿌리줄기에 둥근 원을 그리며 무리져 나온다. 포자낭은 잎 뒷면의 2차맥을 따라 길게 만들고 포막도 긴 편이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위해선 마한가지로 항상 대기중에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또 고온이면서 다습한 반음지의 장소에 놓는 것이 좋다. 보통 생육온도는 20℃로 월동은 8~10℃가 적당하다. 번식은 분주나 포자 번식 둘다 가능하다.



○ 프테리스(*Pteris cretica*) 역시 고사리과로 '알록큰봉의꼬리'라고도 부른다. 잎 모양에 따라 학명이 조금씩 다르고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고사리류이니만큼 공중습도가 높은 것이 좋고, 직사광선을 많이 주면 좋지 않다. 다년생이라 약간의 간접광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스톤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고 공기정화능력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상사화 키우기

글 · 사진 류제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myunny3>)

상사화류(*Lycoris squamigera*)는 동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수선화과의 구근식물이다. 이미 지난호(8월호)에 다른 필자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것처럼 상사화는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름과 그에 얽힌 전설은 많이 알려졌지만, 상사화 자체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호에서 상사화 키우는 법을 집중 소개하고자 한다.

상사화류는 수많은 구근식물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꽃이 아름답고 귀한 가을에 피는 구근식물이다. 국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병충해도 없어, 정원에 한번 심어두면 관리하지 않아도 번식이 왕성하고 해마다 멋진 광경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원에 빼 놓을 수 없는 화초라 할 수 있겠다. 철화 수명도 길어 꺾어서 꽃병에 꽂아두어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분류 ▶ 잎이 나는 시기에 따라 춘계 또는 추계 출엽종

상사화는 잎이 나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봄에 잎이 나는 춘계출엽종과 가을부터 잎이 나는 추계출엽종으로, 관리법은 서로 약간 다르다. 춘계출엽종은 3~6월 3개월만 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식력이나 생장력이 추계출엽종보다 떨어지지만 추위에 강해 한국 전역의 정원에 심을 수 있다. 추계출엽종은 잎이 있는 기간이 9개월이나 되어 생장력이나 번식력은 좋지만 겨울에도 잎이 있다 보니 추위에 약해 중부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사화 축제(상사화 축제 때 피는 꽃은 사실 꽃무릇이다)로 유명한 절이 모두 남부지방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신 추계출엽종은 남부지방의 정원에 심으면 곧 군락을 형성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거주지에 맞는 상사화의 종류를 선택해 식재하는 것이 좋다.

종류 ▶ 한국 일본 등 다양한 품종 개량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상사화류는 상사화, 개상사화, 붉노랑상사화, 진노랑상사화, 제주상사화, 위

도상사화, 백양꽃, 꽃무릇이 있는데 꽃무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계출엽종이다. 일본에서는 상사화의 개량이 활발하여 매우 많은 원에 품종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구할 기회가 닿는다면 구매하기를 추천한다. 일본 품종 상사화들도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식재 ▶ 배수 좋고 비옥한 토양에 식재

상사화는 한국의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구근식물 중 하나로 적절한 곳에 심어지면 자연스레 번식을 하여 군락을 이루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배수가 아주 좋지 못한 곳에서는 상사화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므로 배수가 좋고 비옥한 곳을 골라 심는 것이 좋다. 상사화 구근은 다른 구근식물과 다르게 깊게 심지 않고 구근 윗 부분 1cm정도가 땅 위로 드러날 수 있게 얇게 심어야 한다.

구근을 너무 깊게 심으면 꽃이 잘 안 피고 작은 새끼구근만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사화의 구근은 옮겨심기에 아주 약해 적절한 때가 아닐 때 옮겨 심으면 1~3년간 꽃이 피지 않는 성질이 있다. 옮겨 심고 바로 꽃을 보고 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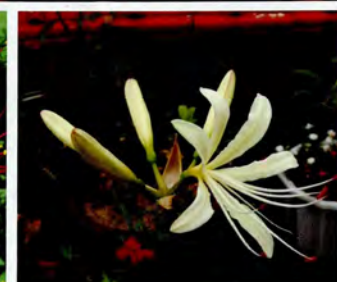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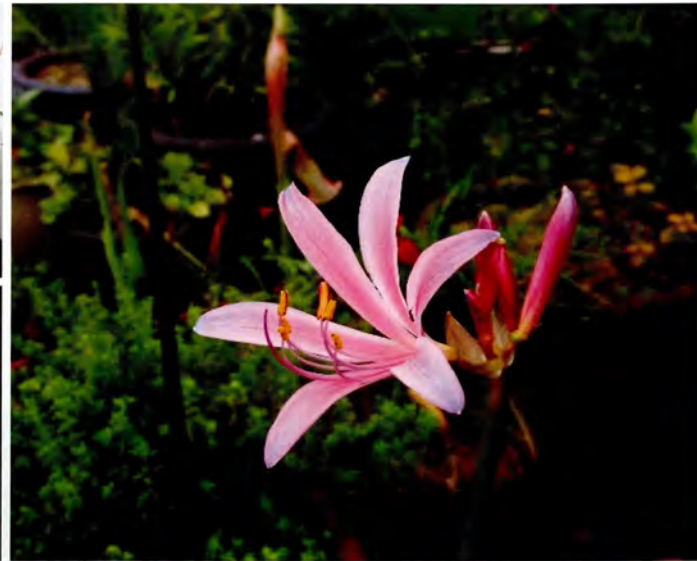
는 잎이 없는 여름 휴면기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잎이 모두 시들면 바로바로 옮겨 심는 것이 좋다.

상사화는 종류에 따라 봄이나 가을~봄에만 잎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엽수의 그늘에 심어 가꾸어도 괜찮다.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심거나 정원 안쪽 불특정한 곳에 조밀하게 모아 심어도 개화기 때 아름답다.

한 토지에 상사화만을 심을 경우 상사화가 잎이나 꽃이 있는 시기가 매우 짧다. 잎이 없을 때는 토지가 황량해 보이므로 다른 식물과 합식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화분 재배 ▶ 작은 화분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상사화가 한국의 기후에 잘 적응하지만 화분에서는 잘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아마도 상사화 구근보다 아주 약간 큰 화분에 심어 가꾸려 해서 그러라 생각된다. 상사화는 작은 화분에 한 개씩 심는 것보다 지름과 높이가 30cm는 넘는 화분에 몇 개씩 심어야 꽃도 잘 피고 개화기 때 더욱 멋지다. 필자도 높이와 지름이 40cm가 넘는 화분에서 상사화를 10구 이상 심어 가꾸는데 개화기 때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물 & 비료

▶ 건조에 강하고, 잎이 있을 때만 시비

상사화는 구근식물이라 건조에 강해 오래 지속되는 가뭄이 아니면 물주기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실내에서 상사화를 재배할 시 잎이나 꽃대가 자랄 때는 5~7월에 한 번 주면 충분하며, 잎이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주면 된다. 비료는 잎이 있을 때만 주면 된다. 추계출엽종은 잎이 날 때부터 질 때까지, 추계출엽종은 10~11월, 3~6월에 종합비료를 1000배로 희석하여 2주에 한 번 주고, 여름이나 겨울에 상사화류를 심은 자리에 퇴비를 주면 된다.

번식 ▶ 5년에 한번 분구로 번식

상사화류는 씨뿌리기와 분구로 번식하는데 상사화는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류가 많다.

열매를 맺는 종류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때 구근이 양분을 많이 소비하므로 내년엔 꽃을 보기 힘들어진다. 상사화도 톨립처럼 씨앗에서 꽃을 보려면 5~7년을 키워야 한다. 그러므로 주 번식법은 분구로 생각하면 좋다. 상사화를 식재한 후 5년에 한 번 잎이 진 직후에 구근을 캐어 늘어난 구근을 나누어 심어주면 된다.

월동 ▶ 추계출엽종은 중부지방에서 생육 불량

상사화류는 잎이 나는 시기에 따라 내한력이 달라진다. 춘계출엽종은 높은 산지가 아니라면 한국에선 노지월동이 충분히 되지만, 추계출엽종은 중부지방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특히 한국의 겨울은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추세라 중부지방의 정원에서는 주로 춘계출엽종을 심

기를 권한다.

남부지방에서는 춘계출엽종 추계출엽종 모두 노지월동이 되므로 월동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중부지방에서 상사화를 화분 재배할 때는 춘계출엽종도 노지 월동을 할 수 없으므로 상사화를 심은 화분은 심은 종류가 무엇이든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월동시켜야 한다.

구입 ▶ 야생화 전문회사 및 대형 종묘 회사에서 구매가능

상사화류는 장점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판매처를 찾기 힘들다. 대림원예종묘 등 대형 종묘회사에서 찾아보거나 고인돌 들꽃학습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인돌 들꽃학습원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진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 제주상사화도 구할 수 있다. [ln](#)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 무궁화

글 정지은 기자 / 도움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박사



학명 *Hibiscus syriacus*

영명 Rose of sharon

분포지역 한국·싱가포르·홍콩·타이완
크기 3m

은근, 끈기, 섬세한 아름다움

옛 기록을 보면 우리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무궁화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고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우리민족과 함께해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참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여름철 화목류의 여왕, 히비스커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보통 한그루에 2~3천여 송이가 매일 핀다. 또 나무를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한 특성이 있다. 공해에 비교적 강해서인지 전국의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정원수로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울타리나 경계용으로 많이 쓰인다. 공원이나 자연학습장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모양 같이 조형수로도 꽤 이용된다. 유럽에서는 여름철 정원수로서 정원 중심부에 관상용 독립수로 심겨진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양에서 히비스커스는 정원용은 물론 분화용으로 인기가 많아 품종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꽃색은 순백색인 것부터 단심, 분홍단심, 홍단심 등 다양하며 복색인 것도 있다. 꽃도 단아한 홑꽃부터 겹꽃, 반겹꽃 등 변이도 많다.

주로 삼목 번식...8월부터 '녹지삽'

무궁화는 씨앗으로도 번식하고 삼목이나 접목 등으로 번식한다. 씨앗을 플러그 트레이에 파종하여 육묘하면 균일한 실생묘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삼목번식에는 녹지삽과 속지삽이 있고, 속지삽은 4월 중순에, 녹지삽은 8월 상순에 한다. 속지삽을 할 경우에는 95% 이상이 활착되어 삼목번식은 주로 속지삽을 한다. 속지삽의 경우, 삼목은 거름기가 없는 깨끗한 밭에 하거나 모래에 하며, 이때 삽수는 10cm 길이(눈이 3~4개 달린) 정도로 하고 밑부분(기부)의 양쪽을 비스듬히 깎아서 2/3가 묻히도록 꽃과 집을 떨어져서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녹지삽은 그해에 햇가지가 반 정도 굵은 7월 하순~8월 상순에 10cm 길이의 삽수를 속지삽과 같이 다듬어서 묻힐 자리의 앞을 떠버린 다음 꽃과 별가림을 해준다.

일조가 많은 양지바른 곳이 재배 적지

무궁화는 어떤 흙에서도 잘 자라나 물이 잘 빠지고 토심이 깊은 곳이면 더욱 좋고, 그늘진 곳보다 양지바른 곳이 좋다.
성목을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퇴비 10kg, 소석회 2kg, 복합비료(18종용) 70g을 넣고 흙과 같이 잘 섞어서 그 위에 거름기가 없는 흙을 10cm 정도 덮은 다음에 심도록 한다.
밭에는 10a당 퇴비 3톤, 복합비료 20kg, 계분 200kg을 넣고 잘 갈아 덮고 심는다. 웃거름으로는 6월과 8월에 복합비료를 10a당 15kg씩 각각 나누어준다.

목화 진딧물, 무궁화의 가장 큰 적(敵)

무궁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진딧물, 이것은 년 4~5회의 약제 살포로 쉽게 막을 수 있다. 특히 휴면기가 끝나고 색이 트기 직전(3월 초중순)과 휴면기 돌입 직전(10월 중하순)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무궁화에 주로 발생하는 진딧물은 목화 진딧물이고 그밖에 아카시아 진딧물도 있다. 이들은 4월 상순부터 무궁화의 눈 주변에 산란한 알들이 부화되어 5~6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있다가 여름에는 채소와 과수 등의 다른 작물로 옮겨간다.
9월 하순~10월 중순이 되면 다시 알을 산란하기 위해 무궁화로 도래하여 무궁화를 월동기주로 이용하는 생리습성이 있다.
따라서 진딧물은 5~6월 및 9~10월에 3~4주 간격으로 4~5회 진딧물약을 살포해 주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고인돌들꽃학습원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진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 제주상사화도 구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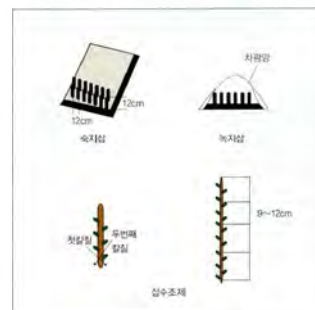
Tip

무궁화와 형제인 하와이무궁화

학명 *Hibiscus rosea-sinensis*

영명 Hawaiian hibiscus

오랫길 줄을 걷다보면 한창 피고 있는 무궁화가 하와이무궁화이다. 꽃이 무척 크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다.
우리의 나라꽃인 무궁화와는 형제별 되는 식물로 속명이 같은 *Hibiscus*(히비스커스)다. *Hibiscus*는 이집트의 *hibis*신과 그리스어의 *isco*(갈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신에게 바치는 꽃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화단 및 정원용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식물원이나 공원에 군락으로 모여심기도 한다.
이 품종은 키가 2~5m까지 자라며,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아침에는 색이 열지만 낮으로 가면서 진해져 빨간색에 가까운 분홍색으로 된다. 웬만한 추위에는 잘 견디기 때문에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어디든 월동이 가능하다.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대체로 잘 자란다.



우리와 함께 꽃의 세계로!

백합, 튜립, 칼라, 글라디올러스,
초화 종자, 화훼플러그 묘

우리화훼종묘(주) 02-503-9094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84-1 Fax. 02-503-9097 www.woorseed.co.kr

다양한 무궁화 품종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또 여름철 동안에 많은 꽃을 피우는 화목류로서의 비중이 높아 연구가치가 있는 원예작물이다. 육성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다양한 품종들이 있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품종들이 육성되고 있다.



꽃보살



두동실



아침놀



옥소리



저녁놀



종소리



한겨레



한바람



합창



홍풍차



다이아나



레드하트



루시



블러싱 브라이드



블루새틴



스노우드리프트



아덴스



우드브릿지



파랑새



핑크쉬폰

국화꽃이 봄에 피지 않는 이유

식물의 개화...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글 정승환 기자

정원에서 다양한 야생화가 피고진다. 봄에는 연분홍 벚꽃이 만발하여 입춘을 알리고 여름이 되면 참나리, 땅나리 등이 그 자태를 뽐낸다. 단풍의 계절 가을이 오면 국화가 가을 화단을 근사하게 장식한다. 이때 핑의비름과 구절초도 여러 색깔을 드러낸다.



사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어떻게 개화, 즉 꽃 피는 시기를 알까? 식물에게는 계절을 감지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있다. 이런 신호들은 식물 안팎의 환경변화를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밤낮의 길이와 온도변화를 인지해 식물 내부의 화학물질이 변화해 개화호르몬을 자극시켜 계절 또는 시간에 맞게 꽃을 피운다.

피토크롬, 식물의 생체시계를 움직이는 열쇠

중산작용, 또는 특정 효소들의 합성 등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하루에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런 주기변화의 일부는 밤낮의 24시간 주기에 따른 빛의 수준과 온도, 상대습도의 변화에 대

한 반응이다. 이런 주기적 변화를 일주기성이라고 한다. 또 종자의 발아, 개화, 눈의 휴면 등은 연중 특정 시기에 일어난다. 식물이 일 년 중 특별한 시기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자극이 밤과 낮의 상대적 길이이다. 식물이 일주기성과 광주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피토크롬에 있는 적색광과 근적색광의 광수

용체이다.
피토크롬은 660nm의 적색광과 730nm의 근적외선광으로 이뤄져 있다. P_r형태의 피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고 P_{fr}형태의 피토크롬은 근적외선을 흡수한다. 예로 적색광을 받은 상추는 P_r을 P_{fr}로 전환해 발아에 필요한 여러 세포내 반응들을 자극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근적외선을 받게 되어 P_{fr}이 P_r로 전환되어 발아를 억제하게 된다.

일장의 길이에 따라 식물은 반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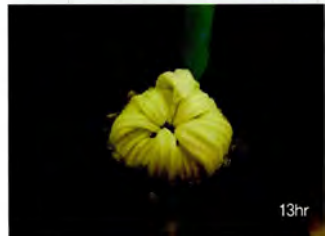
10hr



11hr



12hr



13hr

일장에 따른 국화(산마)의 개화(충남농업기동원)

궁금한 것은 '식물이 어떻게 계절을 인지하고 있는가'이다. 과학자들이 어떤 식물을 대상으로 밤과 낮의 길이를 조절했을 때 낮의 길이가 14시간보다 짧아지면 꽃이 피는 것을 알았다. 식물이 영양기에서 개화기로 접어들 때 광주기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단일, 장일, 중일 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식물은 광주기에서 낮의 기간 중 잠깐 동안 암처리를 하여도 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밤의 기간 중 단 몇 분 동안의 최미한 빛을 비춰도 도꼬마리 같은 경우 꽃을 피우지 않는다.

도꼬마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8시간의 지속적인 암처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단일식물을 장야식물이라고도 한다. 국화와 포인세티아가 여기 속한다.

반대로 장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임계값보다 짧거나 같아지면 꽃이 핀다. 시금치, 상추, 무, 붓꽃과 이외의 많은 곡식들이 여기에 속한다. 중일식물은 광주기가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정한 생장단계가 되면 꽃을 피우는 식물로 토마토, 벼, 민들레 등이 속한다.

가을 국화를 봄에 꽃피게 한다

식물들은 밤의 길이를 정확히 지킨다. 단일식물의 일부는 밤의 길이가 임계 길이보다 1분이라도 짧으면 꽃을 안 피운다. 식물 내부에서 계절과 시간을 인식하는 생체시계는 피토크롬을 이용한다. 화훼산업에서는 식물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 제철이 아닌 꽃을 생산한다. 예로 국화는 가을에 꽃을 피는 단일식물이다. 하지만 밤에 빛을 비추어 밤의 길이를 줄이면 꽃피는 시기를 내년까지 늦출 수 있다. 봄에 밖에 국화를 심으면 꽃이 안 피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화훼농가에서는 전등 조명을 이용해 화훼의 축성 또는 억제 재배하는 방법을 전조재배(電照栽培)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전등을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해 좋은 품질의 화훼를 생산하고 있다.



전남농업기동원의 국화전조재배

춘화처리...저온을 겪어야 싹을 틔운다

온도에 의해서도 꽃이나 싹 틔우는 것을 결정하기도 한다. 개나리와 진달래 등은 잎이 난 후 꽃눈이 맺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런 식물들은 차가운 기온을 맞은 후에 꽃을 핀다. 개나리 꽃눈이 겨울을 난 후 온도가 오를때 꽃이 핀다. 이것을 춘화처리라고 한다.

겨울밀 같은 경우도 미리 10℃ 이하의 온도에 몇 주 동안을 놔두면 비로소 꽃이 핀다. 저온을 겪어야 싹을 틔우는 가을보리를 봄에 심으면 반응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in](#)



전남농업기동원의 국화전조재배

피토크롬, 식물이 주기성을 갖게 하는 물질

식물의 계절인식은 밤의 길이가 열쇠

개나리 등은 겨울을 겪어야 개화

식물의 개화시기를 속이기 위해 '전조재배'

일장에 따른 식물의 종류

장일 식물

밤의 길이가 임계값보다 짧거나 같아지면 꽃이 피는 식물
시금치(*Spinacia oleracea* Linnaeus)
페튜니아(*Petunia hybrida* Vilm)
카네이션(*Dianthus caryophyllus*)
금잔화(*Calendula officinalis*)
금어초(*Antirrhinum majus* L.)
델피니움(*Delphinium grandiflorum* L.)



시금치

페튜니아

카네이션



금잔화

금어초

싸리풀

※임계암기 : 연속된 암기가 길어짐(또는 짧아짐)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암기의 길이



국화

포인세티아

칼란코예



콜리우스

코스모스

다알리아

단일 식물

밤의 길이가 임계값보다 짧거나 더 길어지면 꽃이 피는 식물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
포인세티아(*Euphorbia pulcherrima*)
칼란코예(*Kalanchoe blossfeldiana*)
콜리우스(*Coleus blumei* Benth.)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Cav.)
다알리아(*Dahlia pinnata* Cav.)
나팔꽃(*Pharbitis nil* Choisy rar.)
백일홍(*Zinnia elegans* L.)



장미

해바라기

아프리카 바이올렛



시클라멘

심비디움

팬지

중일 식물

밤과 낮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자극을 받아 개화하는 식물 보통 열대 지방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속한다.
장미(*Rosa hybrida*)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
아프리카 바이올렛(*Saintpaulia ionantha*)
시클라멘(*Cyclamen persicum*)
심비디움(*Cymbidium hybrida* Swartz.)
팬지(*Viola tricolor* L.)

용의 쓸개처럼 맛이 쓴 용담

글·사진 이명호의 아생화(www.skyspace.p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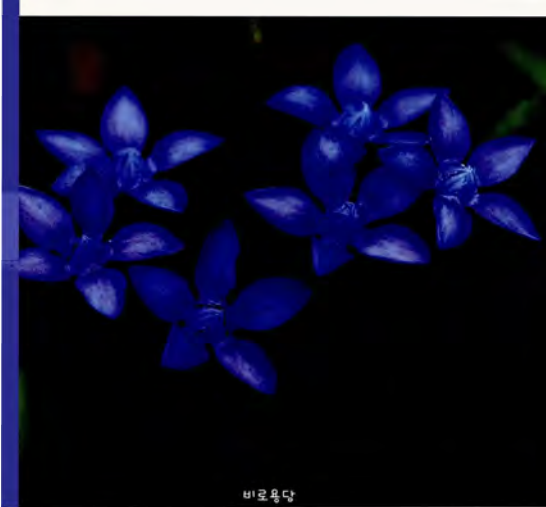


가을을 재촉하는 듯 산과 들에는 가을꽃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봄철은 소박하고 앙증맞은 작은 꽃들이 수를 놓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푸른 하늘빛을 닮은 시원스런 꽃들이 맑게 뽐내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의 문턱, 산행길에서 만난 용담(*Gentiana scabra* var. *buergeri*) 종류들은 가을 하늘처럼 푸른 기상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꽃이다. 특히 가을 억새밭 속의 짙은 하늘색 용담은 대단히 아름답고 눈을 즐겁게 한다. 용담은 생김새도 종 모양처럼 생겨 꽃꽂이용으로도 인기가 있어 원예용으로 재배되기도 한다. 이 가을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모두 용담처럼 푸른빛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용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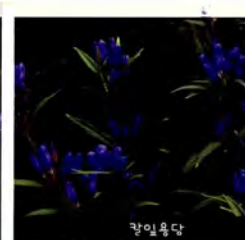
산용담



비로목담



구슬봉이



광일목담



큰구슬봉이



흰그늘용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쓴맛의 대표적인 주자는 공의 쓸개를 말린 '용담'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쓰다고 하여 중국에서 한자로 용용(龍)자를 머리에 붙여 용담(龍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약으로 쓰는 것은 용담채에 속하는 식물들의 뿌리를 캐어 말린 것인데, 맛은 쓰고 성질은 찬 것이 특징이다.

서식지

전국 산지 양지 풀밭, 8~10월 개화

용담 무리들은 전국 산지의 양지쪽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높이가 20~60cm이고 4개의 가는 줄이 있으며 붉은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앞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없으며 밑부분은 줄기를 싸고 있다. 모양은 바소풀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3개의 큰 맥이 있다. 잎의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톨니가 없다. 꽃은 8~10월에 피고 푸른 보랏빛이며,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파란 하늘빛을 닮은 꽃이 청초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포는 좁으며 바소풀이다. 꽃받침은 통모양이고 끝이 뾰족하게 갈라진다.

꽃과 열매

종처럼 생긴 화관

화관(花冠)은 종처럼 생기고 가장자리가 5개로 갈라지며 갈래조각 사이에 부연이 있다. 5개의 수술은 통부에 붙어 있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殼果)로 11월에 익고 시든 화관 안에 들어 있으며, 종자는 넓은 바소풀로 양 끝에 날개가 있다. 어린 새끼와 잎은 식용하며, 뿌리를 용담이라고 하여 고미건위제(苦味健胃劑)로 사용한다. 한국·일본·중국 동북부·시베리아 동부에 분포한다.

용도

민간 약재로 사용되는 귀한 풀

민간에서는 위장병, 소염, 해독,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산과다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귀중한 풀이다. 약리실험에서 위의 분비 및 운동 기능을 높이는 작용, 간기능을 높이는 작용, 강압작용, 진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 등이 밝혀졌다고 한다.

눈이 별것게 되면서 붓고 아픈데, 인후통, 협통, 급경풍, 황달, 습열설사, 이질, 음낭이 붓고 아픈데, 음부소양증, 창양, 습진, 식욕이 없고 입 안이 쓴데, 소화 장애, 일본뇌염, 위염을 다스리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대개 약으로 많이 쓰는 풀들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리작용이 좋다고 하여도 함부로 쓰는 것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종류

전국 각지에 다양한 종류 분포

용담은 키가 작고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지만, 칼임용담은 위로 곧게 자라면서 잎이 길고 칼처럼 뒤로 휘는 것이 특징이다. 흰용담은 꽃이 흰색이고 산용담은 북부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꽃잎의 표면에 푸른 줄무늬가 들어있어 기세 당당해 보인다.

큰용담은 키가 크고 곧게 자라면서 꽃차례가 길고, 덩굴용담은 줄기가 덩굴성이어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자란다. 아주 작고 꽃이 푸른빛을 강하게 띠는 비로용담은 감쪽해 보이며, 꽃이 흰색을 띠는 것은 흰그늘용담이라 부른다. 용담과의 아주 작은 개체들 중에는 구슬봉이 종

류가 있는데,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큰구슬봉이이다. 큰구슬봉이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자라며 개체수도 많을뿐더러 모든 잎은 마주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잎은 더욱 커진다. 구슬봉이와 큰구슬봉이는 아래쪽 잎은 돌려나고 위쪽 잎은 마주나는 것이 특징이다. 큰구슬봉이는 구슬봉이보다 약 한 달쯤 먼저 피고 꽃 색이 짙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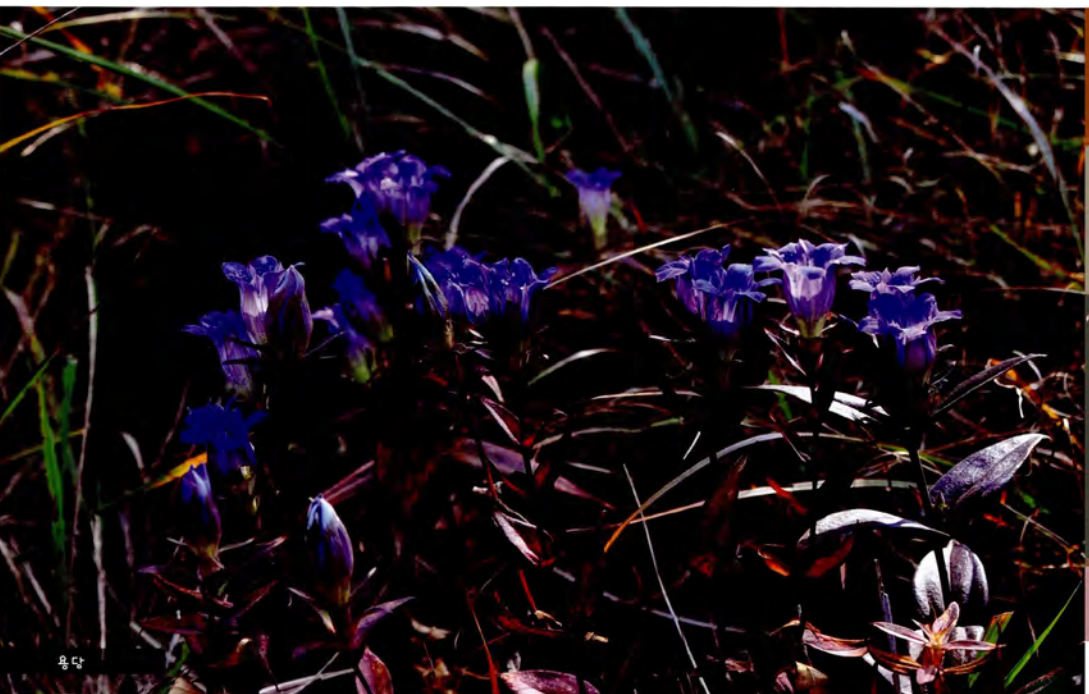
전설

토끼와 나무꾼의 신비의 약초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나무꾼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눈 덮인 산 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한참 눈을 헤치며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눈 속에서 풀뿌리를 캐는 시늉을 하는 것이 보였다. 나무꾼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런데 토끼는 몇 걸음 앞서 도망가면서도 계속 눈 속을 앞발로 헤집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무꾼이 토끼가 발로 헤집던 곳을 살펴보니 가냘픈 줄기에 보랏빛 꽃이 달린 처음 보는 풀이 있었다.

나무꾼은 신령님이 산토끼를 대신하여 신령한 약초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풀의 뿌리를 캐어다가 위장병으로 앓아누워 계신 어머니께 다려드렸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며칠 뒤에 깨끗하게 나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나무꾼은 이 약초가 산신령이 내려 준 것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풀의 맛이 마치 용의 쓸개처럼 쓰다고 하여 '용담'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in



용담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병

글 차병진 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던 장마가 끝났는데 왜 이리도 비가 계속 오는지, 장마철 같이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하루 한 번씩 어김없이 퍼부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심술꾸러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하늘이 뚫어진 듯 쏟아져 내리시는 빗물을 바라다보면 참 시원하기는 하다. 하지만 시원한 것은 잠시 뿐, 비 그치시고 나면 수증기들이 올라오며 또 다시 폭폭 찌는 통에 짜증만 더해진단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좋아하는 놈들이 있다는 것을...



탄저병균의 포자
(길이 약 16마이크로미터)

식물병 발병률의 최대적 '다습'

일반적으로 식물에 병이 나기 좋은 조건은 '고온 다습'이다. 즉,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을 때 식물에 병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식물 병들은 온도가 낮을 때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습도는 그와는 달리, 습도가 낮아야 더 많이 나타나는 병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병들이 습도가 높을 때 더 잘 나온다. 어느 정도나면, 식물병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나온다. 온도는 병을 일으키는 녀석들이 좋아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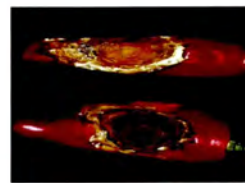
무 낮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병이 오히려 줄어든다. 하지만 습도는 그렇지 않다. 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습도는 일반적으로 포화습도, 즉 상대습도 100%이다. 그러나 장마철에는 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기온이 다시 오르면 찾아오는 '탄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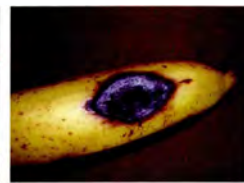
장마철에 병 발생이 많은 것에는 습도 이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우선 장마철에는 일조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식물체가 약해지므로 병원균의 침입에 대해

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 또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병해를 받기도 한다. 병해 받은 식물 역시 병원균이 침입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강우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물에 상처가 나기 쉽다. 이런 상처들은 병원균이 식물로 침입하는데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 따라서 장마철이 끝나고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갖가지 식물병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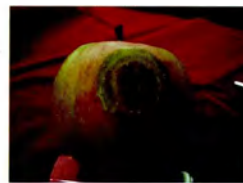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 탄저병이다. 탄저병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가



고추 열매 탄저병



바나나 탄저병



사과 탄저병



호접란 잎의 탄저병

은 것이 생겨서 감염된 부분이 검은 색으로 변하고 약간 가라앉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즉, 이 병은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타내는 증상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므로 동물병과 식물병이 모두 있다. 지금은 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테러단체들이 사람에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일이 있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식물에도 탄저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으면 사람도 탄저병에 걸리는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탄저병에 감염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가루로 만들어 유통한 사람을 살인마 수준으로 매도했던 우스운 일도 있었다.

감염되기 쉬운 작물 종류가 많은 무서운 병

식물에 탄저병을 일으킨 병원균은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전혀 병원성이 없다. 탄저병균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병원균이 다 그렇다.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 동물에도 병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동물 병원체 중 식물에도 병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도 없다.

즉, 사람이나 동물들이 병든 식물을 먹었다고 하여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기에 혐오감을 주고 섣뭇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먹는 것이지, 병든 식물을 먹었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콩과식물이나 견과류의 열매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역시 병이 전염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는 곰팡이들이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아썩든 장마철 이후에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탄저병이란 증상을 보고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Colletotrichum이라는 곰팡이들이다. 이 종류의 곰팡이들은 감염할 수 있는 식물들의 종류가 매우 많아서 상당수의 식물에 탄저병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것이 고추, 토마토 등이며, 딸기, 수박, 콩 등 농작물은 물론이고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과수, 동백나무 등 수목류도 감염한다. 특히 고추의 경우에는 해마다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열매를 미이라처럼 말린다면 탄저병 추정

탄저병은 잎이나 오히려 나온 가지 등도 감염하지만, 주로 열매를 감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열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다른 병에 비하여 많은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탄저병은 대개 열매들이 거의 자라서 익어갈 무렵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작고 검은 반점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가운데가 약간 꺼진 원형 내지 타원형의 병반으로 발전한다. 증상 발현 초기에는 병반의 표면이 매끈하며 어두운 갈색을 띠나, 병이 진전되면서 병반의 가운데에 검은색의 알갱이들이 줄을 지어 겹동근무늬를 만든다. 습도가 매우 높은 날에는 여기에서 분홍색의 포자 덩어리를 분출하여 작은 분홍색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듯 보인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포자덩어리는 말라붙고, 조직은 갈색 내지 검은색으로 변하고 쭈글쭈글해지면 꺼진다. 인접한 병반은 자라면서 서로 융합되기도 한다. 병든 열매는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은 채로 말라서 미이라와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한다. 또 수확할 때까지는 말쭉하던 열매들이 수확 후 저장 중에 탄저병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in**

탄저병 방제



탄저병은 대부분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감염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이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포도의 경우 탄저병균이 열매를 감염하는 것은 수정이 끝나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포도알이 아주 작고 푸를 때에 이미 감염을 한다.

이 시기에는 포도 과육의 산도(pH)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 열매가 익어가면서 산도는 낮아지고 당도가 올라감에 따라 병원균의 세력이 활발해지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성은 포도뿐만 아니라 고추, 사과 등 다른 열매들에서도 모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저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방제에 착수한다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잘 방제하지 않는 병으로 탄저병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실제로 감염을 하는 시기가 아닌 생육 중·후기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방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제법은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탄저병에 효과가 좋은 살균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농약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기농업의 성정에 힘입어 길항미생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방제제들도 다수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하여도 된다. 단, 친환경방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균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종약초

개동쑥, 바로 알고 이용해야...

글_ 정승환 / 사진·도움말_ 농촌진흥청 약용식물과 이정훈 박사

최근 항암효과로 농가·소식득 작물로 급부상한 개동쑥이 유사식물과 혼동해 재배되고 있다. 개동쑥은 일반 쑥과는 다른 특성과 다른 외관을 갖고 있고, 효능도 다르다. 정확한 효능과 구별법을 안다면 쉽게 개동쑥을 재배할 수 있다. 항암에 효과가 있는 개동쑥으로 건강을 챙겨보자.

한방에서 자생하는 쑥은 전국적으로 약 4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약 10여 종 정도의 쑥이 인진, 애엽, 청호 등의 한약재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에서는 학질, 허열 등을 치료하는 청열약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중 한방약재로 잘 쓰이는 개동쑥은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식물체를 손으로 뜯어 비비면 '개동'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동쑥'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잔잎쑥'이라고 부른다.

암환자에 좋은 천연 항암제

최근 개동쑥의 추출물이 항산화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입증되면서 전남 곡성(8ha), 경남 산청, 강원도 등

농가의 소식득 작물로 인식되어 재배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011)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개동쑥의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개동쑥 잎과 줄기의 추출물이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케네시아 추출물이 암세포 활성 억제에 효과적인 것과 유사할만큼 증식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허브향이 나는 개동쑥

이런 높은 효과임에도 농가에서는 개동쑥의 인식이 부족해 개사철쑥, 더위지기, 사철쑥, 일반쑥 등 유사식물을 개동쑥으로 오인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약용식물과 이정훈 박사는 이런 개동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개동쑥이 일반 쑥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불에 즐겨먹는 쑥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름과 다른 향기롭고,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박사는 쑥과 달리 개동쑥은 허브향이 나므로 냄새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년생으로 2m이상 자라는 식물

외관적으로도 구별된다. 개동쑥 꽃은 쑥 종류 중에서 가장 작다. 꽃송이 평균길이는 1.33mm, 꽃송이 평균너비 1.27mm이다. 줄기는 하나로 곧추서며 최대 약 2m 이상 자란다. 허부 잎은 4~5개로 갈라져 있다. 또한 개동쑥의 수확 시기는 개화기인 9월 상순 전후가 알맞으며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약효성분이 적은 큰 줄기보다는 잎 또는 꽃봉오리 부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박사는 "개동쑥은 일반적인 쑥과는 달리 종자로 번식하는 1년생 초본으로 전국 강가, 하천부지 및 황무지 등에서 작은 군락을 지어 자생한다"며 종자나 말린 잎 등으로는 일반 쑥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기원식물을 약초로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끓인 물에 넣기만 하면 개동쑥차

개동쑥을 복용하고 싶다면 우선 건조시켜야 한다. 건조된 개동쑥 20g에 물 2L를 붓고 약한 불로 한시간 정도 달여 마시면 된다. 차로 먹고 싶다면 물 60~70°C가 좋다.

하지만 개동쑥을 먹을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약성이 다소 강하고, 찬 성질을 갖고 있어 속이 찬 사람이 진하게 복용시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는 개동쑥차를 연하게 먹는 것이 좋다. 또 임신부나 큰 수술 등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간질환 환자 등은 피하는 게 좋다. in



개동쑥(*Artemisia annua* Linne)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이다. 일본, 만주, 중국, 몽고, 인도, 유럽, 북아메리카 등에 분포되어 있다. 'Artemisia'는 '부인병에 유효하다'는 그리스 신화의 'Aryemis(Diana)' 여신을 기리며 식물학자 린네(Linne)가 명명했다고 한다.



개동쑥의 외관적 특징

개동쑥 효능

- **항암효과**
암세포만을 선택해 죽이는 아르테미신 물질이 개동쑥에 함유. 기존 항암제보다 약 1200배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개동쑥 효소를 만들어 복용하거나 씨를 먹으면 암을 예방해 주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 **피부 미용**
비타민 A,C가 풍부해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의 생리통에 개동쑥을 이용해 작을 하면 효과가 있다. 또 냉대하증과 살균효과도 좋다.
- **피로회복**
체력이 떨어지고 자주 피곤함을 느낄때 피로회복 개선에도 개동쑥의 효능이 나타난다.
- **변비 및 다이어트**
섬유질이 풍부한 개동쑥은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히 해 배변을 도와준다.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 **해열작용**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고온인 환자에게 개동쑥을 복용시키면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 **면역력 강화**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개동쑥을 꾸준히 복용시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력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환절기 감기 예방 및 치료에도 좋다.
- **위장 보호**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용시 위염, 위벽을 보호해준다. 위염이나 위암,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 **말라리아 치료**
말라리아나 결핵, 이질 등의 치료에도 개동쑥의 효능이 나타난다. 허혈을 다스리고 가려움증, 종기, 기생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동쑥 재배법

가을에 개동쑥 씨앗을 뿌려 썩어 난 상태로 겨울을 나게 한다. 이듬해 차라 열매를 맺는다. 보통 노지에서 키우는 것이 좋는데, 일반적인 토양이나 밭둑, 하천가, 산기슭 등 볼모지가 재배적이다. 파종할때는 모래, 흙 등에 섞어 흩어뿌림으로 뿌리면 겨울을 난 후 이듬해 4~5월 경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비게 난 모종은 수확 후 효소로 담근다.

개동쑥과 구별되는 유사 약초

	개사철쑥	더위지기	사철쑥	쑥
전초				
잎				
꽃				



국화 분재 두번째 이야기 석부작

글 사진 소순복 기자 / 참고도서 국화분재(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석부작이란 '돌에 부착하여 만들다'라는 의미로 수석을 이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분재를 말한다. 오래된 거목의 뿌리가 암석을 감싸 안은 모습을 연상케 하고, 해안의 절벽이나 심산계곡의 경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석부작의 매력이다. 작은 화분에서 거대 자연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는 석부작을, 지난 호에 이은 국화분재 두 번째 이야기로 정했다. 전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현재는 본지의 발행인 이순영 발행인이 지난 7월 18일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에서 강의한 석부작 만드는 방법 중 일부를 소개한다.

뿌리키움묘 ▶ 생육이 좋은 품종 선택

본격적인 석부작 만들기에 앞서 묘묘의 뿌리를 키워 준비해야 한다. 이를 뿌리키움묘라 부른다. 뿌리를 키우기 위한 묘묘는 우선 단간성 품종으로 선별한다. 단간종이란 국화 잎의 간격이 1.5cm 이내로 촘촘한 품종을 말한다. 뿌리키움묘로 단간종을 선택했다면 이어 뿌리 성장이 좋은지 따져 보고, 줄기 부피성장도 빠른 것을 고른다. 또한 줄기에 고색미가 나는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에서 잘 생육하는 품종을 선택한다. 뿌리키움을 하는 동안 분재철사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가지를 유도하고, 순지르기(적심)를 하여 가지 만들기를 한다.

수석(돌) ▶ 뿌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돌

수석의 표면이 들쭉날쭉하여 기복과 요철이 많은 것은 국화분재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면은 단조롭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산(山)형에 가까운 것이 좋다. 또한 뿌리가 골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수석이어야 하고, 크기는 높이나 좌우폭이 20~40cm가 적당하다. 앞뒤폭은 20cm내외가 알맞다. 습기를 잘 품어서 이끼가 잘 생기는 돌이라면 금상첨화다.

수태(마른이끼) ▶ 뿌리의 건조와 용토의 유실방지

국화의 뿌리를 돌붙임한 후 그 위를 마른이끼로 감싸주면 뿌리의 건조와 용토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in**

뿌리의 멋스러움이 한 폭의 동양화

석부작은 일반적으로 50cm 내외의 관수호스에서 뿌리를 키워낸 뒤 수석 위에 국화를 식재함으로써 뿌리의 멋스러움을 담아내고 있는 예술 작품이다. 수석의 골을 따라 유유히 뻗어나가는 멋, 그 안에 석부작의 진정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석부작은 수석과 수형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높이가 강조된 입석의 돌에는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모양의 수형이 어울린다. 반면 높이가 강조된 평석에는 키가 크고 바로 선 직간형 수형을 심는 것이 좋다.

석부작은 뿌리의 흙을 씻어가면서 뿌리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완성된다. 때문에 수석의 골짜기로 뿌리가 파고 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뿌리와 돌이 분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아 단단히 묶어주어야 한다.

석부작에 적합한 국화분재 품종은 미까도, 용백, 백조, 나비사랑, 향취매, 백봉, 나비번영, 화호, 월후사자, 천석주 순이다. 석부작은 일반 분재와 달리 준비물도 필요한데, 뿌리키움묘, 수석, 이끼와 함께 화분과 흙, 고무줄 등이 있어야 한다.

준비물



고무줄



수석과 육묘



철사



화분



흙

Step By Step 석부작 만들기

1. 준비한 돌을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안정적인 모양을 만든다.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도록 밑바닥을 편평하게 한다. 수석은 구멍이 많지 않고, 블록형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적당하다.



2. 고무줄을 이용하여 뿌리의 목부분부터 단단하게 묶는다. 뿌리가 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시켜 골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해야 한다.



3. 돌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스티로폼을 대고 뿌리를 배열한 후 감는다. 뿌리는 사방으로 고루 퍼지도록 한 다음 단단히 묶는다.

4. 준비한 화분에 흙을 넣는다. 흙을 채우고 화분을 지면에 가볍게 두세번 툭툭 치면 흙이 치밀하게 채워져서 안정이 된다.



5. 화분에 심는다. 석부작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뿌리 힘으로 국화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수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고정해야 한다.

6. 뿌리가 노출된 부분은 이끼로 감싸주어야 한다. 이끼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깊게 심는다.

7. 한 달 정도 두면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 이끼가 없어 깊이 심었던 것은 그때 빼서 약간 올려준다. 고무줄은 정식(임시로 심은 화분에서 본 화분으로 아주 옮겨 심는 것)할 때 풀어준다.



이순영 발행인은...

전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이자 현 가든인의 공동 발행인이다. 이 발행인은 국내 나비축제의 대명사격인 함평나비축제를 기획, 성공리에 개최한 그 함평 신화의 주인공, 구수한 입담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마력의 명강사이다. 국화 분재에 있어서는 특히 국내를 대표할 만한 전문가로 꼽힌다.

AIPH 회원 황미옥 플로리스트와 결혼식용 DIY 생화 센터피스 만들기

글·사진 황주리 기자



야외 가든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라면 집 안에서든 그 가든의 일부를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법. 야외 가든에 풍성하게 꽃핀 꽃 몇 가지를 꺾어 집안에서도 가든을 꾸며보자. 식탁에서도 현관에서도 그리고 매일 일하는 서재의 책상에서도 밖에서 맡은 꽃 향기를 안으로 들여와 보자. 아담하고 향긋한 센터피스를 만들어 집안에 들여놓으니 정원의 향기가 가득하다.

결혼식에서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생화장식이라고 한다.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한다는 2 시간짜리 결혼식에 쓰이는 꽃 장식. 물론 여성객들의 선물로 포장되어 보내지긴 하지만 정말 몇 백에서 몇 천 만원 들여서 결혼식 꽃 장식에 쓰기에는 우리에겐 불필요한 지출이다. 특히나 나만의 정원을 꾸미고 있는 '가든 인'이라면 가족 결혼식, 친구 결혼식에 몇 만원 안 되는 봉투 한 장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임장통로'의 꽃을 장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받는 사람은 그 정성에 감동하고 만든 사람은 정말 몇 분 안 걸려서 만든 장식을 줌으로써 보람차다는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보자.



Step 1.

야외가든에 있는 많은 식물 중 잎과 꽃이 만개한 것들 위주로 잘라온다. 로즈마리와 같이 초록 잎이 무성한 초록 이파리 식물과 알록달록 계절 꽃을 2:1 비율로 줄기를 길게 해서 자른다. 벌레와 같은 이물질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물에 담근다.

Step 2.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플라스틱 양초받침대 혹은 플라스틱 스펙 접시를 구입한다. 그 위에 촉촉한 플로럴 오아시스 (꽃아이용 스피로 폼)을 15cm×10cm 혹은 구입한 접시 크기에 알맞도록 잘라서 올린다.

Step 3.

잘라 놓은 플로럴 오아시스의 크기에 맞춰 미니사이즈 양초를 원하는 개수만큼 구입한 후 오아시스 정 중앙지리에 놓고 힘껏 눌러 양초를 고정시킨다.

Step 4.

로즈마리, 오크리프, 민트잎 류 등의 초록잎을 베이소로 자른다. 이때, 줄기는 최대한 길게 살리되 양초의 높이를 넘어서지 않는다. 또 양초에 불을 붙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잎이 양초와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꽃잎을 한다.

Step 5.

초록잎의 베이소로 오아시스를 모두 감싸고 난 후 엷은 색을 띄는 꽃을 등성등성 꽃기 시작한다. 3~4개 정도면 알맞은 비율이 완성된다. 이 때, 붉은 빛이 도는 잎을 엷은색 꽃 옆에 꽂으면 좀 더 묵직한 우아함을 더해 준다.

Step 6.

다음 단계는 중심 잡기다. 엷은 꽃과 붉은색 잎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진하고 큰 꽃을 꽂아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준다.

Step 7.

Step 1에서부터 Step 6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꽃의 양과 오아시스, 양초와 플레이트 개수에 맞춰 원하는 개수만큼 제작하면 집안에 미니어져 가든을, 또 결혼식에서는 최고의 생화 장식을 완성할 수 있다. in

철쭉과 미니 짚레로 꾸민 산수분경

글 사진 김민정 아마추어 가드너

모종을 사서 옮겨 심다 보면 늘 뿌리 길이만큼 깊은 화분에 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초보 가드너들에게 얇은 화분에 모종을 심는 일은 신기해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심는다는 생각하면 참 멀고도 어려운 길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법, 자꾸 해보면 해볼 만하다.

나는 지금까지 분갈이를 할 때, 모종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화분을 선택했다. 흙도 모종의 겉흙만 털어내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트모스(검고 아주 부드러운 흙)는 대체로 다 털어내는 게 좋다고 말한다. 단 모종이 모래에 심어져 있으면 다 털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창원에 있는 야생화 트랙(대표 한해영)에서 야생화 가꾸기 수업을 듣기 시작한지 두 달. 이번에는 돌 위에 철쭉과 미니 짚레를 심는 방법에 관한 수업이 진행됐다. 지난 호에서도 이미 밝힌 것처럼, 나와 같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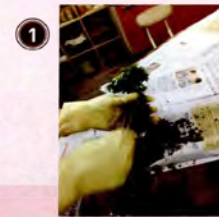
우선 철쭉 모종과 미니 짚레를 준비했다. 두 모종과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돌을 함께 심었는데 마치 제임스 본드섬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았다.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같은 철쭉이고 같은 화분이지만 돌 모양이나 돌의 크기, 높이에 따라 참 느낌이 달랐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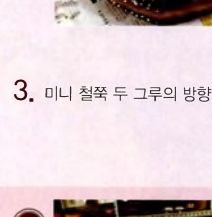
Step by step

전문가 따라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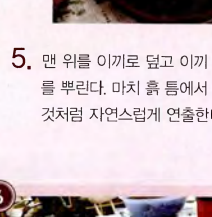
1. 화분에 심을 미니 철쭉과 미니 짚레를 아래 밑의 1/3은 잘라내고 둥글게 돌리면서 가위집을 위 아래로 낸 다음 흙을 털어낸다.



2. 화분 위에서 돌의 위치를 정한다. 돌의 개수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가 적당하다. 제일 굵은 마사토를 이용해 돌의 높낮이를 맞추고 돌을 고정시킨다.



4. 자신이 심고자 하는 방향이나 공간이 정해졌다면 중간 마사토로 식재한다.



5. 맨 위를 이끼로 덮고 이끼 위에 마사토를 뿌린다. 마치 흙 틈에서 이끼가 자란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6. 작은 화분 안에서 큰 돌과 나지막한 돌이 어우러져 자연의 풍경을 담아냈다. 아담하면서 아기자기한 분경이 완성됐다.

헌 가방으로 미니가든 만들기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라고 한다. 가든 디자인도 헌 가방을 이용해 완성해 보자. 손가방, 책가방, 여행용 가방, 쇼핑가방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방에 방수처리를 하고 배수층을 만들고 식물을 식재하여, 스탠딩이나 행잉가든으로 연출하면 실내나 실외 어디든 포인트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다.

Tip

관리법

표토가 마르면 관수하며, 배수판으로 배수층을 만들었으나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과다한 관수는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된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꽃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일조량이 필요하다. 실외에서 월동이 불가하며 실내 베란다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

준비물



푸테리스



익소라



엑사콜라블루



엑사콜라화이트



글루건



마사토



배수판



부직포



방수포



가방



상토



1. 가방에 방수포를 넣는다.



2. 방수포를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3. 방수포를 가방 크기에 맞게 자른다.



4. 배수판을 가방 밑바닥 크기에 맞춰 잘라 넣는다.



5. 방수포 위에 배수판을 깎는다.



6. 부직포를 가방 크기에 맞게 잘라 넣는다.



7.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든다.



8. 상토를 넣는다.



9. 엑사콜라블루를 포트 일부부분을 눌러 분리한다.



10. 엑사콜라블루를 식재한다.



11. 엑사콜라화이트 익소라 푸테리스를 식재한다.



12. 엑사콜라 사이사이 빈 틈이 없도록 상토로 채운다.



13. 흙 위에 마사토를 넣는다.



14. 가장자리의 부직포를 말아서 넣는다.



15. 완성작

보는 즐거움, 창작의 재미

압화공예

글·사진 이혜진(블로그 구름꽃압화 blog.naver.com/leecat88)



압화공예는 생화나 잎, 과일, 채소 등을 눌러 건조시킨 후, 건조된 꽃으로 액세서리, 가구, 액자, 작은 소품 등에 집목시켜 만드는 공예이다. 압화 공예를 하게 되면 꽃을 보는 즐거움과 창작의 재미가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창의력과 원예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꽃을 채집할 때

꽃을 말리기 전 채집을 할 때는 가장 싱싱하고 색이 선명하며, 변화가 다양한 꽃이 좋다. 생김새 또한 간단하고 꽃잎은 작은 꽃이 유리하다. 두께가 적당하고 수분이 적은 꽃이 압화로 활용하기에 좋다.

압화에 활용하기 좋은 꽃

코스모스, 수국, 루드베키아, 불두화, 라일락, 안개 등

화색에 따른 분류

노란색: 수선화, 기생초, 해바라기, 루드베키아

주황색: 하늘나리꽃, 주황코스모스, 능소화

빨간색: 장미, 버베나, 설령초

흰색: 안개, 불두화, 수국, 조팝

남색: 아리살, 비올라 등

꽃 건조시 알아두세요

1. 너무 두껍거나 수분이 많고 꽃잎의 개수가 많은 꽃과 잎은 말리지 않 된다. 수분이 많은 꽃은 말려보면 꽃색이 금방 변하기 때문이다.

2. 딸기, 키위, 금귤, 오렌지, 메론 껍질, 버섯, 양파 등과 같이 과일, 채소들도 말릴 수 있다.

3. 흰색 꽃은 바로 말리기도 하고 염색물감으로 물을 들어서 쓰기도 한다.

작약말리기

1. 건조시트 위에 꽃 배열종이를 올려준다. 건조시트는 여러 겹의 종이로 만들어진 압화 전용 시트지이다. 건조시트에 눌러야 말릴 꽃의 수분흡수가 잘되고, 깨끗하고 예쁘게 말려진다.

2. 건조시트 위에 채집한 작약 꽃과 잎을 놓고 꽃 배열종이와 건조시트로 다시 덮어준다. 꽃의 모양에 따라 뒤집거나 얼굴을 보게 배열해서 눌러주면 꽃의 생김새대로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고 눌러진다. 꽃 배열종이는 얇은 종이로 되어있는데, 꽃의 얼굴이나 꽃수술들이 상치 않게 하기 위해 꼭 덮어줘야 한다.

3. 건조시트와 꽃 배열종이로 꽃을 덮은 다음에 무거운 돌을 얹어 5~7일 정도 꽃이 말릴 때까지 돌로 눌러주고 따뜻한 곳에 둔다. 꽃을 말릴 때는 무거운 돌을 얹은 채로 따뜻한 곳(전기장판, 전기 팬넬)에 두고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4. 만약 수분감이 많이 있는 꽃이나 과일 채소 등을 눌렀을 때는 수분 때문에 찢게 되는 건조시트와 꽃 배열종이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갈아줘야 한다. 건조시트와 꽃 배열종이도 바삭 말린 채로 있어야 꽃들의 수분을 먹고 꽃이 종이처럼 말려진다. 꽃을 다 말린 다음에 건조시트와 꽃 배열종이도 따뜻한 곳에 두고 말려준다.

5. 5~7일 후의 말려진 꽃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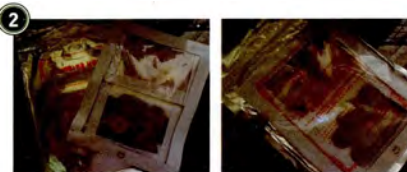
6. 건조가 잘 된 꽃을 만져보면 바삭하고 금방 부서질 듯이 꼭 종이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게 핀셋으로 조심하 만들어야 한다.



꽃을 말린 후 보관



1. 꽃 배열종이에 말린꽃을 넣고 종이를 꽃크기 만큼 접는다. 꽃들을 작업할 때나 언제든지 쓰기 좋게 하려면 종이에 담아서 보관해야 예쁘고 깨끗한 꽃을 쓸 수 있다.



2. 건조된 꽃을 보관할 때는 꽃 배열종이에 말린꽃들을 넣어서 지퍼가 달린 봉투에 건조제와 함께 넣어서 보관한다. 건조된 꽃을 쓸 때에는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말린꽃으로 작업을 할 때는 본드로 붙여주는 데 눈금만큼 작게 칠해서 붙여줘야 건조된 꽃이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선명하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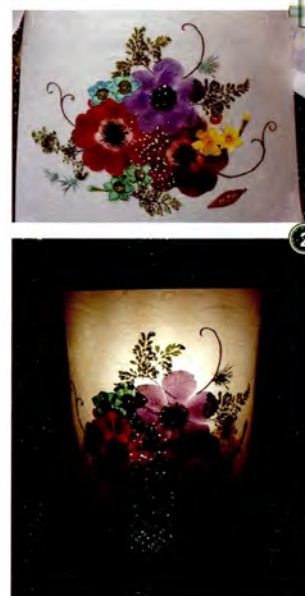
말린꽃으로 스탠드 만들기

1. 제일 먼저 한지로 된 판 위에 원하는 디자인을 배열해 준다.

2. 디자인 한 꽃을 핀셋으로 집어서 붙이는데, 이쑤시개로 본드를 묻혀 꽃 뒤(꽃받침 부분)에 눈금만큼 칠해 붙여준다. 본드를 아주 적게 칠해야 건조된 꽃이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꽃잎에 본드를 칠하면 칠한 부분의 꽃잎 색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꽃을 다 붙인 다음에는 한지 코팅을 해준다. 코팅할 때는 풀한지를 이용해서 매끄러운 부분을 밑으로 향한 다음 꽃 부분에 덮어 다리미로 다려서 붙여준다. 점차한지는 접착스티커로 되어있는데 스티커부분을 떼어내서 붙인다.

4. 스탠드에 디자인 한 판을 넣고 조립하면 완성된다.



사시사철 즐기는 아름다운

어린왕자의 장미, 보존화

글 정지는 기자

자료협조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이정아 박사

어린왕자가 사는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자라고 있다. 어린왕자의 유일한 친구이자 첫사랑인 장미는 그 별에 하나 밖에 없는 아름다운 꽃이다. 어린왕자는 이 장미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하며 정성과 노력을 들였다. 사시사철 왕자의 곁에 함께 한 존재는 다름 아닌 꽃이다.

형태와 질감, 3년이상 지속가능

이야기 속에서와 같이 정성을 다해 몇 해가 지나도 죽지 않는 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볼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적자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3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보존화'에 대한 얘기이다. 생화도 아니고 드라이 플라워도 아닌 이 꽃은 물을 주지 않아도 생화의 아름다움과 싱싱함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Preserved Flower로 부른다. 탈수용액에 꽃을 담가 24시간 동안 수분과 색소를 빼내고 특수 보존액에 담가 이틀만 담가 놓으면 생화와 똑같은 상태로 질감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시들지 않는 꽃은 각종 장식이나 부케 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색

예전에는 꽃을 감상하기 위해 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꽃의 형태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보존화' 기술이 만개한 지금은 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계절에 상관없이 곁에 두고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꽃향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일 년 내내 꽃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보존화에 향기를 입힌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보이는 기술이다. 보존화는 생화를 재료로 꽃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술이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장미, 카네이션 등 거의 모든 꽃에 적용할 수 있

다. 이정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는 "보존화는 생화를 가공한 것으로 말린꽃과는 달리 질감, 색상, 이미지를 생화와 같은 느낌으로 느낄 수 있다"며 "꽃 형태를 최대 3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꽃잎의 색은 검은색, 파란색 등 자연에서 볼 수 없는 모든 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싱싱한 꽃

보존화 기술은 크게 꽃의 수분을 빼주는 탈수 과정과 세포벽에 수분을 채워주는 보존 과정을 거친다. 꽃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를 지지하고 있는 세포벽 덕분이다. 세포벽은 수분이 가득 채우고 있다. 세포벽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면 꽃잎의 형태가 무너지면서 시들게 된다. 꽃에 물을 주지 않고 오래 놔두면 꽃잎이 말라 부스러지는 이유도 세포벽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다. 보존화 기술의 핵심은 바로 수분을 대체하는 물질을 만들어 세포벽에 넣어주는 것이다. 보통 세탁을 할 때 마지막에 넣어주는 유연제 성분을 사용한다. 유연제는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지 않으면서 세포벽에 오랫동안 남아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지지한다. 유연제가 수분처럼 액체로 만들어졌다. 수분과 색소가 빠진 꽃잎은 생기가 없고 하얀색을 띤다. 이를 다시 유연제와 염색약이 있는 보존용액에 담가두면 염색약과 유연제가 꽃잎으로 침투한다. 세포벽이 유연제로 가득 차게 되면 기존의 모양을 다시 찾아 꽃잎이 되살아난 것처럼 생기를 띠게 된다. 

보존화로 가공되는 대표적인 꽃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덴파레, 칼라, 작약 등

장미는 꽃의 여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꽃이다. 당연히 보존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사랑받는 꽃이다. 장미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상품화되었다. 이밖에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진 꽃들이 보존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보존화 작품들

반영구적으로 쓰이는 보존화는 각종 기념이나 이벤트에 적합하다. 본래 생화는 일주일 정도가 고작이지만 보존화는 형태가 그대로여서 언제나 추억이 빛바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보존화 작품들을 만나보자.



Tip

보존화 만드는 과정

집에서도 보존화 키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만들어보자

1. 생화는 꽃받침으로부터 줄기를 2~2.5cm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2. 준비된 꽃을 탈수 및 탈색 전용용액 1~2일 완전 침전시킨다.(탈수가 진행되면서 탈색도 함께 진행된다)
3. 탈수·탈색된 꽃을 꺼내어 빠르게 꽃에 묻어 있는 용액을 가볍게 털어낸다.
4. 보존 전용용액에 원하는 색깔의 염료를 넣은 뒤 1~2일간 침치시킨다.
5. 보존용액에서 침치가 끝난 꽃을 꺼내어 통풍이 잘되는 상온 실내 환경에서 5~7일간 건조시킨다.
6. 완성된 보존화



재료와 성질에 맞게 이용하자

컨테이너(Container)



식물을 키르기 위한 화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화분에 심어야 할까.

뿌리 생육을 위해 토양을 충분히 제공하고, 과다한 수분이 배수구멍을 통해 잘 빠져나간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을 것이다. 주석 통이든 통나무 손수레이든 그 어떤 형태라도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플랜터로서 이용가능하다.

자료: 화분 안에 담긴 정원(도서출판J&P)에서

최대한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하기

컨테이너의 환경은 인공적으로 조성된다. 이에 식물이 잘 자라는 자연환경과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들은 더위나 추위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검은색, 금속, 또는 최악의 경우 검은 금속의 컨테이너들은 열을 흡수하고 전도하여 식물의 뿌리가 높은 온도로 익어버릴 수 있다. 식물을 더운 지역에 배치하려면 두꺼운 돌, 목재 컨테이너 등을 사용한다.늘어지는 식물들은 인위적으로 측면을 그늘지게 하여 토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컨테이너를 흰색계열 색으로 칠하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금속



목재



석재



테라코타

식물 재배를 위한 다양한 컨테이너 재료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 목재

자연소재인 목재는 대부분의 식물 및 배경들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클래식한 컨테이너 형태인 우아한 베르사이유 박스와 전원적인 나무통 등은 목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용도의 컨테이너들이다. 이 자연적인 절연물은 추위에 잘 견디며, 심한 온도변화로부터 보호해준다. 테라코타와 달리 수분 보유력이 좋아서 빨리 마르지 않는다.

자연스런 질감과 긴 수명 - 석재

돌로 만든 컨테이너들은 매우 많다. 공공지역에 따라 색이 다양하다. 질감은 거칠게 깎여진 것부터 잘 다듬어진 것까지 다양하다. 돌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무거운 성질이 있으므로 1층 심기에 적합하다. 심을 때 무게감을 제공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식재에 적합하다. 석재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 없다. 마모가 오래될수록 질이 높아지는 재료이다. 전통적인 항아리 형태부터 현대적이면서 윤곽이 뚜렷한 모양까지 개조된 석재화분들은 굉장히 다양하며 이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볍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가능하다 - 테라코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운 흙, 즉 테라코타는 컨테이너 재료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양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크기, 모양, 가격 등도 매우 다양하다. 여러 장소와 상황에 잘 어울리며 대부분의 식재 계획에서 주요 요소로 이용된다. 어느 지역의 화분이나에 따라 얇은 황토색에서 짙은 적갈색까지 다양한 색의 화분들이 있다. 테라코타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 쓸수록 조류가 생기고 구멍이 있는 면으로부터 염류들이 용출되면서 색이 자연스레 변한다. 또 테라코타 화분들은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다. 테라코타 화분을 겨울 동안 실외에 두고 싶다면 추위에 잘 견디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시적 느낌 활용 - 금속과 모조 재료

금속은 아연도금, 광택 처리, 착색 처리 등과 같이 여러 기술들에 의해 다양한 현대적인 완성품들로 창조될 수가 있다. 강건하면서 추위에 견디는 금속 컨테이너들은 관리가 쉽다. 심을 때 닦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환경에 노출되면서 산화되어 본래의 외관을 잃기도 한다. 험하게 다룰 경우 긁히거나 자국이 남을 수 있다. 전통적인 금속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인조납과 같은 모조 금속 컨테이너들이 인기가 많다. 무독성인 반면 가볍고 녹이 슬지 않으며 실제 금속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도시적인 외관을 갖고 싶다면 아연도금이 적합하다. 아연도금은 처음에는 윤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트러진다. in

Tip

좋은 상태의 목재 유지

- 컨테이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또는 금속 깔판을 이용한다.
- 침엽수 목재는 처리하지 않으면 쉽게 썩기 때문에 본래 잘 썩지 않는 삼목으로 만든 것을 구입하도록 한다.
- 컨테이너를 습기 차는 땅에 직접 놓지 않는다.
- 지시물, 벽돌이나 기타 물들을 컨테이너 아래에 고정하여 수명이 오래 가면서 배수가 잘 되게 해준다.
- 자연적 방부제인 목재 색소를 처리하거나, 아마 기름을 발라 보호한다.

Tip

자연적인 내구성

- 요구르트나 액비를 화분에 바르면 이끼류 및 조류의 생육이 촉진되어 많은 모습을 더 빨리 볼 수가 있다. 돌은 내구성 있고 강건하며, 작은 구멍들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건조함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 컨테이너를 점검용의 다른 돌들과 함께 이용시 서로 보완이 가능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 예로 다듬어진 대리석은 거친 돌 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Tip

점토의관리

- 테라코타 화분들은 부서지거나 깨지기 쉽다. 추위에 견디는 종류를 구입하거나 실내에 들여놓는다.
- 심기 전에 화분을 물에 흠뻑 적신다. 테라코타 화분들은 다른 컨테이너들보다 통기성이 뛰어나므로 빨리 마른다.
- 빈 테라코타 화분들은 겨울 동안 뒤집거나 건조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 테라코타에 실어 오래 보존하고 싶다면 아가판서스 등과 같이 뿌리가 강인하면서 다육질이고 뚝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 유약 바른 테라코타 화분들은 물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쉽지만, 추위에 쉽게 손상 될 수 있다. 화분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에는 추가적으로 수분은 흡수하지 않도록 두꺼운 플라스틱 깔판을 안에 대도록 한다.

Tip

강철, 아연, 그리고 알루미늄

- 더운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금속 컨테이너들은 뿌리에 열을 전도해 빠르게 할 수가 있다.
- 컨테이너가 서 있는 자리가 착색이 되면서 부식된다면 흘러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접시가 있는지 배수된 물이 화분으로부터 잘 흘러가는지를 확인한다.



가을 정원의 풍취를 더하는 정원용 쏘라 램프

글 소순복 기자

들리는가. 가을이 오는 소리. 화성기를 틀어놓은 듯 도시 한복판을 시끄럽게 했던 매미의 울음소리가 어느 새 사라지고, 초저녁 가을 풀벌레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모시 적삼 속으로 비치는 여인의 속살처럼,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가을 정원에 초저녁 불이 밝혀졌다. 누군가 스위치를 켰 것도 아닌데, 붉게 물든 석양 아래서 새조롭히 빛을 낸다. 지난 여름밤에는 모기떼가 모여들고, 열대야를 부추긴다며 홀대를 받던 정원 램프이다. 그 램프가 단순히 계절만 바뀌었을 뿐인데, 가을 낭만을 완성시키는 소품으로 변했다.

정원용 램프 시장조사를 위해 양재동 꽃시장 정원용품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지 않았다. 판매 매장에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온라인 통신망의 발달은 사람을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 나쁜 습성을 가져다준 것 같다. 쉽게 가고 싶어졌다. 인터넷 시장 조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정원용 쏘라 램프를 검색하니 양재동 꽃시장에서 보았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에서 더 다양한 제품 검색 가능

정원용 램프는 태양열을 이용한 LED램프가 대부분이었고, 전기와 양초를 이용할 수 있는 램프 등이 있었다. 램프는 다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단순한 가로등과 동물모양을 한 테이블 램프가 많았다. 제조업체는 정원용 램프인 만큼 자연에서 사는 동물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시 검색했다. 정원용 램프가 아니라 단순히 '램프' 나 '정원등', '등' 과 같은 단어로 인터넷 검색

색을 해보니 훨씬 다양한 제품과 접할 수 있었다. 이미지도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정원용 램프가 대부분 중국산이었던 것에 반해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랬다. 정원용 램프라는 단어로 검색한 것이 보다 많은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던 것이다. 인터넷 구매시 단어를 단순화시켜 검색하는 것도 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신속히 찾아내는 지혜가 될 듯하다.

쏘라 램프, 경제적이고 친환경 조명

쏘라(solar - 태양광) 램프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부담이 없고 경제적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또한 배선공사가 필요 없어 설치가 용이하고, 수명이 길어 2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해 주면 된다는 것 역시 매력적이다. 쏘라 램프는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이 낮 동안 태양광을 받아 발전하여 밤에 자동으로 점등된다. 다시 날이 밝으면 소등되어 충전이 시작되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6~8시간 점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쏘라 램프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접광은 충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LED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개수에 따라 밝기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in**

태양열 편지요정등

재질 : 레진/플라스틱
규격 : 가로 12 X 세로 14 X 높이 38cm
빛깔 : 백색, 황색, 청색
제조 : 중국
가격 : 32,900원
특징 : 밤에도 편지를 전달하기 바쁜 난쟁이 요정이 동심을 자극하고 귀엽다.
판매처 : 켈시가든(www.csgardendeco.co.kr)



쏘라동물정원

쏘라달팽이
재질 : 플라스틱
규격 : 31 x 15 x 21cm
등 빛깔 : 황색등(몸체에 점등)
가격 : 50,000원
특징 : 귀여운 달팽이의 불빛이 은은하다. 보통 맑은 날 하루 충전하면 3일 밤 켜진다.
판매처 : 가든라이프(www.gardenlife.kr)



쏘라1단 꽃이형

재질 : 플라스틱
규격 : 16 X 16 X 45cm
빛깔 : 백색, 황색, 청색
제조 : 중국
가격 : 30,000원
특징 : 가장 일반적인 정원 쏘라 램프. 단순한 이미지가 오히려 깔끔한 실용 아이템이다.
판매처 : 가든라이프(www.gardenlife.kr)



LED 쏘라램프

재질 : 모자이크글라스
규격 : 가로 14 X 세로 14 X 높이 12cm
완충시간 : 8~10 시간
가격 : 29,800원(인터넷 최저가 기준)
특징 : 연인들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비춰줄 것 같은 조명. 다양한 색깔의 등이 있다.
제조 및 판매처 : 태인일렉콤(070-7730-7890~2)



쏘라 램프 사용시 이것만은 꼭!

- 태양광이 하루 종일 받는 곳, 즉 직사광선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 주변에 가로등이나 강한 빛을 내는 조명기가 있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어라.
-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 설치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ON 상태로 전환해 둔다.
- 태양빛을 잘 받는 위치에 있어도 스위치가 OFF 위치이면 충전이 안 된다.
- 중간에도 점등되면 모뎀 위에 낙엽이나 기타 흙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이 치워준다.
- 맑은 날 3시간 또는 3시간 미만으로 동작한 후 꺼질 경우, 충전지를 교체해준다.
- 약 2년 정도 사용하면 점등시간이 짧아지며 충전용 건전지를 교환해줘야 한다.

은은한 불빛 정원용 램프

전기가 태양광 이전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양초를 이용한 램프는 점점 기어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 전통의 멋으로 나만의 정원을 꾸미기 위한 소수 마니아층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도이다. 양초 램프에서도 숲 속 동물은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 양재 꽃시장에서 만난 정원용 양초 램프들을 모았다.

목조등

야외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걸어놓을 수 있도록 제조된 집 모형 목조등은 미국적인 멋이 돋보인다. 나무결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전해진다. 가격: 54,000원

숲속 동물 모형 등

동물친구들은 연못이나 실내 정원 한 켠에 놓으면 좋을 듯하다. 토끼와 오리새의 가격: 각각 2만원

철재등

철재로 된 실용적인 정원등 역시 흰색의 양초를 넣으니 단아함이 돋보인다.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가격: 48,000원





김치 맛이 일품

우리 토종 배추

글·사진 안완식 농학박사 (토종종자모임 씨드림 상임대표)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에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초순은 월동을 위한 늦가을 김장용 배추와 무씨를 파종하는 계절이다.

식량이 부족했던 몇 십 년 전만 해도 김장은 겨울의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 중의 하나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식량 걱정이 사라진 지금은 집에서 김장을 몇 백 포기씩 담가서 큰 김치독에 넣어 김치광에 저장하여 두고 겨우내 꺼내 먹는 집을 거의 볼 수 없다.

늦가을이 되면 그저 예로부터 해오던 습관이나 향수로 20~30 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가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겨우내 먹거나 김치 판매업체로부터 사서 먹는 것이 보통가정의 생활방식이 된 지금, 지난 날 김장때면 먹을 수 있었던 배추 꼬리 된장국의 그 구수한 맛을 잊은 지 오래다.

배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

배추의 원산지는 중국 북부지방이지만 그 기원은 지중해 연안이다. 북동부 터키의 고원이나 유럽의 보리밭 등지에서는 잡초성의 유채류(*B.campestris*)로 자란다. 지중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2,000년 이전에 중국에 전파되었다. 그후 7세기경 중국 북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던 순무와 중국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던 송(菘,

청경채 또는 소백채-*B.rapa* ssp.*chinensis*)이 자연 교잡되어 배추의 원시형이 나타났다. 그 후 이 원시형으로부터 재배와 선택 육성에 의해 16세기에 반결구배추, 18세기에 결구배추가 탄생되었다.

한국에는 다양한 지방 재래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3세기 중반에 처음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배추와 관련된 문자인 송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조의 중종 때(1533)와 선조 때에도 송채 종자가 중국으로부터 손질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종 배추에는 개성배추와 서울배추가 대표적이다. 서울배추는 조선왕실의 여제로 재배되어왔으며 결구하지 않고 통이 길다. 초세가 강하고 어느 때나 파종이 가능하여 서울 근교의 열갈이배추로 명성이 있었다.

그 외에 의성배추 등 불결구배추와 반결구배추로 지방에서 재배해오던 월동초, 하루나, 열갈이배추, 좀배추, 뿌리배추, 삼동추, 봄배추, 겨울초와 결구배추인 구역배추 등의 지방 재래종들이 있다. 1900년 초부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반결구 및 결구성 고정품종인 청방, 경도3호, 지부, 포두련과 반결구인 직예, 화심, 소동 등이 도입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우장춘 박사를 중심으로 무배추종자의 육종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세계에서 배추 신품종 육종 수출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

갯맛배추

갯맛배추는 2008년 씨드림 토종 수집단이 제주도에서 당시 84세의 할머니가 그 맛에 반하여 평생 재배해왔다는 토종배추를 수집하여 그 중에서 좋은 특성을 갖는 개체를 선발종인 품종이다. 화성의 한 토종농가에서는 올해도 5만 포기나 심으려고 모종을 준비했다.

색깔 : 토종배추로는 드문 결구배추로 내엽색이 연한 황백색이다. 잎은 녹색으로 중록(잎의 흰줄기)이 넓고 얇지 않으며 다소 오목하다. 맛 : 은은한 것 맛이 들어있어서 김치 맛이 매우 좋다. 염수는 많지 않고, 육질이 김치를 담으면 오래 두어도 씹히는 느낌이 시중의 품종들보다 아삭하다. 잘 변하지 않는 맛이 일품이다.

크기 : 긴 타원모양의 원통형 배추로서 중간 정도의 크기이며 각종 병에 비교적 강하다.



Check list



개성배추



서울배추



의성배추



의령수집종



의령수집종



조선훈배추



조선훈배추

배추의 종류

개성배추: 1900년대 초에 개성지방에서 재배되었던 배추품종으로 품질이 극히 좋았다고 한다. 서울배추보다 현저히 큰 반결구배추로 잎수가 서울배추보다 적고 최대 엽은 더 크며 내엽의 분화가 미약하다. 엽중의 중심이 제10엽 전후에 편중되어있다. 김장용으로 널리 재배하였는데 잎 가장자리는 굴곡이 심하고 종자는 형질이 우수해서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개성배추는 뿌리가 굵고 큰 편이어서 뿌리로 국을 끓여 먹기도 하였다.

서울배추: 반결구배추이며 잎 수는 적으나 엽중의 중심이 제20엽 전후이다. 초기발육은 왕성하나 내엽의 발육은 미미하다.

의성배추: 거의 결구가 되지 않으며 조선배추라고도 하고 뿌리가 커서 뿌리배추라고도 한다. 의성을 중리 한골마을에서 오래 재배되었다고 하여 '한골채'라고도 부른다. 의성군 춘산면 신흥3리 독점마을의 김병욱씨가 대물림하여 재배하고 있다. 잎 수가 적고 속잎의 발생이 늦다. 키가 커서 40~50cm정도나 자란다. 더위에 강해서 봄에 씨를 받아놓고 계속 뿌려 놓으면 아무 때나 뽑아 먹을 수 있다. 뿌리를 깎아 날로 먹기도 하고 국을 끓이면 맛이 좋다. 간혹 맥주집에서 안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배추꼬리가 아니고 순무 꼬리이다.

울산배추: 울산지방에서 수집한 토종배추이다. 줄기가 가늘고 불결구성이다.

고창수집종: 고창지방에서 수집된 토종배추이다. 배추의 줄기는 다소 넓고 반결구성이다.

의령수집종: 잎의 일부분에 파상 결각이 있으며 엽수가 적고 결구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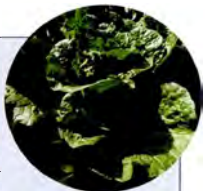
좀배추: 경남 산청지방에서 재배해 왔던 배추로 잎이 작고 동그란 모양이다.

조선훈배추: 경북 의성, 예천군 하리면 등지에서 재배해 왔으며 잎에는 결각이 심하고 계속 한 집에서 채종하여 심었기 때문에 퇴화한 모양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김장용 배추의 간이지장법

배추의 저장조건은 0~3℃의 저온과 상대습도 95%가 좋다.

- **노지에서 월동:** 남부 해안도시 지방에서는 배추를 신문지로 덮어 씌운 상태로 월동시켜서 2월 10일경 추대가 형성되기 전에 수확하여 저온 저장한다.
- **노지이랑식:** 80% 정도 결구된 배추를 좀 일찍이 수확하여 노지에 두고서 비닐이나 짚으로 가려서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움지장:** 너비 1m, 깊이 30~40cm로 길게 구덩이를 파고 결구를 제거한 배추를 뿌리째 캐서 심고, 그 위에 간단한 지붕을 만들어서 보온과 방수를 해주는 데 남부지방에서는 2~3월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 **밀봉저장:** 배추를 0.05mm PE 필름으로 밀봉 저장하면 저장성이 가장 좋아 3월까지 안전저장이 가능하다.
- **가정에서 소량 저장:** 결구를 제거하고서 2~3일 풍건시킨 배추를 신문지에 싸서 지하실이나 베란다 등 얼지 않을 정도의 저온 암소에 세워두면 상당한 기간 저장되며, PE필름으로 포장하여 0~10℃ 정도의 냉장고에 두면 오랫동안 저장이 된다.
- **소금 절임:** 김치용으로 많은 양을 오래 저장하려면 소금에 절여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포장하여 저온 저장한다.



김장채소, 관리만 잘해도 한해 농사 프로!

김장배추·무, 9월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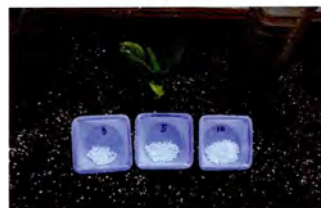
글·사진 정승한 기자
/ 자료_ DAUM 카페 '농사길잡이' 길잡이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성훈 농촌지도관)

8월말부터 텃밭의 하이라이트인 김장채소 스케줄이 시작됐다. 옥묘·정식하고, 모든 김장채소들의 초기 단계가 완성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김장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9월에는 모든 관심을 김장채소에 쏟아야 맛있는 김치가 완성된다. 농촌지도관 정성훈씨의 주말 도시농부와 텃밭가드너를 위한 관리 지침을 하달한다.



입추가 지나고 추석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기온이 30도를 웃돈다. 배추는 약간 서늘한 18~20℃가 생육이 좋은 온도이다. 겉구가 잘되는 온도는 15~18℃. 노지의 온도는 하늘이 맑아서 하겠지만 늦가을에 접어들면 기가막히게도 배추의 생육 온도가 유지된다.

김장배추는 모종을 정식하고 나서 웃거름을 주어야 하는 작물이다. 하지만 작은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사람들 특성은 비료를 안주려고 한다. 정성훈 지도관은 "배추는 비료를 주지 않게 되면 겉구가 잘 안 된다. 겉구가 안 된 배추는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측량계가 없으므로 가드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요소 양을 3g, 5g, 10g을 비교해 봤다.

웃거름, 배추 생육을 결정

그래서 웃거름(추비)은 필수. 정식 후 15~20일 간격을 3~4회 걸쳐 주는 것이 좋다. 웃거름 줄 때는 포기사이에 주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포기사이에 주는 이유는 뿌리에 주게 되면 농도가 갑자기 높아져 삼투압으로 인해 뿌리가 시들해지면서 죽게 되기 때문이다.

웃거름의 양은 보통 1,000㎡당 요소 35kg, 염화加里 22kg을 준다. 하지만 면적이 작은 텃밭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을 줘야 할지 막막하다. 그는 포기당 1회에 요소 5g, 염화加里 5g 내외씩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가 추천하는 추비 주는 방법은 본지 6월호에 게재한 대로 페트병 밑면을 비스듬히 잘라 비료를 담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간혹 배추 생육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다. 거름이 적거나 병충해에 의해 피해를 받을 때, 가



페트병을 이용한 웃거름 주기



Tip

상자로 재배하는 김장채소 물관리

물은 초기에 건조하지 않게만 준다. 화분 및 상자 재배로 김장채소 재배시 페트병을 이용해 점적관수를 하면 편리하다. 바닥을 절단한 생수병을 꽃고 물을 채우는 방법이다. 페트병을 이용한 점적관수는 본지 7월호 이달의 텃밭관리를 참고하면 된다.

물 등의 해를 입으면 잎이 작고 노랗게 된다. 병충해 피해를 받은 배추는 뿌리로 흡수하는 양분이 부족하고, 피해위에서 광합성이 떨어져 동화작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때 엽면시비가 필요하다. 요소 0.2%액(40g/물 20ℓ) 또는 4중 복비를 엽면시비하면 생육을 좋게 할 수 있다.

김장배추, 재배 초반에만 물 관리

속이 짙 찬 배추는 배추농사를 시작하는 가드너의 공통의 목표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물관리. 정식 후 김장배추의 물관리는 건조만 피하면 된다. 물이 과하게 되면 배추가 너무 커져 버린다. 특히 줄기의 하단 부분이 두툼해지고, 연하게 자라게 된다. 이런 배추는 맛이 없다. 또 배추가 물러질 수 있어 무름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만 물을 관리하고, 생육 후기에는 기상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보통 파종 후 45일경, 정식 후 20~25일경까지는 겉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흙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김장배추 재배 초기에는 병보다 충이 문제시 된다.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충으로 벼룩잎벌레, 배추줄나방, 배추청벌레 등이다. 이것들은 보통 어린묘에 피해를 많이 준다. 특히 벼룩잎벌레는 어린묘에 구멍을 뚫고, 식물체가 점점 자라면서 점차 커진다. 유충은 뿌리표면을 불규칙하게 가해 나중엔 후부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장채소 2인자 '무' 발관리

무의 경우 웃거름은 보통 2회를 준다. 처음은 파종 후 20일, 2회는 1차 후 20~30일에 주는데, 늦어도 수확 전 20일 전까지는 주어야 한다. 웃거름 주는 양은 1,000㎡당 요소 11kg, 염화加里 8kg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

텃밭 가드너라면 포기당 1회에 요소 2g, 염화加里 2g 내외씩 주면 된다고 한다. 무밭도 배추와

같이 생육상태를 확인하며 주는데 뿌리가까이 주지 말고,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는 것이 좋다. 무밭의 질소 성분이 생육 후기까지 많으면 바람들이 무(무 속이 비는 현상)가 발생하기 쉽다고 그는 말했다.



무의 재식거리는 이랑 넓이 60cm, 줄 간격 30cm, 포기사이 25~30cm이다.

무숙기, 무밭 관리의 즐거움

무는 속음작업이 필수다. 보통 한 구에 5알 내외를 파종해 자라는 대로 속아야 좋다. 줄뿌림이나 비닐 위에 점파하는데, 이론적으로는 3개씩 파종해서 10일마다 속아내면 된다. 처음에는 연약한 것을 속으면 되고, 본잎이 나오면 2~3개 남기고, 속으면 된다. 뽕뽕하게 심어진 무는 나중에 수확량과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속음작업은 무밭 관리의 백미. 무의 생육을 결정하지만 속음으로써 무칭을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작은 텃밭에서는 수확할 때까지 속으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무가 커지면 그냥 무국을 끓

여 먹어도 되고,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된다. 가을 김장용무, 봄무, 알타리무, 열무 등 다양한 무가 있지만 가을무가 열무보다 훨씬 맛있다고 한다. 특히 달랑무(알타리무)는 무 잎이 일반 김장무보다는 맛이 떨어진다.

무밭 병충해는 초기 관리가 중요

무밭의 물관리는 배추관리와 비슷하다. 파종 후 초기 한 달 동안의 물관리가 중요하다. 모래가 많은 사질토라면 비닐멀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태풍 등으로 비가 많이 온다면 배수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무밭에 발생하는 병충해는 노균병, 세균성 흑반병과 진딧물, 벼룩잎벌레, 배추흰나비(청벌레)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이 발생하면 방제가 쉽지 않으니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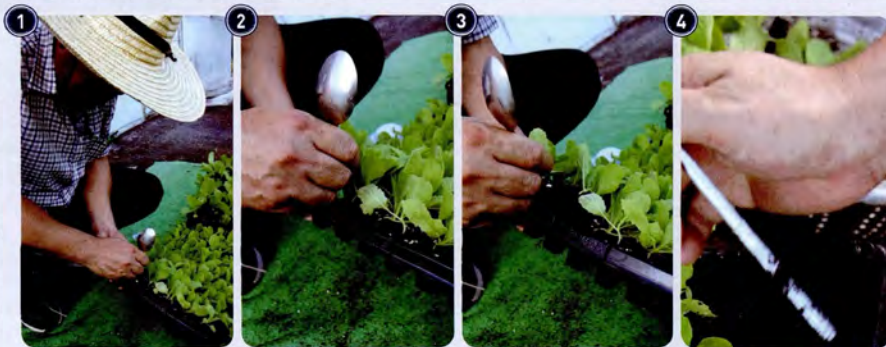
충해 예방을 위해 한랭사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그는 "꼭파는 늦어도 9월 5일 전후에 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How to

길잡이 테크닉 모종 쉽게 빼기



트레이에 모종을 빼기 위해 숟가락을 준비한다. 첫가락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숟가락을 모종이 꽃인 트레이 면사일로 숟가락을 꽂는다.

지렛대 원리로 숟가락을 살짝 들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뿌리 엉킴이 잘 형성된 모종일수록 모종 빼기는 더욱 쉽다.

Check list



김장배추밭 관리

웃거름 주기

- 웃거름은 정식 후 15~20일 경 간격으로 3~4회
- 웃거름 양은 1,000㎡당 요소 35kg, 염화加里 22kg
- 웃거름 주는 횟수는 1회는 요소만, 2~3회는 NK복합비료 10g씩 준다.
- ※ 텃밭농사에서는 포기당 1회에 요소 5g, 염화加里 5g 내외씩 준다.
(단 염화加里는 2~3회 웃거름부터 준다.)

중간 관리

- 생육 불량시 요소 0.2%(40g/물20L), 또는 4종 복비를 엽면시비한다.
- 물관리는 초반에는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후반부에는 적게 준다.
- 잡초제거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 준다.

병충해 방제

- 김장배추는 초기에 병보다 충이 문제된다.
- 초기에 벼룩잎벌레, 배추좀나방, 배추청벌레 등이 심함. 적용약제를 발생 초기에 뿌린다.

무밭관리

웃거름 주기

- 무는 총 2회 준다. 1차는 정식 후 20일, 2차는 1차 후 20~30일 준다.
(최종은 수확 전 20일 전까지 준다.)
- 웃거름은 뿌리 가까이 주지 않는다.
(1회는 포기사이, 2회는 중앙에 준다.)
- 웃거름 주는 양은 1,000㎡당 요소 11kg, 염화加里 8kg를 준다.
- ※ 텃밭농사에는 포기당 1회에 요소 2g, 염화加里 2g 내외씩 주면 된다.



양념채소 파종 및 관리 (8월호 이달의 텃밭관리 참고)

알타리무

- 파종은 9월 5일~10일이 적당하다.
너무 일찍 심으면 무가 커지므로 파종 시기를 확인한다.
- 파종은 줄뿌림으로 하고 포기 사이 15~20cm의 재식거리 유지.
산파보다 속을 작업, 제초 작업 등이 편리하다.

꼭파

- 너무 늦으면 수량이 떨어지므로 9월 5일 전후에 심는 것을 추천한다.

갯

- 갯의 수확 적기는 파종 후 50~60일, 김장 시기에 맞춰 9월 10일 전후가 좋다.
- 재식거리는 품종에 따라 다르다. 산파를 하거나 10cm로 줄뿌림 한다.



400년 전통의 차례

학봉 김성일 종가

자료·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종갓집 마당이 들썩인다. 추석을 맞아 후손들이 모여들고, 400년 전통의 제례가 이뤄진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뿌리내린 화목들처럼, 종갓집 마당에서는 그 가문의 맥을 잇는 제례가 치러진다. 제례는 후손들이 하나로 만나는 장치이자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시간. 학봉 김성일 종가는 수백년 그 전통을 유장하게 이어가고 있다. 조상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후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봉 종가의 추석 풍경은 많은 느낌표로 다가온다.



불천위 제사보다 간소한 상차림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위치한 학봉 김성일 종가. 퇴계의 뒤를 잇는 대유학자 학봉 종가의 제례 음식은 가짓수가 많은 만큼 손도 많이 간다. 그러나 추석 차례상은 약식 제사라 불천위 제사보다 간단하다. 사과 밤 대추 배가 올라가고, 시절과일인 포도가 추가된 정도이다.

대물림되는 종부의 아무진 손끝

수백년 이어오면서 종가의 아무진 손끝도 대물림된다. 차례 음식은 물론 모든 음식은 종부의 손을 거치는데, 호박송편은 학봉 종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이 종가에서는 일반 송편 외에도 호박과 쑥, 3가지 송편을 기본으로 빚는다. 기계로 찍어내는 송편을 돈 주고 사는 문화

가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종갓집은 예외이다. 햇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는다. 가마솥에서 갓 찌낸 송편은 직후 기름을 발라야 빛깔도 좋고 구수한 제 맛을 낼 수 있다. 윤기가 반지르르하고 섯노란 빛깔이 군침을 돋게 한다. 차례상에서는 시루떡을 반듯하게 잘라 편을 고이고 3가지 송편을 쌓아 올린다.

김성일 (金誠一, 1538년~1593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의성, 호는 학봉(鶴峰), 자는 사순(士純)이다. 퇴계 이황의 제자. 시호는 문충공 서예 류성룡과 함께 퇴계의 학문을 이어받은 수제자로 임진왜란 때 초유사로 순절하였다. 안동에 자리한 학봉종택은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의 전형으로 유명하다.



군자는 날 음식을 좋아한다

제상에 올리는 어묵은 눈이 맑고 싱싱한 것으로 준비한다. 차례 준비를 하는 데에는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생선을 씻고 다듬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다. 안동에서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올린다. 군자는 날 음식을 좋아한다는 군자혈식에 입각한 것. 고기를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것을 도적이라 하는데, 도적에 들어가는 것은 5종류이다. 이 역시 순서와 절차가 있다. 바다에서 나는 비늘 달린 물고기 위에 닭고기를 올려 육해공의 모든 음식을 준비한다. 닭은 봉황을 상징한다.

차례는 사당에서, 6벌의 상 준비

사당은 조상을 뵈고 교류하는 곳,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다. 학봉 종가의 사당에는 5대 조상이 모셔져 있다. 차례상은 6벌을 준비한다. 차례상 한 가운데 도적과 송편을 올린다. 설날의 떡국 대신 송편을 올린다. 상차림과 마찬가지로 차례 순서도 간단하다. 향을 피우고 모사그릇에 모주하여 강신례를 행한다. 이어 축문 낭독 없이 각 신위마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집사자는 수저를 송편위에 올리는 삼시정저를 한다. 종손은 향을 두 번 올리고 헌작례를 마친다. 종손도 사당 밖으로 나와 예를 갖춘다. 이어 수저를 내리고 사신제배한다. 신주를 감실에 모시면 추석 차례는 끝이 난다. [in](#)

종가(宗家)에 대한 이해

■ 최근 종가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종가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형성되어 40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고유의 씨족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가족제도이다.

■ 슬로푸드 열풍으로 종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가 음식은 각 집안의 전통과 종부의 솜씨, 그리고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유산이다.

■ 종부는 종가의 만여느리로서 대를 잇고 가문을 지키며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가문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로, 종부가 세상을 떠면 종손과 마찬가지로 족친들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슬픔을 표현한다.

종가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종가음식은 집안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꾸민다?

⇒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최고의 음식을 준비, 평상시에는 소박한 음식을 즐긴다.

■ 종가음식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현대인의 입맛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전적인 음식이다?

⇒ 슬로푸드의 정신이 잘 담긴 음식 문화로,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 발전하여 현대인의 입맛도 충족시킨다.

Special theme II 마당에서 키운 과수로 차례상 준비하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릴 적 그 마당만큼만...

빛바랜 어릴 적 기억속의 마당은 풍성하다. 탕자나무와 채송화 꽃이 가득하고, 담 울타리를 훌쩍 넘어 행인들에게까지 얼굴을 내밀던 장미넝쿨, 가을이 되면 키 작은 국화꽃이 향기로 풍성함을 더해준던 곳, 비단 마당 풍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꽃뿐이던가,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가 버거운 듯 축 몸을 늘어뜨린 대추나무는 마치 아이들의 팔 높이에 맞춰주려는 듯 한껏 키를 낮춰주고 있다. 그에 반해 가을 창고를 배경삼아 하늘 높은 곳에서 우뚝 서있던 감나무는 까치밥까지 제공하는 후한 인심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주렁주렁 풍성했던
옛 마당을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넉넉한 자연의 품이었던 마당은 세월과 함께 퇴색했다. 잘 다듬어지고 정돈된 깨끗한 마당. 방문객들은 옷매무새부터 재단장을 해야 할 듯 하고, 웅당 같은 잔디 정원은 신발을 벗어야 할 듯 하다. 눈은 즐겁지만,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원이 지금의 현대 정원이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마당에서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마당에서 키운 대추와 감으로
차례상 준비

서두가 길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에는 마당에 나무 한그루 심자고 겁 없는 제안을 한다. 마침 추석 특석 기사를 준비하면서, 마당에서 키운 과수로 차례상을 차린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묘목을 심는다 해서 바로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고의 시간 뒤 마당에서 제수까지 마련한다면 기쁨도 두 배, 그만큼 살도 넉넉해지지 않을까. 급한 마음에 증모상에 달려가도 지금은 묘목을 심는 적기가 아니다. 묘목은 봄과 가을에 심는 것이 좋다 하니 좀 더 참았다가 만추 즈음 구입해 심어야 한다. 대추와 감나무 식재는 잊혀져가는 시골 감성은 물론 풍경까지, 그리고 주전부리까지 챙겨주는 훌륭한 가을 선물이 될 것이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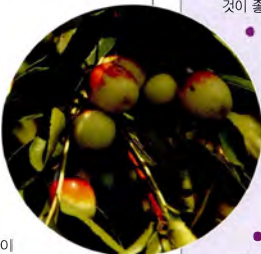
봄도 두 배, 그만큼 살도 넉넉해지지 않을까. 급한 마음에 증모상에 달려가도 지금은 묘목을 심는 적기가 아니다. 묘목은 봄과 가을에 심는 것이 좋다 하니 좀 더 참았다가 만추 즈음 구입해 심어야 한다. 대추와 감나무 식재는 잊혀져가는 시골 감성은 물론 풍경까지, 그리고 주전부리까지 챙겨주는 훌륭한 가을 선물이 될 것이다. in

대추

학명 :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원산지 : 한국
크기와 나비 : 크기 7~8cm
꽃색깔 : 연녹색
개화시기 : 6 ~ 7월
꽃말 : 처음 만남
파종 및 수확시기 : 수확 9월 상순 ~ 10월 하순

재배 포인트

토양이 비옥하고 통기성이 좋아야 뿌리가 깊고 넓게 뻗을 수 있다. 심는 시기는 가을 잎이 떨어진 후부터 봄에 심는다. 심는 구멍이는 토양조건에 따라 차이를 둔다. 배수가 잘되는 땅은 폭 60cm, 깊이 60cm로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넣은 후 심는다. 배수가 안 되는 땅은 구덩이를 낮게 파서 나무를 올려 심는 것이 좋다. 대추나무는 수관 하부에 많이 발생되어 있는 작은 가지를 그대로 때어내어 묘목으로 이용할 경우 빗자루병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가급적 전문 묘목상에서 점목묘를 구입하여 심도록 한다.



Tip

좋은 대추 고르는 법

- 색이 선명하며, 알이 굵고 주름의 모양이 고르게 잡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 대추를 고르는 법이다.
- 대추가 주름진 부분이 불규칙적이며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는 것은 벌레 먹어 낙하한 대추이다.
- 대추를 잡아 보았을 때 찢듯한 느낌이 있고, 탄력이 없으며 푸석하게 느껴진다면 좋은 대추가 아니다.
- 전체적으로 탱글한 모양으로 단형이 나면 좋은 대추이다.

국산 대추 VS 수입산 고르는 법

- 국산 대추는 꼭지가 대부분 붙어 있고, 대추 표면에 마모 흔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먹어보면 씨와 잘 분리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수입산 대추는 꼭지가 대부분 붙어 있지 않으며 대추를 쥐고 흔들어서 씨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국산과 반대로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있으며 먹어보면 씨와 쉽게 분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료 : 먹거리연구소(<http://cafe.naver.com/cleanfoodlab>)

감나무

학명 : *Diospyros kaki* THUNB.
원산지 : 한국
크기와 나비 : 크기 10~15cm
꽃색깔 : 담황색
개화시기 : 5 ~ 6월
꽃말 : 경의, 자애, 소박
파종 및 수확시기 : 파종 봄 (3월 하순~4월 상순), 가을 (11월~12월 중순), 수확 9월 ~ 10월



감나무의 속명은 'Diospyros' 인데 'dios' 는 '신', 'Pyros' 는 '곡물' 이란 뜻으로 서양에서 '과실의 신' 이라 불린다. 감나무의 묘목을 심는 시기는 남부 지방은 가을에, 중부 이북지방은 동해를 임는 경우가 있으므로 봄에 심는 것이 좋다. 묘목은 뿌리가 상하지 않게 구덩이를 되도록 크게 파며, 깊게 심는 것보다 얇게 심는 것이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양호하다. 어린 감나무는 뿌리가 약하므로 받침대를 세워 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며 비료도 뿌리에 직접 덜지 않도록 한다.

Tip

맛있는 감 고르는 법

- 꼭지부분이 찢고러져 있는 것은 맛이 별로 없다.
- 머리 부분이 모양새 좋게 쭉 빠진 것이 씨가 박혀 있어 맛이 좋다.
- 머리 부분이 들어간 단감은 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맛이 떨어진다.
- 크기가 167g 이상이며, 과실 상단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보아 가로, 세로가 비슷한 직사각의 형태를 갖춘 것이 좋은 감이다.
- 전체적으로 모양이 고르고, 꼭지부분이 깨끗하여야 한다.
- 과실의 위아래가 같은 색깔이어야 하고, 만졌을 때 단단해야 한다.
- 병충해와 흠집이 없고 윤기가 있다.

Tip

추석 상차림 '조율이시' 의 맛있는 TIP

맛있는 밤 고르는 법

- 밤의 알이 굵으며 껍질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것.
- 밤의 위쪽 끝에 흰털이 나있는 것이 맛있는 밤이다.
- 밤의 두께가 얇은 것보다는 통통하며 통그스름한 것이 맛이 좋다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

- 과피의 착색이 고르고 밝은 노란색을 주는 것.
- 과실 꼭지가 푸른색이 돌고 윤기가 있는 것.
- 사과를 가볍게 두들겼을 때 땀방한 소리가 나는 것.
- 너무 크면 저장성이 떨어지고 맛이 싱거울 편이다.
- 중간 크기의 사과가 맛이 좋고 저장성이 우수하다. 육질도 단단하여 먹을 때 느낌이 좋다.
- 과피 표면은 다소 거칠어 좋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약간 검은 건강한 색을 띠는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 : 사과농장 숲속의 아침(<http://blog.naver.com/ptg536>)

맛있는 배 고르는 법

- 당도 높고 맛이 좋은 품종을 고르는 게 좋다.
- 배가 클수록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과즙도 많다.
- 과피 색깔이 맑고 투명한 것.
- 신고배는 고온 황갈색으로 푸른기가 없이 투명한 것이 좋다.
- 친환경 품질 인증마크가 있는 것.
- 배는 저장할 때 사과와 같이 저장하게 되면 더욱 빨리 노화된다.

자료 : 껍질째 먹는 배 하늘정원 (<http://cjj1307.blog.me>)



Special theme III 재미있는 차례 음식 이야기



한자성어를 알면 추석 상차림이 보인다

추석 상차림을 하려는데 낯선 한자어가 왜 이리 많을까. 상차림하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다.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 했으니 들들은 척 아는 척, 무언의 판 짓을 해보지만, 상차림 앞에서 난무하는 한자성어들이 야속하다.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군가 묻는다. “추석 차례상이라 했는데 차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습관처럼 내뱉은 단어, 순간 머뭇거리게 된다. 차례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진설, 흥동백서, 조율이시 등 그것들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나마 7080세대들은 교육과정 속에 한자수업이 있었으니 낫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눈치껏 아는 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능중심의 90세대 이후는 한자 실력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 풍성한 명절 차례상과 대조를 이룬다. 이번 추석에는 숨지 말고, ‘아는 체’ 좀 해보자. ‘차례’부터 알아보면,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법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차례 상차림 ‘고유의 표준은 없다’

추석 상차림은 가가례(家加禮)하여 같은 형제끼리도 진설방법이 다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임형진씨는 “차례상의 기본이 되는 표준은 없다”며 “상차림에는 원칙과 예의가 함께 공존한다”고 말한다. 각 지역마다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통을 따르며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명절 때만 되면 나이드신 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전통 상차림법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속출해 난감하다고 한다.

다만 차례상은 5월로 차리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의 순서를 의미한다. 첫째 줄은

과일, 둘째 줄은 나물과 채소, 셋째 줄에는 전과 적을, 넷째 줄에는 탕을, 다섯째 줄에는 밥과 국을 진설(陳設)한다. 여기서 진설이란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는 것을 말한다.

조상의 지혜, 상차림에는 의미와 이유 있다.

첫째 줄의 과일은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槲栗梨柿)’ 순으로 올린다. ‘홍동백서’는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둔다는 것. ‘조율’이시’는 대추, 밤, 배, 감의 4가지 과일은 차례상에 꼭 올려야 된다고 한다.

대추는 꽃 하나가 피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뜻으로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밤은 현재의 나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감은 감 심은 데에 감이 절대로 나지 않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감 씨를 심으면 고을이라는 작고 뿔은 열매만 열리고 감은 열리지 않는다. 고을이 열린 나무에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야지만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반서갱동, 산자와 죽은자 세계의 다름을 표현

차례상에 올리는 생선은 ‘두동미서(頭東尾西)’,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방향으로 올린다. 동쪽은 해가 뜨는 양의 방향으로 소생과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를 두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암흑과 소멸을 뜻하기 때문에 꼬리를 둔다고 한다.

마지막 줄인 밥과 국은 ‘반서갱동(飯西羹東)’. 밥은 서쪽, 국은 동쪽에 둔다. 이는 평생시 우리가 먹는 밥상차림과는 반대인데,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다름을 의미한다. **in**

자료 : 농촌진흥청

Special theme IV 저칼로리로 명절 음식 만들기



추석 음식이 훌쩍하다

추석이 지나면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 명절중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조차 얼굴이 좋아지는 아 이러한 대한민국 명절, 바로 기름에 튀기고 볶은 음식들 때문일 텐데, 이번 추석만큼은 제발 그런 소리는 피하자. 재료나 조리법을 조금만 신경 쓰면 훌쩍한 명절 음식이 된다 한다. 농촌진흥청이 제안하는 저칼로리 명절 음식 만드는 법, 그대로라면 칼로리가 200kcal 이상인 밥 한그릇 열량이 준다.

흰쌀 송편 대신 썩송편, 검정콩 소로

송편은 추석 명절의 대표음식. 맷살가루로만 반죽해 만든 흰쌀송편보다 썩(또는 모시밀 등)을 첨가해 만든 썩송편의 경우 약 9% 정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송편에 넣는 소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진다. 송편 소로 깨와 꿀(100g당 212kcal) 대신에 검정콩(197kcal)이나 팥(203kcal)을 넣으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쇠고기무국은 양지 대신 사태로...

탕류는 지역에 따라 재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쇠고기무국이나 토란국을 올리는데, 재료 중 쇠고기를 양지 부위 대신 사태로 바꾸면 약 10%(1회 분량당)의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전은 3종류 이하로 줄이고 동태, 호박, 화양적으로...

전류로는 동태전, 돼지고기 완자전, 녹두빈대떡, 호박전, 화양전 등이 주로 차례상에 올려지는데, 우선 차례상에 올리는 전류는 3종류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삼색전으로 동태전, 돼지고기 완자전, 녹두빈대떡을 하면 총 572kcal 높은 열량을 내지만 동태전, 호박전, 화양적으로 하면 총 484kcal로 약 15% 줄일 수 있다.

나물은 볶는 대신 무침으로...

나물류는 기름에 볶을 때 칼로리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름에 볶는 대신 무침으로 조리법을 바꾸면 칼로리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고사리나물의 경우 기름에 볶을 때(1회 분량 88g당 56kcal)와 무침 시(39kcal) 약 30%의 칼로리 차이가 난다.

튀김 대신 찜으로...

이밖에 생선구이 튀김이나 채소 튀김 등도 조리 시 기름에 굽는 대신 찜이나 전 요리로 대체하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in**

자료 : 농촌진흥청



토마토와 붉은 고추를 곁들인 터키식 가지 동그랑땡

Turkish Eggplant Meatball

글·사진 윤지영 (요리연구가)

9월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있는 달이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전과 부침, 각종 나물 등이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꼭 똑같은 전통음식만 먹을 이유는 없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색다른 별미를 맛보는 것도 명절의 큰 즐거움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동그랑땡과 비슷한 터키요리 '괴프테'를 인용해 토마토와 가지를 곁들인 이색 동그랑땡을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재료

1. 가지를 얇고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하고 잘 익은 토마토의 속을 파낸 뒤, 뒷부분을 잘라 뚜껑으로 사용한다.
2. 텃밭의 고추가 벌써 붉게 익었다. 붉은 고추와 청고추, 그리고 당근과 양파를 적당히 채 썰어 준비한다.
3. 돼지고기와 소고기 다진 고기를 반반 섞어서 소금하고 후추만 약간 넣고 버무린다. 상식한 야채들을 함께 버무릴 것이므로 양념보다는 자연의 맛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4. 오이와 토마토, 레몬즙, 올리브유, 치즈 등을 샐러드 재료로 준비한다.

+

2



1. 소금, 후추 양념과 버무려진 다진 고기를 일정 정도 숙성시킨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괜찮고 취향에 따라 오리고기나 닭고기 혹은 특별하게 칠면조 고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숙성된 다진 고기에 다진 양파와 당근, 계란을 넣는다.

2. 계란과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점성도를 주기 위해 빵가루를 약간 넣고 반죽을 한다.

3

3. 찰지게 반죽이 되면 먹기 좋게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는다. 동그랗고 작은 모양도 괜찮지만, 가지를 둘러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사각형에 약간 큰 크기가 좋다.

4. 준비한 가지로 버무린 고기를 감싼다.

3



4



5



6



5. 썰은 가지 두 장을 십자형태로 엇갈리게 두 번 감싼 후 아주ши개로 찍어 고정시킨다.

6. 토마토 속을 비운 후 고기를 채워 넣고 빵가루를 약간 얹는다. 오븐에 넣고 200도 정도에서 20분간 구워준다. 집에서 기른 토마토가 작은 방울토마토라면 이 요리는 생략하고 미트볼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미트볼 특유의 펄펄하고 느끼한 맛을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 중화시켜준다. 이때 토마토는 살짝 익혀 주는 게 미트볼의 맛과 잘 어울린다.

7

7. 오븐에서 고기가 익을 때 준비한 샐러드 재료들을 섞어서 아라비아식 샐러드를 만든다. 레몬즙과 소금, 후추 약간, 올리브유를 섞어준다. 취향에 따라 치즈를 넣어도 되고 다른 양념을 넣어도 된다.

8. 오븐에서 적당히 익으면 완성. 완성된 미트볼을 익은 토마토, 아라비아식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한 접시에 올린다. 1인분에 미트볼 2개와 토마토 1개(방울토마토는 3~4개), 샐러드 약간 정도면 적당하다. [in](#)

7



8





정원을 꿈 꾸는 사람들

전통을 이은 정원 남순희氏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나이의 숫자만큼 멀어지는 추억이 그리움의 크기로 되돌아 오면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아쉬움 속에, 예전의 물건들은 시간을 멈춰 그 시간을 지키며 수호하는 듯 하다.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

남순희(60)씨 역은 진접 신도시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대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면 요즘 보기가 드문 흙 길이 꼬불꼬불 꽃길과 함께 나 있다. 오래된 돌담을 돌면 소나무, 향나무, 주목이 고풍스럽게 식재되어 있는 전통한옥대문이 집성촌 중 갖잡다운 위엄으로 숙연하게 만든다. 남순희씨댁의 정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선대에서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정원은 시간의 흐름만큼 정원의 역사가 보여지는 듯 하다. 약 8,300㎡ (2500평)에 안뜰, 뒤뜰, 잔디정원과 연못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먼저 전통한옥 대문을 들어서면서 보이는 안뜰은 한옥이 'ㄷ'자로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든다. 또 여기저기 선대의 손때가 묻은 소품과 과목은 아련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작두평프가 있는 수돗가 옆으로, 이끼가 목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향나무, 철쭉, 주목, 수국 등이 식재되어 있고, 상사화, 봉선화, 나리, 후룩스 등이 여름을 이기며 피어 있다. 또 한옥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뜰과 뒤뜰

이 다른 모습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 안뜰에서 나오면 방앗간을 사이에 두고 화양목과 봉선화를 군락으로 식재한 동선이 뒤뜰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뒤뜰엔 강 돌로 담을 쌓아 토굴을 만들었다. 토굴 주위로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고, 장독대를 만들어 안뜰보다는 조금 현대적인 정원이지만 옛것을 담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뒤뜰은 선대에서 조성한 안뜰과 주인장이 조성한 잔디 정원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교량적 의미의 정원이라고 한다.

장독대 뒤로 능소화가 덮인 담을 끼고 돌면 넓은 잔디와 함께 화단을 조성한 정원이 있다. 선대에는 과수원 자리였던 곳에 큰 길이 나면서 조성하게 된 잔디 정원은 돌 화단을 쌓고 식물을 식재해 동양적이면서 현대화된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잔디 외곽으로 밤나무, 배롱나무, 꽃봉숭아, 수양벚나무, 수양매화, 수양단풍, 보리수, 공작단풍, 조팝 등과 화단을 만들어 황철쭉, 철쭉, 맨드라미, 봉선화, 차조기, 마가렛, 풍점초, 장미, 비비추, 원추리, 아이리스 등이 식재되어 있다.

잔디 정원은 사계절 꽃이 지지 않게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긴 장마와 한여름의 더위에도 제 각각의 색으로 자태를 뽐내며 피어 있다. 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잎이 화려한 차조기나 향암초 등의 수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한다. 이런 수종은 매년 따로 식재할 필요 없이 씨앗이 떨어져 이듬해에 더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또 손이 별로 가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정원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한다.

신선이 되는 연못 선화연

대문 앞 길 옆에 조성된 연못은 입구에서부터 청량한 물 소리가 선화연이라는 현판을 더욱 신비하게 만든다. 그 위로 등나무 덩굴이 단조철문을 타고 길게 늘어져 있다. 문을 지나 방부목의 구름다리를 건너면 인동 꽃이 아치를 감싸며 단아하게 피어 있다.

연못으로 들어서면 동양화를 보는 듯한 팔각정자와 돌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누운 소나무와 수련이 있다. 연못 주변으로 두 개의 돌레일이 조성되어 있다. 첫 번째 돌레일은 연못 가





까운 곳에 길을 내어 밤나무, 무궁화, 백당, 붓꽃, 상사화, 맥문동, 꽃잔디 등을 식재하여, 연못을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두 번째 돌레길은 첫 번째 돌레길 옆으로 돌을 쌓고 주변으로 키 큰 소나무, 향나무, 밤나무, 철쭉 등을 식재해 병풍을 두른 듯한 느낌으로 연못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한다. 돌레길의 잡초 관리가 쉽지 않아 길 위로 부직포를 깔아서 제초 작업을 대신한다고 한다.

선대에 조성하였다는 연못은, 15년 전 수해로 다시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이 조성하면서 시행착오로 많은 공부가 된 것이다. 돌로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는 잉어들이 폐사하여 돌에도 세척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물은 순환해야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계곡물을 수로로 만들어 연못으로 유입시키고 수문을 만들어 유입량을 조절하고, 연못 주변으로 수위에 맞춰 여러 개의 하수관을 만들어 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물 관리 덕분에 현재에는 많은 양의 잉어들이 연못에서 살고있다. 풍부한 먹이 때문인지 원앙이 동지를 틀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많은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큰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고인 끝에 낚시 줄을 연못 위로 일정 간격으로 쳐서 큰 새들을 접근을 막는다고 한다. 낚시 줄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큰 새만 잡지 못하게 해서 효과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번식으로 식물을 다양하게

정원 곳곳에 능수벚나무, 능수매화나무, 능수단풍나무 등의 능수형 나무들이 눈길을 잡는다. 남씨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유난히 나무 욕심이 많아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원하던 희귀한 능수형 나무를 사고 나면 너무 행복합니다"라며 능수형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늘어진 가지의 움직임이 역동적이어서 정원이 살아있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접목에도 관심을 두고 여러 종류의 나무로 능수형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능수형 수종들과 희귀 수종들을 삼목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그는 매년 씨를 받거나 새로 심어줘야 하는 일년초 보다는 우세하고 번식이 잘 되는 숙근초 위주의 식재로 보다 쉽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상사화 같은 구근 식물은 번식이 잘 되어 꽃이 지고 나면 채집하여 다른 곳으로 분산 식재하기도 한다고 한다.

나가 아닌 우리로

점점 민가로 파고드는 공장들의 신축은 주인공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신도시의 경계선이 마을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물림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건해진 듯하다. 비단 주인공뿐만 아니라 집성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옛 것을 버리고 신도시로 나가던 예전과는 달리 집성촌으로 되돌아 와서 터를 잡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이들이 뛰고 웃는 소리도 끈이지 않는 생기가 있는 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물림터를 지키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염원이 정원과 연못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정원과 연못을 개방하여 나보다는 우리의 쉼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주인공의 말에 세상은 참 실망한 곳이란 생각이 든다. in



산수국 삼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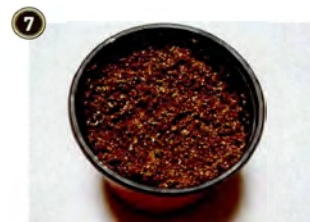
1. 칼을 라이터를 이용해 소독한다 - 칼을 소독하지 않으면 줄기를 자를 때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30cm 정도로 줄기를 채취한다.



3. 두 마디씩 자른다.
4. 밑 줄기의 잎을 제거한다.



5. 잎을 제거한 마디 부분을 45도 각도로 자르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 30도 각도로 자른다. 마디 부분은 발아가 잘 되는 부위이고, 사선의 각도로 자르는 것은 단면을 넓게 해 많은 양의 뿌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6. 위의 마디의 잎을 반으로 자른다 -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증산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7. 질석을 넣은 포트를 준비하고 미리 물을 적서 놓는다.
8. 산수국의 삽수를 질석에 꽃고 약하게 사위기를 틀어 질석에 공간을 완전히 메워 준다-절단면에 발근촉진제를 발라 주면 발근률이 높아진다.
9. 밝은 그늘에서 관리하고 어느 정도 발아가 된 상태에서는 밝은 곳으로 이동하여 관리한다.

앗! 서울에 이런 곳이...

황제의 정원

글·사진 소순복 기자

어릴 적 다락방에 숨어있다 잠이 들어 굴러 떨어졌던 기억이 있다. 그 좁은 다락방은 어린 아이에게 최고의 숨을 공간이었고 안식처였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하게 된 황제의 정원은 어른이 된 내게 다락방 같은 비밀 공간이 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그 누구와도 함께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정원이 오픈 바로 그런 곳이다.



서울 내곡동에 숨어있는 시크릿 가든

서울 내곡동 인능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오페라 '황제의 정원'은 실시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네비게이션에서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 꼭꼭 숨어있다. 인터넷 검색창에도 뜨지 않고, 한번 다녀왔던 방문객도 재방문하려면 한 번 정도는 길을 헤매야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방문하게 되면 '앗' 하는 감탄사부터 터져 나온다.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라는 것이 방문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첫마디. 기자가 방문한 날이 마침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더욱 운치 있고, 감성을 자극했다.

황제의 정원은 양재동 꽃시장에서 정원용품을 판매하는 오 해피데이의 대표 김혜숙씨가 13년 동안 공을 들여 완성한 정원이다. 당초 쓰레기장이었던 곳을 매입해 지금의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메트리스, 비닐하우스 비닐, 폐타이어 등은 물론 동물의 사체로 버려졌던 땅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는 그는 이곳에 가족들이 놀러와 쉴 수 있는 가족힐링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10년 넘게 개방하지 않은 자연의 寶庫

그러나 세계적인 명작 '비밀의 화원'처럼 이곳은 지난 10년 넘게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란다. 단 한차례, 지난해 가을 풀벌레축제 개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오픈한 받은 것이 전부이다. 물론 아름다운 입소문을 통해 가족모임이나 기업 단체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 오픈하기도 하지만, 평소 정원의 문은 닫혀 있다.

황제의 정원은 멀리보이는 경치를 빌려 쓰는 차경을 이용해 원시림을 정원 안으로 들여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산의 풍경이 고스란히 정원의 한 부분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피고리를 비롯한 검은등뽕꾸기, 수많은 곤충과 풀벌레 등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태해설가들은 검은등뽕꾸기를 '홀딱벗고 새'라 부르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홀딱~벗고' '홀딱~벗고'와 같은 소리를 내며 운다하여 그렇게 불린다고 하니, 그러한 자연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도 쏠쏠하다.

야생화와 곤충의 테마 정원, 교육장으로도 활용

황제의 정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낯설게 그곳에서는 방목된 닭이나 토끼,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는 풍경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황제의 정원 주요 테마 주인공들이다. 황제의 정원이라는 이름 역시 개구리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유명단 교수의 '핑'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는 아상을 펼치기 위해 황제의 정원을 찾아나선다.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고픈 김 대표의 또다른 꿈이 정원명에 함축돼 있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 파벽돌로 연출한 예술적 공간

황제의 정원은 동양적 고전미와 서양적 세련미가 어우러져 있다. 정원의 위로는 원두막과 연자방아를 배치해 고전적 동양 정원을 연출했고, 아래로는 사계절 크리스마스가 재료가 된 서양정원으로 꾸며졌다. 겨울이면 LED 장식으로 눈이 오는 풍경이 더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더해주

니 일석이조, 연못에서는 온천수처럼 샘물이 솟아오르고 실개천으로 이어져 수생식물과 개구리, 도롱뇽, 물고기까지 자란다. 아침에는 연못가에서 배추흰나비가 진풍경을 연출하는데,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에 심어 유도하고 있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 정원 곳곳에 설치된 가재보와 파고라는 심터와 함께 미국적인 풍경을 더했다.

황제의 정원 핫 포인트는 정원 아래와 건물 인테리어로 활용된 파벽돌을 빼놓을 수 없다. 일명 '전쟁과 평화'라 불리는 이 작품은 전쟁 때 파괴된 건물을 표현하고자 했다. 파괴된 구멍으로 펼쳐진 평화는 바로 황제의 정원일 터. 특히 황제의 정원 주변에 위치한 사격장 총소리가 주는 위압감을 교묘히 피해가고, 오히려 배경음악처럼 어우러진다. 김 대표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김 대표의 파벽돌을 직접 깨서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냈다.

정원 장식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됐다. 정원 소품이 전신대 있어 더욱 볼거리가 풍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정원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비가 오는 날의 풍경에 목 빠져 있는 기자에게 김 대표는 황제의 정원 사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무채색의 설경은 꽃잔디나 작약, 벚나무로 화려함의 진수를 뽐내는 봄의 수채화에 뒤지지 않고, 여름 진녹의 풍경은 아이리시스나 별개미취, 나리, 범부채, 후룩스 등과 어우러져 색채의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수줍은 여인네 불처럼 발그레하니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 유혹이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난 비 오는 날의 수채화, 2013년의 기분 좋은 추억의 페이지가 될 것 같다. [in](#)





온실 앞 풍경



식물원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전경



겨울정원으로 불리는 온실의 내부 모습



겨울정원 내에 전시중인 식충식물

전통과 현대美의 조화

Hortus Botanicus Leiden Universiteit

글·사진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대형 화분을 이용한 식물식재



꽃의 나라로 이름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헤이그 북동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레이덴 시이다. 레이덴 시의 주변 지역은 네덜란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튜립 재배지이기도하다. 또 레이덴 시는 화가 렘브란트, 얀 스테인, 얀 판고엔 등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네덜란드 최초로 1575년에

설립된 레이덴대학은 동양학 연구로 유명하며, 자연박물관, 민속박물관 등과 함께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인 레이덴대학식물원을 갖고 있다.

레이덴대학식물원

레이덴대학식물원은 고도인 레이덴시 레이덴대학 학술원 건물과 천문대 사이에 있다. 1587년 신생 레이덴대학은 시장에게 약학대학 학생들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원 조성을 요청하여 1590년에 허락을 받게 된다.

1593년에는 식물원 조성 총책임자로 유명한 식물학자 카롤루스 클루시우스(Carolus Clusius 1526-1609)가 임명되고 1594년에 공식적으로 식물원을 개원하였다. 클루시우스의 높은 지식과 평판, 그리고 국제적인 수집 노력은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식물을 수집하게 된다.

클루시우스 이후에도 세계 곳곳으로부터 많은 식물들을 수집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하게 되었다.

1740년부터 1744년에 걸쳐서 온실이 세워졌으며 1880년대 초반까지 식물원의 규모도 점점 확대되었으나 1857년에는 식물원 부지 일부가 레이덴천문대 건축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1823년

부터 1829년 사이에는 화란동인도회사에 고용되어 일본의 각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아시아 식물을 수집한 독일인 의사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씨의 기여도가 높았다.

다양한 테마원에서 1만5,000여종의 식물 보유

식물원은 크게 전정, 겨울정원, 온실, 빅토리아 수련원, 일본식 정원인 폰 시볼트 기념정원, 고사리원, 클루시우스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5,000여 종류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필자 일행이 방문하였을 때는 식물원 정문을 보수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식물원 전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우선 식물원 정문을 통과한 뒤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전정(Front Garden)은 1600년에 조성되어 현대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에 오래된 자작나무들이 썩어 넘어지면서

파괴되는 바람에, 1739년에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재조성되었다. 다양한 구근식물, 교목 및 관목, 아시아에서 수집된 식물들을 식재하여 식물의 생장 형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시체꽃 등의 열대식물 및 희귀식물의 보고

겨울정원(Winter Garden)은 겨울에도 관람이 가능한 대형 온실로서 천정의 높이가 높은 철골조 온실이다. 남아프리카 희망봉 부근에서 수집한 식물들을 포함하여 아열대 식물, 식충식물인 사라세니아(Sarracenia), 소철류 등이 대형 화분(tub)에 심겨져 신듯하게 전시되어 있다. 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관람로를 통하여 온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키 큰 나무나 식물들까지도 내려다보면서 관찰할 수 있다.

지금의 온실은 1936년에 건설된 것으로 아시아 지역의 식물이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시체꽃으로 알려진 이모르포팔러스 티타늄(Amorphophallus titanum), 40kg 정도의 어린이를 지탱할 수 있



일본식 정원인 Von Siebold 기념정원



28개의 부류군으로 조성되어 있는 식물부류원



녹근초화원 길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연못주변 식생



대형 용기화분을 사용한 장난개



중국산 앵초류가 피어있는 연무정원

는 대형 잎을 가진 빅토리아수련(Victoria amazonica)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열대식물을 전시하여 겨울에도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학술적 가치로도 높게 평가

폰 시볼트 기념정원(Japanese Garden)은 19세기 초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식물을 수집한 시볼트씨가 식물의 세계를 통한 동서양의 교류증진과 평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일본인 조경건축가인 마코토 나카무라(Makoto Nakamura)의 설계에 의해 조성되었다.

고사리원(Fern Garden)에는 다양한 속성수를 식재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개울을 조성하여 고사리류가 스스로 번식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공중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반구에 자생하는 상록성 고사리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앵초류, 헬레보리스(Helleborus)

등이 혼식되어 있어 계절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클루시우스(Clusius) 정원은 1594년에 클라시우스가 이곳 부지에 처음으로 식물을 심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31년과 2003년에 다시 조성된 정원이다.

클라시우스는 1593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로부터 이주해 왔으며, 델프트의 유명한 약제사(Dirck Outgaertszn Cluyt)의 도움을 받아 1,000여 종류의 식물이 심겨진 정원을 조성하였다.

특히 그는 지중해,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그때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야생식물과 관상용 관목들을 수집하였는데, 네덜란드의 국가적 자부심으로 통하는 틀립을 터키로부터 수집하여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 단풍나무과, 난류, 고사리류, 호야속

(Hoya) 식물, 디스키디아(Dischidia)속 식물, 네펜데스(Nepenthes)속 식물 등을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집 전시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식물 표본실 및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

레이덴대학식물원에는 550만점 이상의 표본을 소장한 세계적인 식물표본실이 있으며 이 중에서 5만점 이상이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정원(온실)을 이용한 전시회나 음악회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in](#)

— 본 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6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화분 없이 공중에서 생육하는 Air plant

글·사진 윤명섭

레이포리스트 플로라 사강



에어플랜트(Air plant)를 아는가. 에어플랜트는 공중에서 기생하고 있는 식물로서 수피나 바위 등에 붙어 공중에서 대기 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이러한 식물들은 난초과의 양난이나 이끼류, 박쥐란, 파인애플과의 아나나스나, 킬란드시아, 구즈마니아, 천남성과의 안수리움 등을 들 수 있다.



만개한 벚꽃만병초

전시실 안의 풍경



가공된 포도나무



Tillandsia calothyrsia_Yellow



공중에 매달기도 하고 바위벽면에 착생시킨 틸란드시아들



바위에 착생시킨 틸란드시아들

지난 여름 다녀온 남아메리카 여행길은 에어플랜트의 생육 특성을 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에어플랜트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한 지역, 그리고 공중에 습도가 있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많은 것 같았다.

이번호에서는 에어플랜트 중 특히 최근에 많이 애용되며 관찰되고 있는 틸란드시아를 소개하려고 한다. 틸란드시아속에는 540여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식물들은 흙이 없이 공중에서 맨 뿌리만 가지고 대기 중의 수분만으로도 살아가는 식물들이다.

틸란드시아 전문 재배 양묘원 레인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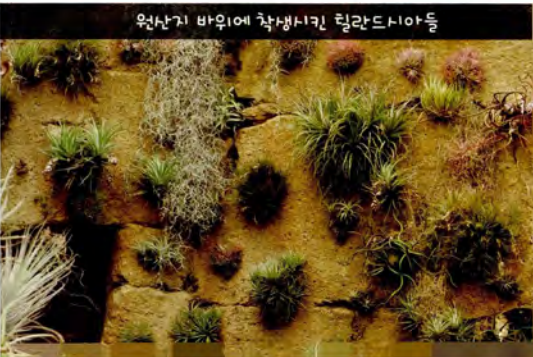
틸란드시아만을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토렌스 핫돈(Hawthorne Blvd 19121) 거리에 있는 레인포리스트 플로라(Rainforest Flora Inc)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품종들만도 200~300종 이상이 될 듯 싶다.

미국의 양묘원(Nusery)들은 대부분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소재하고 있다. 레인포리스트사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은 1974년도에 가드나에서 창립하여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대형 글래스 온실 한 개동과 비닐하우스 한 개동만을 가지고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10개동 이상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같은 급성장체는 바쁜 현대인들의 습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관리가 용이하고 녹색화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식물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육식물이 유행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바통을 잇고 있는 듯 싶다.

공중 습도만 있으면 물관리 특별히 안해줘도...

일반 초화류들은 화분이 필요하지만 에어플랜트는 화분이 필요 없는 것도 특징이다. 공중에 매달아 놓아도 되고 벽면에 붙여 놓아도 된다. 유리창에 붙여 놓아도 되고 유리 용기 안에 넣어서 공중에 매



원산지 바위에 착생시킨 틸란드시아들

달아도 훌륭하다. 다시 말해 에어플랜트는 입체 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물관리가 문제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공중 습도만 있으면 공중에서 살 이갈 수 있는 식물이다. 그렇다고 물을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물속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 놓거나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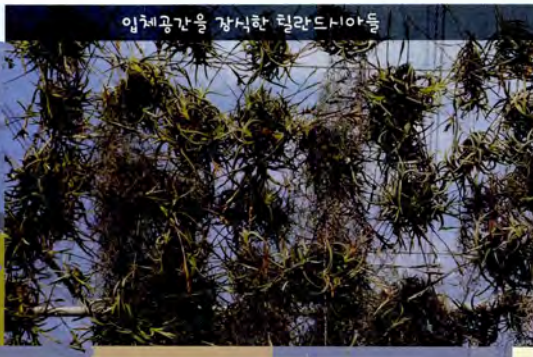
인테리어 예술품으로도 훌륭한 틸란드시아

레인포리스트 사장은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의 이름은 Paul T. Isley III 이다. 이름에 걸맞게 성격도 특이하게 느껴졌다. 자기가 직접 원산지를 돌아다니며 채집하고 육종도 하면서 신봉증을 발표하고 있다. 또 그가 쓴 틸란드시아(Tillandsia) 1과 II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틸란드시아를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사 멤버로는 부인과 딸이 함께 하여 많은 직원들과 남미 사람들을 고용하며 경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눈여겨 볼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전정해서 재배하던 포도밭의 포도나무 고목이다. 폐목을 토막토막 잘라 껍질을 벗기고 잘 다듬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놓았는데, 그 공물품적인 풍이 아주 이색적이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표본 전시실인 온실 안을 들어서면 남미 원산지에서 가져온 바위에 틸란드시아를 착생시켜 장식해 놓고 여기에서 식물을 팔기도 한다. 물론 공중 습도를 맞추기 위해 연못도 만들어 놓고 원산지의 돌들을 배석하고 틸란드시아를 배치한 것은 이국적 생동감마저 든다. 여기에는 박쥐란이나 안수리움, 구즈마니아, 에크메아, 브리세아 등을 간이 장식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한국에는 브랜치가 없느냐"고 물으니 "대만과 중국 상하이에 있다"고 했다. 번식은 주로 조직배양으로 한다고 하며 딸이 중국으로 조직배양 기술을 전수하러 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한번 브랜치를 만들면 어떻게냐면서 농담을 던졌다. [in](#)



입체공간을 장식한 틸란드시아들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놓은 파인애플과식물들



포도나무 덩굴을 가공하는 모습



틸란드시아(Tillandsia ionantha)



판매하기위해 진열해 놓은 틸란드시아들

핀드혼 가든 Findhorn garden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손관화교수 <http://sohn.yonam.ac.kr>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4시간 반 정도 가면 에딘버러(Edinburgh)가 나오고, 또 기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가면 인버니스(Inverness)를 지나게 된다. 그곳에서 또 30분 정도 가면 포레스(Forres)에 다르고 포레스에서 10분 정도 달리면 핀드혼 만에 도착한다. 이 곳 바닷가에 핀드혼 공동체(Findhorn community)가 있다. 공동체의 거주자는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자연과의 협력과 공동의 창조가 목적인 핀드혼 재단으로 확장되어 국제 공동체로서 커다란 교육 센터를 이루고 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해 이 곳의 생활을 경험하거나 교육을 받는다.



핀드혼 바닷가



방문자 숙소 및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앞 정원



교육장 앞 정원

핀드혼 가든은 하늘과 교감하는 세 사람이 식물 데바(deva)와의 협조로 바닷가의 척박한 황무지를 아름다운 가든(농장)으로 만든 기적의 장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토양학자와 식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초창기의 이야기를 출판한 '핀드혼 가든 스토리(Findhorn Garden Story)'는 한국에서 '핀드혼 농장 이야기'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 곳에는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방문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핀드혼 가든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Experience week'라는 1주일 프로그램(595파운드=약 120만원)을 신청했고 1주일 동안 각국의 신청자 12명과 공동생활을 했다. 이 곳의 거주자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생활하고 채식을 하고 가든과 요리를 하는 부엌(kitchen)을 중요시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자들도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가든에서 일을 한다. 가든(garden)은 아름다운 주택의 정원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을 위한 농장까지 포함된다.



먹거리를 위한 가든에도 곳곳에 꽃들이 심겨져 있고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는 매리골드가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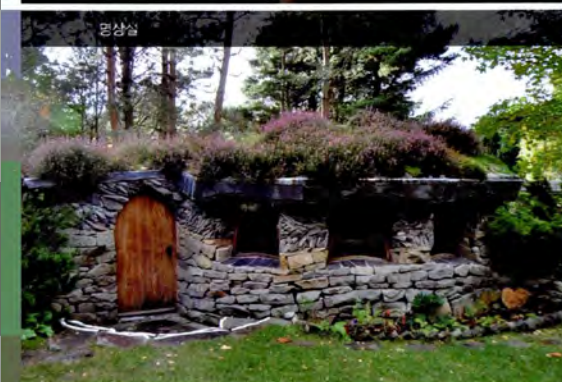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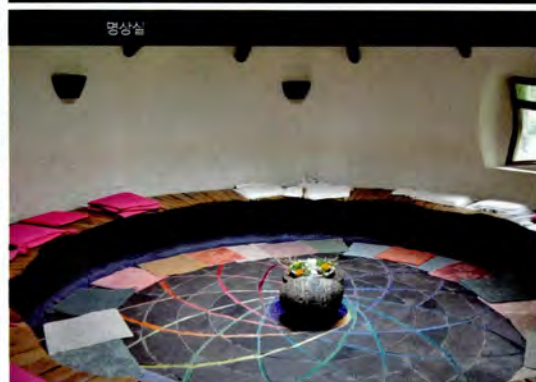
핀드혼 공동체 마을



핀드혼 가든의 사무실과 창고



명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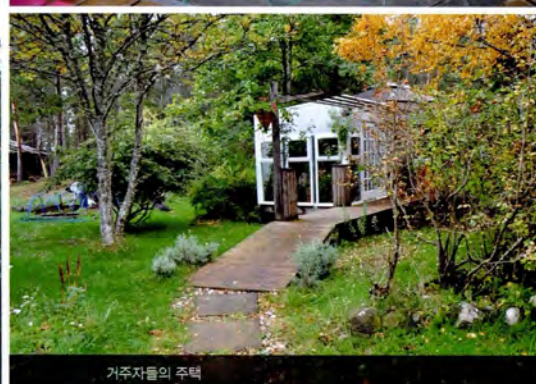
명상실



핀드혼 가든



거주자들의 주택



거주자들의 주택



핀드혼 가든



거주자들의 주택



거주자들의 주택



핀드혼 가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공동체라 따뜻하고 친절함 분위기였고 음식이 맛있어 가든에서 일하느라 힘들어도 견딜 만했다. 10월 이라 농장의 하이라이트는 보지 못했지만 일주일 중 4일을 가든에서 일을 했다. 가든은 당연히 유기농으로 관리된다. 먹거리를 위한 가든에도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위해 곳곳에 꽃들이 심겨져 있고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는 매리골드가 가득 차 있다. 하루는 말뚝과 음식물 쓰레기, 잡초 등으로 충을 쌓아 퇴비를 만드는 일에도 투입되었다. 내가 기대했던 초창기의 핀드혼 가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꽃의 요정을 찾고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초청자의 얘기나 관련된 서적이 이곳만큼 많은 곳은 없을 것 같다.

가드닝을 위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핀드혼 가든의 옛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보자.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방문하는 것 같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단순 방문도 가능하며 직업을 구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http://www.findhorn.org>)를 참고해 보자. 첨부사진은 핀드혼 공동체의 주택정원과 가든(농장)의 사진이다.



말뚝과 음식물 쓰레기, 잡초 등으로 충을 쌓아 퇴비를 만든다.



아마가드너

초보가드너의 무지로 죽어간 식물들 부끄러운 실패담의 고백

글·사진 김지태 기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지 어언 6개월 쯤 접어든다. 아마가드너라고 밝히고 시작은 했지만 지난 6개월간 나는 내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마 화단이나 텃밭을 처음 가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무지를 깨닫고 좌절을 겪을 것이지만 초보의 실패담은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은 초보자들이 나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실패담의 공유이자, 나의 무지로 인해 죽어갔던 많은 식물들에게 용서를 바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과유불급, 물과 영양제 많이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토종 상추씨앗을 심은 후 그것이 싹이 트고 정말로 야들야들한 맛있는 상추가 자라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 여름 한 철 상추를 매일 뜯어먹을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상추의 꽃을 피우고 씨앗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대줄기만 굵게 쭉쭉 자라고 이파리는 빈약해지더니 결국 상추꽃도 몇 송이 피지 못하고 말았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물과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줬서 그렇다 한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적당히 못자란 가지들을 잘라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으니 줄기만 나무처럼 튼실하게 자라고 말았던 것이다. 그저 물과 영양제를 평평 주면 식물이 잘

자라리라고 생각한 무식함이 화근이었다. 그렇게 해서 싱싱했던 피마지도, 아욱과 뽕시금치 싹도 다 죽이고 말았다.

상추의 경이로움도 잠깐, 절반 이상 죽어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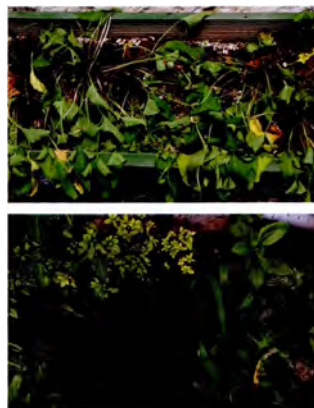
그나마 숨털 같은 상추꽃 두 송이를 보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심스레 숨털 꽃을 따서 통풍이 되는 곳에서 말린 후 씨를 발라냈는데, 내가 처음에 받았던 씨앗의 절반 크기 밖에 안됐다. 상추씨를 받았다는 자랑스러움도 잠깐, 씨 받는 것에도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것도 아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서 생긴 부작용일 듯 하다. 상추 하나 기르는 데에도 물 조절과 뿌리의



상태를 고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됐다.

주객이 전도, 식물은 죽고 잡초는 왕성하고...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간 동안 난 내가 키우는 식물들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차광막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화단을 만들고 식물을 심은 것부터가 무책임한 짓이었다. 식물들에게 물이 꼭 필요하지만 이번 여름 같은 장마는 식물들에게 축복한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신기한 것은 내가 심은 식물들은 장마통에 시름 시름 죽어가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잡초들은 제멋대로 뿌리를 내리고 알뜰게도 왕성하게 자라났다. 악마의 발톱처럼 생긴 키낮은 잡초가 라벤더 화단을 점령하고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역센 뿌리를 사정없이 뽑아서 흙이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던져 놓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며 자라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잡초가 좀 그림그린 하지만 꽃까지 피운 것이다. 게다가 스티로폼 박스는 어디서 온지도 모를 근본 모를 잡초들이 제멋대로 보금 자리를 만들어 버렸다.



썩의 위력, 잡초도 생명체인데 죽어야만 하나

썩이 잡초들에 버금가는 왕성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어디서 온지 모를 썩이 상추화단에 조그맣게 싹을 틔우더니 급기야 상추들이 죽어나간 화단을 점령하고 말았다. 이게 썩 인줄도 몰랐는데 인터넷 식물동호회에 사진을 보여주고 썩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자란

썩은 먹을 수 없으니 뽑아 버리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잡초를 마음대로 뽑아 버리지 못하게 됐다. 어찌됐건 스스로 살고자 애쓰는 생명체인데 내가 멋대로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싸잡아서 잡초라고 불러서 그렇지 이 아이들도 버섯이 이름이 있는 식물들 아니겠는가. 어느 식물학자 말로는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약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약이 되진 않더라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엉망진창이 된 화단에서 어찌됐건 생존해 가고 있는 생명체인데 마음대로 없앤다는 것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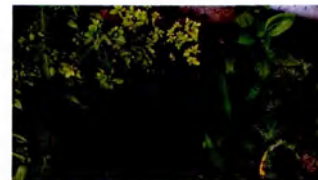
텃밭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

옥상텃밭은 내가 식물을 길러서 먹으려고 만든 하나의 작은 밭이다. 그런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옥상텃밭은 나만의 것이 아닌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되어 버렸다. 갖가지 벌레와 거미, 달팽이들이 모여들었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식물들은 그들의 양분이 되어 버리기도 했다. 벌레들과 식물을 나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벌레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병충해 약을 친다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내가 만든 텃밭에 달팽이가 온 사실에 감동을 받았는데, 농사치는 보로로부터 달팽이들의 식욕과 번식욕이 엄청나서 다 잡아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달팽이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아와 화단에 옮겨 주었을 뿐, 벌레를 죽이기 위한 약을 한 번도 치지 않았다. 달팽이 같은 포식자만 조심하면 그것과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실패의 원인은 벌레 때문이 아니라 식물과 흙과 물에 대한 나의 무지, 그리고 이것 저것 일단 심고 뿌려보자고 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무지가 부른 화(禍), 멸절한 화단을 엉망으로...

화단에 심은 꽃종자와 씨앗들은 역센 잡초와 야생화들 등쌀에 아예 피지도 못하고 자취를 감춰 버렸다. 식물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자라리라고 생각한 나의 무지가 멸절한 씨앗들을 다 죽이고 만 것이다.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하려면 흙을 갈아엎고 잡초들을 정리해야 했다.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갈아엎는 노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꽃만을 위한 화분을 준비해야 할지 나는 고민해야 한다.

텃밭을 만들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건 그 과정에서 흙을 갈아엎고 잡초들을 제거하는 폭력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정원을 꾸며놓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잡초와 벌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규모가 큰 정원에서는 예쁜 망초와 제비꽃들도 잡초로 분류되어 뽑혀져 나가곤 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다. 내가 과연 그렇게 감시와 처벌에 철저한 가드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내리고 있다.



결심, 이제 제대로 된 가드너가 되어볼 작정

내가 만든 조그만 화단과 텃밭에는 그 많은 식물과 씨앗들은 다 죽고 이제 포인세티아 화분과 별 관리도 안 했는데 신기하게 잘 자라준 고추 나무와 잉글리시 라벤더 화단만이 남았다. 그리고 보살 것 없지만 내가 직접 수확한 상추 씨앗과 우연히 얻은 프렌치라벤더 씨앗, 그리고 바질 씨앗이 있다. 고맙게도 내 곁에 있어준 이들과 함께 소박하게 가드닝을 다시 생각해 볼 작정이다. 많은 식물을 키워보겠다는 욕심은 이제 버리고, 내 곁에 있는 식물들이 어떤 상태의 흙을 필요로 하는지, 물은 어느 정도 주어야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새롭게 시작해 볼 생각이 다. 세상 어느 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물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6개월 만에 깨우쳤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in

안환식
농학박사 세드립
상임대표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영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중석
서울여대 명예교수



김기순
(주) 그린메이커 대표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다육식물, 건조해에 대한 대처법

Q 며칠전 구입한 거미줄바위술을 베란다에서 잘 키워오고 있었습니 다. 휴가를 갔다오니 말라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줬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거미줄바위술이 물을 안주어서 말랐다면 줄기 끝만 누렇게 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죽은 잎줄기를 모두 잘라내고 물을 주시면 정상적으로 다시 싹이 돌아날 것입니다. 바위술은 환기가 잘 통하는데 놓아두면 아무리 더워도 1주일정도는 물을 안주어도 되는데 아마도 독자님께서 베란다 창문을 모두 닫아두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고온장해로 식물이 마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엽식물은 환기에 따라 물주는 횟수가 다르다

Q 회사에서 키우는 식물인데 매주 2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물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름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A 관엽식물 뱀갈고무나무(좌)와 해피트리(우)입니다. 관엽식물은 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로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잘 견디는 뜻은 화분용토에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주셨다면 아주 잘못된 물주기 관리방법입니다. 화분이 놓여있는 곳이 환기가 잘되는 곳이면 열흘에 한번 정도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주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산소가 많은 지하수 물이나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냉방 '벽면녹화'

Q 며칠 전 시청에 다녀왔는데 벽에 식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건물의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는데 사실인지요, 벽에 식물을 심어 놓는 것이 어떤 면에서 친환경적인지 알려주세요.

A 요즘은 지붕이나 건물 외벽에 녹색의 식물을 심어 주거상태를 자연적으로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점은 정서함양 및 미관에 좋으며 실내온도를 조절해 주며 사시사철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식물을 교체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노린재는 전문약제로 사용해야 살충효과가 높습니다

Q 구즈베리 열매에 껍질 속에 들어있는 곤충입니다.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A 노린재란 식물의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일종의 식물의 기생충 해충입니다. 앞에서 만든 양분의 이동통로인 잎맥이나 줄기에 빨대를 꽂아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벌레입니다. 기생충을 구충제로 방제하듯 노린재도 일반 살충제로는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노린재 전문 약제를 뿌려 주어야 합니다. 농약방에 가서 노린재 전문약제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린재는 종류가 다양하게 많답니다. 전문약제 도 성분계통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꼭 2가지 이상 구입하여 돌려가면서 뿌려주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노린재는 크기에 따라 약제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생해충의 예방은 '통풍과 건조 유지'

Q 이게 무슨 벌레인가요? 관엽식물에 생겼는데 잎 뒤와 화분받침 그늘진 곳에 주로 있어요. 길이는 1미리 정도, 워낙 작아서 잘 안보여요. 어둡고 그늘진 앞 베란다 창고와 뒷 베란다에도 생겼어요. 어떻게 없애야 될지,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A 아마도 먼지다듬이라는 벌레인 듯 합니다. 먼지다듬이는 책벌레라고도 하며 2~10mm되는 작은 벌레로서 주로 갈색을 띠며 알에서 성충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5~9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잎, 나무가지, 돌 밑, 습한바닥, 벽틈새, 화분 밑, 오래된 책이나 신문, 장롱 등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잡식성으로 곡물, 너트, 초코렛, 물고기나 육류에서 번식하며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것을 먹고 자랍니다. 부패 박테리아를 확산시키며 알레르기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통풍과 건조한 상태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벌레는 아무리 약제를 잘 뿌려도 100% 방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연 살충제를 구입하여 서식처나 출현 예상지역에 2~3일 간격으로 2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란다에 미니텃밭 만들기

Q 베란다에 약 5평 정도를 미니텃밭을 만드려고 합니다. 파, 쑥갓, 상추 등 작게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레라도 길가 두렵기도 합니다. 화분 흙, 씨앗 이외에 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9월에 심어볼 채소를 추천해 주시고, 전체적인 재배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베란다에 텃밭을 만드시려면 반드시 인공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적고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또 물비료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텃밭에는 재배기간이 아주 짧은 작물을 재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나 쑥갓, 갓, 비트, 열무, 달래가 무우 등입니다. 가을 햇살은 많을수록 작물에 이로우며 상토가 너무 마르지 않게 수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베란다 환기는 필수입니다.



야자수리, 습해에 대처하는 방법

Q 아레카 야자가 최근 갑자기 줄기가 살짝 처지고 힘이없이 물렁함이 느껴지며 손으로 수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많아졌어요. 만져보면 쫄쫄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잎은 약간 색이 열린 것 외엔 멀쩡해 보여요. 줄기부위, 특히 잎이 시작되는 부분에 까만 단단한 아주 조그만 점이 많아요. 세계 굵으면 떨어지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벌레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비기로 봐도 아주 작은 점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밑동에도 까만 점들이 많은데 이진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있을 만큼 큼니다.

A 아레카 야자의 습해 피해 현상인 듯 싶습니다. 야자수의 특성은 옥수수나 대나무처럼 유관수에 많은 수분을 간직하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잎이나 줄기에 작은 검은 점을 나타내며 밑에 일부러 삶아 놓은 것처럼 식물이 물러지며 심하게 되면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뽑아서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주신 후 배수가 좋은 흙에 다시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웬만한 것은 다시 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크루시아 삼목

Q 크루시아가 죽어 가는데 살아있는 부분만 가지치기해서 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크루시아는 관엽식물로 줄기나 잎에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줄기나 가지를 4~5cm 정도로 잘라 양분이 하나도 없는 용토에 심목을 하십시오. 그 위에 신문지로 덮어 놓고 신소가 많은 물을 자주 주시면 자른 부위에서 새 뿌리가 내리고 잎눈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뿌리 내린 상태가 양호하면 화분으로 옮겨 키우시면 잘 자란답니다.



단풍나무 고사의 주범, 천우충(솔수염하늘소)

Q 멀쩡하던 단풍나무가 벌레가 파먹어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하얗게 튀어 나온 부분이 벌레가 파먹어 들어간 자리인데, 이제 단풍나무 옆에 있는 목련나무도 반 정도 저렇게 되서 죽어가고 있어요. 수증 가리지 않고 저렇게 파먹는 벌레가 있나요? 어떤 벌레이고 어떻게 하면 나무를 살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몇 십 년 된 나무 다 잃기 속상하네요.

A 아마도 천우충이라는 벌레인 듯 싶습니다. 천우충이란 하늘소를 말하며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여렸을 때 수염을 잡고 다리로 돌을 들어 올리는 놀이를 하기 위해 많이 잡았던 벌레입니다. 4월부터 발생하는데 나무줄기에 알을 낳으며 나무의 목질부 형성층을 빙빙 돌아가며 갉아먹거나 줄기 속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 속을 갉아먹어 수액의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 분재를 하거나 포도 과수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입니다. 산란기인 4월부터 8월까지 보름간격으로 줄기에 살충제를 뿌려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천우충의 특성은 유충이 들어간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는데 들어간 구멍은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나오는 구멍은 배설물이 쌓여 확연히 구별되게 됩니다. 방제방법은 유충이 들어간 구멍에 약제를 주사기로 주입하여 약액이 나오는 구멍을 이쑤시개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나무속에 있는 애벌레는 두엄 속에 있는 작은 굼벵이처럼 생겼답니다.



일반적으로 상추는 장일(長日) 식물입니다

Q 상추 씨앗을 심어서 흙에 심었어요. 한동안 잘 자라더니 어느새 줄기가 얇고 힘이 부족해져요. 실내에서 LED로 키우는 데 잘 안자랍니다. 여름이라 그런 건지, 가을에 키워야 하나요? 상추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상추의 잎색이 옅고 힘이 부족해 있다면 아마도 빛광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데는 빛이 적고 많음과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 잎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 강하면 잎이 두꺼워지고 색이 진해지지만 약하면 옅고 크며 색이 여러개 됩니다. 재배지에 LED등의 광량이 매우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September 2013
Garden In News

크고 빠르게 열리는 오디가 나온다

오디 뽕나무 품종 '대심' 개발

일반품종에 비해 더 빨리 열리는 오대생산물 뽕나무 품종인 '대심'이 출시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심은 나무를 심고 이듬해부터 수확이 가능한 조기 결실성 품종이다. 심은 후 3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해 일반 품종보다 1년 앞당겨 수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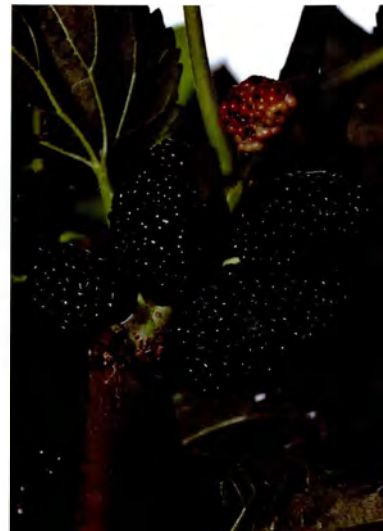
특히 오디 과실당 평균 무게 4.7g의 대과형 품종으로 과실을 손으로 따기 쉬운 좁은 공간에서도 수확이 쉽다.

과실수로 수확량이 많은 것이 장점이나 균해병에 다소 약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품종은 올 가을부터 뽕나무 모목생산 업체와 단체에 모목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디는 노화억제물질인 C3G, 혈당강화 성분인 1-DNJ, 고혈압 억제물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의 : 031-290-8523

대심의 품종 특성

- 카타네오 품종을 4배체로 만들어 오디가 크고 수확성이 높다.
- 심은 후 3년차 오디 수량은 청일뽕 대비 116% 증수되며, 결실 4년 평균수량은 70% 증수되는 다수성계이다.
- 4년 평균 오디 한 개의 무게는 4.7g의 대과형이며 오디 색은 흑자색이다.



수확량이 많고, 수확기간을 1년 앞당길 수 있는 '대심' 품종

실외 가드닝,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도시농부를 위한 맞춤형 농작업복



농작업복



농약방제복

입추가 지나고 9월이 되어도 여전히 태양의 자외선은 줄어들 기세가 없다. 농촌진흥청은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작업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농작업복과 농약방제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농작업복은 아스킨 소재로 만들어 자외선 차단은 물론 냉감 효과와 흡한속건 등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또 직조 방식이 독특해 옷의 손상이 적고, 신축성이 우수해 착용감이 좋고 농작업 시 활동에도 방해되지 않는다. 특히 태양열에 의한 실신, 탈진 등의 위급상황 시 쓰러진 농업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색상으로 제작됐다.

농약방제복은 투습지향성이 낮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땀은 빠르게 배출하고 바깥의 비나 물은 침투되지 않으며, 적절한 트임도 있어 농약도 막아주고 공기의 흐름은 원활하게 했다. 또 보호복의 용도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방풍재킷 또는 우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농약방제복(95.1g/m²)에 비해 82.3g/m²로 가볍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농작업복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디자인 특허와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 031-290-1937

Garden In News

농업으로 도시민의 풍요로운 삶

‘제2회 도시농업박람회’ 5일 대구 개막



‘제 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가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2회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는 대구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박람회이다.

박람회는 20개 전시관에서 도시농업의 이모저모를 전시 및 체험할 계획이다. 도시의 실내, 실외, 옥상 등의 공간을 식물로 재구성한 주제관을 비롯해 기업관·해와햇빛가든·힐링 텃밭·옥상텃밭·팍아트·경

관작물·농경자재관·농경유물관·LED식물공장 등 20여개의 전시관이 꾸며진다.

주제관에서는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외, 실내, 옥상 전시관 등 3곳을 분류했다. 특히 주제관의 공통 주제는 개인주의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테마로 식물로 꾸밀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했다. 기업관에서는 생물농약부터 종자 등 다양한 농자재와 텃밭자재, 식물기르기 체험 등 약 40여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생활원에정진대회, 시도우수농특산물장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도시농업현장강좌, 그린 엔솔로그드 콘서트 등이 열린다. 시민 참여행사로는 포대수확체험, 채소모종 나눠주기, 포토 온 스탓, 옥수수 수확체험, 도시농업UCC 공모전 등이 이뤄진다. 포대 수확체험과 도시농업 UCC공모전은 인터넷(www.ua2013expo.org) 접수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상자텃밭 만들기와 재사용용 텃밭, 화분 옮겨심기, 동물곤충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람회가 열리는 대구자연과학고는 넓은 교정에 녹색학습원 등 견학장소로도 유명해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은 후 관람하는 것을 권한다.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 053-601-5238

2013 고양시 도시농업한마당

고양시가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에서도 도시와 농업을 연계하는 축제를 열게 됐다. ‘천품과 미래, 도시와 농업이 조화’라는 주제로 이달 13~14일 양일간 서울 3호선 화정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도시농업한마당은 다양한 이색 체험을 즐기고, 농업과 교감하는 시민과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축제에는 천연염색, 지렁이, 곤충체험 등 15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텃밭 체험교실’ 참가 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재사용 텃밭 대회를 열고 도시에서 농사짓기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고 예정이다.

또 3D 곤충 상영관을 운영해 도시에서 보기 쉽지 않은 곤충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히 EM(유용미생물) 나눠주는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활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농업네트워크, 생활원에문화협회, 체험농장연구회 등이 참여해 텃밭 농산물 나눔 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 031-8075-4272



Garden In News

“삼림욕 하고 싶다면 열차를 타라”

코레일과 공동... ‘KTX-숲으路’



기차로 휴양림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KTX-숲으路’를 선착순 판매한다.

‘KTX-숲으路’는 열차와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을 결합한 상품으로 비수기 주중(매주 수·목요일)에 1박 2일로 이용할 수 있다. 열차와 자연휴양림 숙박을 결합한 ‘개별여행상품’과 열차와 자연휴양림 숙박 외에 지역관광까지 포함하는 ‘버스연계상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휴양림은 대관령(강원), 가리왕산(강원), 방산산(전남), 남해관백(경남) 등 4곳이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및 지정 여행상담센터(8개소)에서 상품 구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구입시 열차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코레일 지정 여행상담센터 : 서울역(02-3149-3333), 용산역(02-3780-5555), 영등포역(02-2678-7723), 청량리역(02-913-1788), 대전역(042-259-2450), 동대구역(053-943-7787), 부산역(051-440-2513), 광주역(062-525-4835)

문의 : 042-481-4073

제이드가든 수목원과 가드닝 시작해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이드가든 수목원에서 이달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나만의 가드닝(Gardening it yourself)’라는 주제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물에 관심이 많고, 정원과 수목원을 사랑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마다 총 10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수업내용은 미니화단만들기, 나만의 정원설계, 정원관리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진행된다. 교육비는 250,000원이고, 강좌별 수강시에는 1개 강좌당 50,000원이 다. 교육 수료 후에는 제이드가든 수목원 해설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문의 : 033-260-8323, 8353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휴양림에서 힐링도 하고,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1회 국립자연휴양림 포토에세이 공모전이 산림청 주최로 열렸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의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이야기와 사진이면 된다. 단 사진에는 여행자의 체험활동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진은 디지털 사진 파일로 원본을 내야하고 꼭 201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참가희망자는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를 통해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글은 1500자 이내, 사진은 최소 3000×2000pixel이상, jpg파일 3매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다. 최종 결과는 11월 15일 금요일에 발표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5명(주중 국립자연휴양림 1박2일 무료이용권, 아차상 20명(문화상품권 각 2만원)이 주어진다.

문의 : 042-580-5593

우리꽃에 즐거움이 찾아와...



우리꽃은 국내를 대표할 만한 야생화 그룹이다. 또한 품종 개량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선구적 기업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우리꽃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신품종을 발굴하고 시장에 소개하며 로열티를 관리하는 회사 플랜טיפ사의 피터가 방문한 것이다.

플랜טיפ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라이선스 관리 회사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로 유럽은 물론 북미, 호주, 남미에까지 그 영업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피터는 바로 이 회사의 젊은 2세 경영인. 그가 우리꽃을 방문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우리꽃의 주요 육성 품목인 코레우리와 가우라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와 우리꽃은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세계시장에서의 우리꽃이 가질 경쟁력을 호평했다. 플랜טיפ사는 앞으로 우리꽃의 우수한 품종을 해외 선진 시장에 공급하고 로열티를 관리할 예정이다. 그의 방문으로 우리꽃의 세계시장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꽃은 오는 10월 가든센터를 오픈,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in**



사진설명

메인 : 8월 2일 우리꽃 연구소를 방문한 플랜טיפ의 젊은 사장 피터와 기념 촬영.

1 : 새롭게 육성되고 있는 내한성이 강한 코레우리를 둘러보고 있다.

2 : 다양한 색상과 특징이 나타난 연구 시험포장. 이들 중 10품종이 우선 유럽과 미국, 호주로 공급된다.

3 : 앞으로의 육성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박공영 사장과 피터

4 : 10월 오픈 목표로 준비 중인 가든센터 및 교육장의 준비 모습



INNOVATIVE GARDEN

자연 파괴의 주범 '담배꽂초' 거름이 되다

글 황주리 기자



2014년이 되면 땅에 버려지는 담배꽂초에서도 짙을 띄운다는 신기한 소식이다. 땅에 버려지면 썩는데 10~15년이 걸리는 '담배꽂초'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다. 하지만 내년이면 몇 주 안으로 땅에 스며들어 짙을 띄우는 것이 담배꽂초라니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이러한 '생태 담배'를 개발한 영국의 그린버츠사에서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5m 마다 담배꽂초가 발견되는 사방이 재떨이와 같은 이 나라의 길거리가 생태 담배의 탄생으로 담배꽂초 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고민스럽긴 하다. 그나마 썩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던 것이 몇 주 안에 다른 생물체의 거름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짙을 띄운다니 썩 나쁜 신상은 아니겠다.

그린버츠(Greenbutts)라는 회사는 필리에 씨앗이 들어 있는 '생태 담배'를 제작해 내년부터 판매예정 중에 있다. 이 담배꽂초는 일반 꽂초와 달리, 금방 썩어서 생태계에 쉽게 흡수된다. 필리에 들어있는 씨앗은 꽂초가 떨어진 자리에서 자라게 된다. 또 꽂초는 썩어서 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담배와 꽂초, 쓰레기 전체 배출량의 30% 차지

2012년, 국제해양미화단체인 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는 1987년에서 2012년 사이 25년 간 쓰레기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담배와 담배꽂초가 쓰레기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며 여타 쓰레기 분류군 보다 2배가량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담배필터들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기존의 합성필터들은 환경상태에 따라 열화현상에 대응하는 힘이 강해짐으로써 자연에 흡수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열화현상과정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같은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매년 4.5조 가량

의 담배꽂초가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한다.

그린버츠사 생태 담배 내년부터 시판 예정



그린버츠사는 몇 주 만에 분해되며 다른 식물의 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이 '생태 담배'를 통해 담배꽂초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린버츠사는 흡연문화를 조장하거나

담배꽂초를 길거리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씨앗이 들어있고 몇 주 만에 식물의 거름이 되는 생분해성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지라도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생태 담배에 들어가는 필터구성 물질은 모두 현재 특허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필리에 들어가는 아마(flax), 헵프(hemp) 그리고 솜(cotton) 등이 검토 중에 있다. 생태담배는 모두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며 담배를 구성하는 어떠한 물질도 인공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생태 담배는 그린버츠사의 연구진과 파트너사인 영국의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의 혁신리서치 기관(NIRI)에서 연구, 개발했다. NIRI는 셀룰로오스와 섬유물질 관련 독보적인 기관으로서 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이 난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생태 담배 상륙할까

본토에서 제일 먼저 출시될 본 담배가 언제쯤 대한민국에 착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담배가 한국에 도입이 된다면 이곳 저곳 금지된 장소가 없는 케일라 가드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마치 복권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된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모인 복권수의금의 일부를 사회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린버츠는 복권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된다. 담배를 내 돈 주고 사서 피우고, 즐기고 그리고 사회에 세쌍을 기부하는 상품.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WIN WIN'이 될 것 같다. 물론 추후에 무작위로 버려지는 담배꽂초에 대한 규제는 따르겠지만 말이다. **in**

기자에서 도시농부가 되기까지

도시농부 바람길의 자급자족 농사일기

여태동 지음 | 북마크 | 14,000원

도시농부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

역병 걸린 고추에 매실효소...유기농 병해충 및 비료 사용 방법에 공감



요즘 대세는 주말농장이다. 주말농장하면 퇴직자 또는 실버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만 하는 낙후된 취미활동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바뀌었다. 이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변모하는 시대에 '농사가 웬 말이나' 라는 대꾸는 농사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자는 신문기자다. 10여 년전 10여 평 정도의 주말농장에 상추정도 심어 본 농사 초보였다. 글쓰는 사람에게 도시농부라는 이름은 왠지 어색하다. 하지만 그는 직접 땅을 일구고 각종 채소를 심어보면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에 매료되면서 스스로를 농부라 말한다.

“풀들아,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면 너를 거름으로 삼겠다.”

이 책은 농사에 관해 일기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지난 2009년 가을에서 2010년 겨울까지 고양시 화정동과 도내동 등의 도시농부 농장 밭을 가꾸며 썼다. 일기 형식이라 뒷밭에서 작물과 씨름하는 저자의 느낌과 고민들이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낸다.

처음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농사꾼의 인연으로 도시농부 세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농부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는 차근차근 하나의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친환경 작

물재배와 순환농법을 고집한다. 화학자재를 전혀 쓰지 않고 액비도 요산이 주성분인 오줌을 집에서 모으거나, 재래식 화장실의 인분을 퇴비로 직접 만드는 시도 등 거침이 없다. 스스로 이런 작업에 힘들어 하지만 친환경재배라는 소신에 독자들을 수긍하게 만든다.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자’는 게 농사소신이다.”

저자는 집안 식구보다 겨우내 밭에 심어진 상추를 걱정하는 농부출렁에 빠진 듯 하다. 아내와 아이는 저자의 그런 모습이 알뜰기도 하지만 수확한 채소로 다양한 음식을 선사하는 기쁨으로 용서가 된다. 농사로 얻은 수확물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셈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무엇이 이토록 저자를 농사에 빠져들게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저자는 처음 도시농부를 시작하게 된 카페회원들과 '도시농부 강령'을 만들었다. ▲도시민의 먹을거리 자급자족을 실천한다. ▲친환경 자연농법을 실천해 작물을 재배한다.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자원을 활용한 순환퇴비를 사용한다. ▲종 다양성을 위해 토종종자를 우선적으로 재배한다. ▲땅으로 맺은 인연으로 도시 소농 공동체생활을 함께 한다.

그가 도시 농부에 열정적인 이유는 나, 내가족, 내 농산물을 위함이다. 부록에는 계절별 농작물 재배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정승환 기자

은아목장

아이가 먹고 마실 유제품을 만드는 정성!

Gardenin Informercial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증

‘신지식농업인章’ Brand Information



사진으로 소개해요

낙농가들에게 유가공 기술 전수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잉여원유 처리를 고민하는 낙농가들에게 유가공 기술 전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연치즈 개발

가족들의 기술력으로 다른 낙농 농가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범목장이 되고 있다.

대표: 조 옥 향 (신지식농업인章 제2012-318호) |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2리 산 41-10
연락처: 031-882-5868 | 홈페이지: www.eunafarm.com



조옥향 관공농원 031-882-5868 www.eunafarm.com

청룡농원

꿈으로 디자인한 숲속 여행

Gardenin Informercial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증

'신지식농업인' Brand Information



자라와 철갑상어 체험학습장!

자라와 철갑상어의 재배환경 제어기술과 부화온도(섭씨30도) 및 습도관리 방법,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체 증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자연 학습 체험장인 생태학습 교육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 오 성 환 (신지식농업인 제2013-339호) | 품목: 농촌체험관광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농리 236 | 연락처: 031-334-9258

사진으로 소개해요



청룡농원 021-334-9258

9월 가든인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Gardenin 50% 할인권
9월 이벤트 할인 쿠폰
[기간] 2013. 9. 1 (월) ~ 2013. 10. 31 (토)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싱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가든도구 5종세트, 꽃씨증정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십시오.)
문의 031-712-7009

Gardenin September 2013

정싱가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라도 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영서의 주인공은 가든도구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고 싶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메독자 양서를 발송하시면 사면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 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들에게는 가든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발행인 양서를 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메독자 양서를 발송하시면 사면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독기간 2013년 월호부터 1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벽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9월호

발행처 벽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공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사)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우정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최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f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ylove@hanmail.net

정지은 kkom8@hanmail.net

강은지 foxbeam@naver.com

책임기자 김지대 jsummer@gmail.com

황주리 junie777@hotmail.com

편집 디자이너 김도연 kdu21sd@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나와 내 가족의 먹거리! 친환경 종합관리제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도시농업, 주말농장, 가정원예용 종합관리제

전원생활+

식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전원생활”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 화학농약이 아니므로 절대 농약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과 미네랄로 인체에 안전함
- 재배 관리기간 중 언제라도 식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수확직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확량 증대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됨
- 뿌리 내림과 양수분 흡수에도 도움을 주고, 식물을 튼튼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줌

제품용량	물 2ℓ 당 사용약량	물 20ℓ 당 사용약량
50ml	5ml(약 한두강)	50ml



실사이즈

■ 주말농장, 가정원에 및 화원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증상(참조용)



응애 피해

나방 애벌레 피해

진딧물 피해

벼룩잎벌레(톡톡이) 피해

애가루깍지벌레 피해

잎굴파리 피해

온실가루이 피해

민달팽이 피해

안전하다! 확실하다! 깨끗하다! 믿을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의 먹거리! 안전하고 깨끗하게...

KOREA BIO SEOUL
(주)코리바이오세울

꽃은 비료 고비

꽃이만 두면 알아서 영양분을 척척 주는 비료-꼬비

국내 및 국제특허출원번호: 10-2011-0126839

직은 화분에서부터 과수, 조경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꼬비작물 주변에 꽃이두기만 하면 장기간동안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서서히 제공받을 수 있어 영양적인 면에서나 사용적인 면에서 편리하고 획기적인 비료입니다

꼬비(가정원예용)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도시농업사업부

1670-5246 T. 02)6408-5246 F. 02)424-5246

M/P 010-8652-3000, 010-9565-1729, 010-4787-1292

www.KoreaBio.net www.KBio.net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 · 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 · 수도권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

테르메덴 50% 할인
월간 가든인 109p를
확인하세요!